



박경림 영어 성공기

지은이 : 박경림 · 백선엽 함께 씀

출판사 : 디자인하우스

ebook 제작/공급사 : (주)인크리션

ebook 발행일 : 2004년 6월 28일

본 eBook은 전송권자의 허락 없이 전체 또는 일부의 copy 또는 print를 할수 없습니다.

■ C.O.N.T.E.N.T.S ■

- 추천글 ●
- 머리말-박경림 ●
- 머리말-백선엽 ●

1 Vocabulary 단어 공부에도 요령이 있다

英語 괴담 | English면 다 통한다

머리가 나쁘다고 자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 암기법

영어의 처음과 끝, 어휘 늘리기

미국에서 하루에 열두 번도 넘게 쓰는 외마디 영어 10가지

공부 좀 열심히 할걸~

2 Speaking 말하기가 가장 쉬웠어요

英語 괴담 | 너무 많은 연습은 건강에 해롭다

말하기, 모방으로 시작하자

영어 말하기, 발음과 요령이 반이다

필요할 때 톡톡 터뜨리는 두 마디 영어 Top 10

타인에게 말 걸기

박경림이 추천하는 뉴욕의 멋진 곳

3 Listening 온몸으로 영어 듣기

英語 괴담 |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내 영어 듣기 선생님은?

리스닝, 리듬을 타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발음 10가지

I Love My Life

4 Grammar 왕초보 문법은 따로 있다

英語 괴담 | 야호! 나도 이제 예스, 노를 구분할 수 있다!

문법? 多多益善(다다익선)보다는 多用益善(다용익선)!

박경림의 영작을 통해 본 영문법의 기초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세 마디 영어 Top 10

하루하루가 내게는 감격의 순간

박경림이 추천하는 뉴욕의 맛집

5 Reading&Writing 쓰기는 쉽게, 읽기는 재미있게

英語 괴담 | Are you a vegetarian? No, I'm Korean!!!

읽기와 쓰기, 하루도 빼먹지 말자

처음부터 영영사전으로 시작하라

날마다 입이 닳도록 쓰는 일상 표현 10개

<Sex And The City> 촬영 현장에서

6 English Alive 영어와 친구하실래요?

英語 괴담 | 평생 못 잊을 April Fools' Day

우리는 이미 영어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Informal Expression을 모르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외화를 낭비하는 유학생의 대표적 습관 5가지

영어는 세계와 친구 삼는 도구

- 맺음말-박경림 ●

- 땃음말-백선엽 ●
- 작가소개 ●



Burst into blossom,
Butterflies are fluttering
All things have a sweet voice

I'm full even though I didn't eat
I'm fresh even though I didn't sleep
I miss you even though I see you

Love appears suddenly
When you think all things as beautiful
... That is love.

Katy Park *mmmm*

이 글은 2003년 4월,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간 지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쓴 시입니다.

문장도 어색하고 단어도 미숙하지만, 부족한 대로 독자 여러분께 이 시를 바칩니다

이 시에 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전하며...

● 추천글 ●



When I first saw Katy bouncing into the New York Film Academy, she was full of fun and a breath of fresh air. She was, more importantly, enthusiastic about her new classes and excited to learn. Since she started, she has improved considerably in both her acting and her English. Now she can be the next Oprah Winfrey! *In filmmaking and acting, the learning never stops!* We wish her all the best for the future.

케이티(경림)가 뉴욕필름아카데미에 들어오던 날, 그녀는 참 활달했고,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티는 늘 열정과 호기심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교과 내용을 습득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녀는 연기와 영어 두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2의 오프라 윈프리를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 제작과 연기 모두에서 그녀의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케이티에게 행운을 빕니다.

— 제리 셸록, 뉴욕필름아카데미 학장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위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라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경림은 주변 여건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스스로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경림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 서재응 · 이주현 커플



1년 전, 초보에 가까운 영어로 시작했던 미국 유학생
활.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영어 실력은 영어
권에서 여러 해를 살면서 영어를 다져 온 다른 사람들
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 본 내게는
그녀의 눈부신 발전이 놀라기보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
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꿈과 사명감으로 일궈
온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녀가 터득하고 증명한 비결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놓은 외국어 공부 방법론입니다
. 외국어가 이미 삶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은 지금, 모든 이의 필독서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서진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자



경림과 친구가 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작년 가을 그녀를 뉴욕에서 만났을 때, "역시!"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내 친구 경림인 나
의 예상대로 영어를 너무 뽀뽀하게 잘하고 있
었던 것이다. 자신이 계획한 것을 하나씩 하나
씩 다부지게 이루어 가는 그녀가 난 참 자랑
스럽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그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경
림이, 파이팅!

- 이기찬



Kyeong-rim is a consummate storyteller. Her keen, unique sense of observation and humor makes even the most mundane occurrences seem interesting and funny. Kyeong-rim also has a thirst for knowledge. Her diligent effort to master the English language became obvious to me recently. It was only about a year ago when I fi

rst met her in New York. She had much difficulty speaking English but now her English skills have improved so much so that she and I converse only in English. Kyeong-rim is a remarkable girl and a very good friend.

경림은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꾼입니다. 뛰어난 관찰력과 유머 감각을 겸비한 그녀는 아무리 평범한 사건들일지라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해석해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배움에 대한 욕구도 왕성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그녀가 쏟는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경림을 뉴욕에서 처음 만났던 1년 전만 해도 경림은 영어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 실력이 부쩍 늘어 저를 만나도 영어로만 대화를 할 정도입니다. 경림은 정말 대단한 젊은이이자 저의 좋은 친구입니다.

- 정범진, 브루클린 검찰청 부장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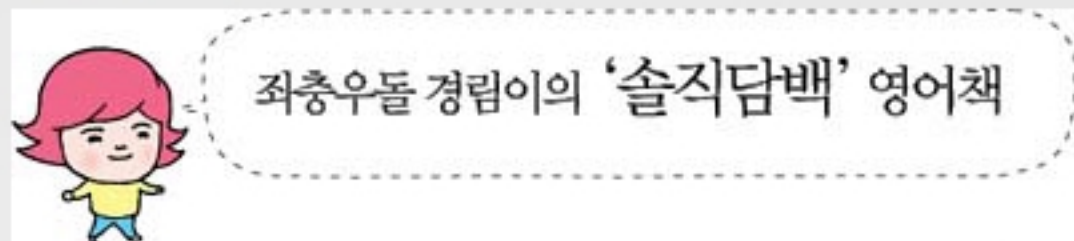


When Katy first entered our class, she came off as being very shy and self-conscious about her English, although she always kept a smile on her face and paid very close attention to everything and everyone in class. Her presence was that of a very humble, kind person. Once she felt a little more comfortable with everything she expressed her comedic side which added a wonderful new aspect to the group in that it gave some of us the courage to express ourselves even more and really added to the intensity level of the exercises and each and everyone's acting ability. I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continue to study with her in school and being best of friends outside of school.

케이티가 처음 우리 수업에 들어왔던 날, 그녀는 영어 때문에 주눅이 든 수줍은 친구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케이티는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띠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부터 그녀는 자신의 유머러스한 끼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놀랐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의 연기 수업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들의 실력도 부쩍 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동안 계속 그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졸업 후에도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 그레그 리, 박경림의 동기이자 제일 친한 친구

● 머리말-박경림 ●



영어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맞는 말이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말이다. 어딜 가나 한국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영어 한마디 안 써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곳 뉴욕이다.

그럼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만약 위에 말한 사실들이 뉴욕의 모든 것이었다면 내가 섣뚱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가장 한국적이지 않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또 이 뉴욕이다.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출근하는 사람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마치 자신이 가수인 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필드가 꽃피면(?) 어디에서나 키스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어쩌면 나는 예전부터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001년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동시에 그때 이미 나는 내가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닥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닌 모습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가끔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방송을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7년 전 '단 1분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던 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었다. 어찌 보면 이는 교만과 안일함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바로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유학의 길이었다. 그 시절 홍정욱의 《7막7장》이라는 책을 읽고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나는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께 상처만 드리고 포기해야 했다. 당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중에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 유학비를 벌어서 유학을 가겠다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감사하게도 나는 내 힘으로 유학을 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곳 뉴욕에서 세상을 배운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수많은 인종과 종교, 문화, 음식, 패션, 자유 그리고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에서 나는 질서를 배우고 미래를 느낀다. 이것이 내가 유학을 선택하고, 뉴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다. 물론 가끔은 한없이 좌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내 젊은 날의 추억이 되어 간다.

나는 아직 도전 중이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내 자신도 너무나 궁금하다. 하지만 궁금하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다.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고, 계속 부딪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영어에 도전했고 내 자신에게 도전했다. 도전을 즐기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전하고 싶다.



《박경림 영어 성공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멀리 이 뉴욕에 있는 저를, 이번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차근차근 갚겠습니다.

우선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믿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고생한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 연경언니... 고생 많으셨죠?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툰을 그려 주신 조경규 작가님, 디자인을 맡아 주신 천상현 실장님, 이렇게 예쁜 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최고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계시던 디자인하우스의 이영혜 사장님, 제 사진 보시고 잘될 것 같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씀은 제가 예쁘다는 뜻? 좋은 기회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저의 책을 만드느라 애쓰신 디자인하우스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연언니... 우리 또 해냈어요. 이제 언니랑 저 시집만 가면 만사가 오케이! 아버지 아버지 문세 아버지, 보내 주신 용돈 여태껏 잘 쓰고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종원이 제가 공부시켜야 하나요. 네? 그리고 서진규 어머니, 항상 많은 자극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 깊이 간직할게요. 이번 책 준비하는 데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준 아미언니... 제 맘 알고 있죠? 이곳에 처음 오는 날부터 많이 챙겨 준 내 친구 민선이 그리고 규언니, '영타'가 거북이보다도 느린 나를 도와준 Diana, Thank you. ^^ <토요일밤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해줄 멧쟁이 토니 창준오빠, 뮤지컬 기대할게요. 파이팅!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영사전과 멋진 휴대폰 보내 준 정욱오빠,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늘 영화처럼 멋지게 살아요. 알았죠? 힘든 유학생활 잘 마치고 돌아간 장훈오빠, 앞으로 기대 많이 할게요! 가끔 전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화 주시는 수홍 아저씨, 한번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인 거 알고 계시죠? 목 빨리 나오시길 기도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메일 보내는데 혼자 열심히 편지 써서 부치는 미현이, 맛있는 누룽지를 먼 미국까지 보내 주시는 목련식당의 강영자 할머니, 이곳에 있는 생활이 외롭지 않게 나를 찾아와 맛있는 밥 사주신 지춘희 선생님 그리고 기찬이, 나라, 효신이, 수영이, 두나, 성진오빠, 비, 동완이, 석천오빠..., 다들 넘넘 감사드립니다. 이명세 감독님과 이재용 감독님도 맛있는 밥,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 드리고 혹시 배우 필요하시면 절..., ㅋㅋㅋ 같은 미국땅에서 항상 힘이 되는 친구 팔자. 빨리 멋진 넘 만

나기를..., 글구 은영언니 결혼 축하!!! <Story>의 승환오빠 졸업 축하해요. 드라마 대박난 인성이, 추카추카! 세상을 다 가져라!!! 서 원장님을 비롯한 '칼라빈' 식구들 항상 값진 선물 감사드립니다. 미국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은주언니와 형부, 정말 웃겨도 이렇게 웃길 수 없는 사기 커플 재웅오빠와 주현언니, 매니저 대니얼오빠, 친동생 처럼 나를 챙겨 준 정범진 검사님 그리고 부모님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밀알'의 최병인 단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밀알' 친구들, 진정한 영화인 미나언니, 형주언니, 진모오빠, 두성오빠 연선언니 부부, 성희언니, 용호오빠, 아티스트 Nikki언니, 맛있는 반찬 많이 챙겨 주신 큰집·금강산·코리아팰리스·대동면옥·원조의 사장님들과 종업원 언니오빠들, M2M 식구들, 미주 영사관의 조원일 대사님, 백주현 영사님, 미세스 신 선생님, 윤호빈 영사님 그리고 모든 영사님들, 친언니처럼 나를 챙겨 주는 양희언니, 수민언니와 내 친구 현일이 그리고 '동상'도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학 합격한 현우야, 축하해! ^^ 보스턴의 선명언니·은규오빠 부부, 회원이 아희와 아희의 남친,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마음 넓은 친구 병현이,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파이팅! 휴스턴의 유선언니 아씨부부, 워싱턴 D.C.의 지희언니 그리고 작은 형부, 알렉스 어머니와 큰형부, 정말 고맙고요. 나의 영원한 룸메이트 Courtney and Jamie! You guys made me happy. Thanks and I miss you guys! Embassy Language School의 Eimear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NYU Language School의 Neil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장미·혜진이·계영이·일권오빠·현주언니·혜승이·정연 씨·윤오빠·줄리·진의·New York Film Academy의 Jerry, Thank you for the scholarship! 항상 고생하는 자련언니, 모든 선생님들, 우리반 친구들, 고마워요. 그리고 My best friend Greg,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elped me a lot. I won't forget it! 가끔 안부 전해 주시는 각 방송사의 모든 PD님과 작가님들, 뉴욕에서 많은 도움 주시는 MBC 특파원 노혁진 차장님, 언제나 좋은 기사로 저를 잊히지 않게 해주시는 최효안·허민녕·윤경철·최영균·강수진·송원섭 기자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님들, 늘 옆에서 저만을 바라봐 주시는 로즈와 박스협 여러분들~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Follow me~ ~~~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경림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파트너 백선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태기만의 하나 저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 안에 이름이 없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백선엽 ●



2003년 봄,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003년 3월, 이 책을 처음 기획하고 박경림 씨와 연락했을 때 난 걱정을 많이 했다. '이 책 또한 다른 영어 학습서처럼 연예인 이름 달고 적당히 포장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과연 박경림 씨가 1년 만에 영어를 웬만큼 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 독자들에게 별것 아닌 내용으로 기만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쩌지?' 하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3년 여름, 박경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녀의 영어를 처음 들었을 때, [p]와 [f] 발음을 제대로 구별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과연 진행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꿨다. '어차피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다. 세칭 영어 도사들의 비법 전수를 내세운 책들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박경림 씨는 영어 고수도 도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여 주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어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자'라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뉴욕 맨해튼 소호 거리에 있는 한 유명 매장에 근무하는 미셸을 통해 박경림 씨 소식을 들었다. 미국인과 함께 나타나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더라는 것이다. 또한 나는 뉴욕에서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을 통해 박경림 씨가 영어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그리고 올봄, 뉴욕에서 나는 직접 보았다. 그녀가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만든 드라마와 시트콤들을, 뉴욕 거리를 활보하며 미국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대화하던 그녀의 모습을.... 그리고 또 나는 보았다, 그녀가 다니는 영화 학교 New York Film Academy의 동급생과 함께 방대한 드라마 대사를 줄줄줄 외우던 그녀의 모습을....

1년 전 내가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박경림과 지금의 박경림이 과연 동일 인물인가 싶었다. 뉴욕행을 결심했을 당시 기초 영문법 책을 들고 앞날을 걱정했던 그때의 박경림은 사라지고, 내 앞에는 성숙하고 당차고, 열정으로 푹푹 뭉친 유학생 박경림이 있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그녀의 영어를 챙겨 주고 도와주며 함께 해온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역시 박경림이야!' '박경림은 다르긴 다르군!' '박경림이니

까 해낼 수가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많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도로 도와주신 가족들과 사비나, 이주연 사장님, <Goodday> 강수진 기자, 디자인하우스의 이영혜 사장님, 김수희 편집장님, 배연경님께, 그리고 2월 13일 하늘나라로 가신 춘천의 양광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

영어 단어에야말로 100퍼센트 들어맞는 말이다.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가장 절실히 든 생각이 '왜 진짜 단어 공부를 안 했을까'였다.

그래서 지금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단어다.

어휘 습득에는 왕도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즐겁게 익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저기~
대박의 길
보여요?



Vocabulary

CHAPTER 1

단어 공부에도
요령은 있다

- **英語 과답 22** English면 다 통한다! ● **효과 뽕! 나의 영어 학습법 26** 머리가 나쁘다고 자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어 암기법 - '많이'보다 더 중요한 '확실히' - 운동과 단어 암기를 동시에 - 주제별로 분류하여 외우자 - 게임으로 단어 외우기
- **백선엽의 영어 Clinic 38** 영어의 처음과 끝, 어휘 늘리기 - 효과적인 어휘 습득을 위한 5가지 방법 - 기초 단어로 풀어 본 박경림의 New York Life ● **박경림의 현지 영어통신 50** 미국에서 하루에 열두 번도 넘게 쓰는 와이드 영어 10가지
- **Katy's Diary 56**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무고했지만, 나는 처음 이곳에 도착하면서부터 실수투성이였습니다. 2003년 2월 26일 이곳 뉴욕 JFK국제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사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혹시나 영아가 절로 나올까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더군요 T.T) 나의 가나인 고난과 역경은 시작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구나! 공기부터 다르네.



오호라, 저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입국심사대로구나.



헐지 미국인과의 첫 대화라니, 엄청 역사적인 순간이잖아. 괜찮아, 박경림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아자!



자비스에게 미소 띠면 얼굴로 칭찬해...
Next!



Why do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English!

야호, 아는 질문이던 역시 박경림 연습한 보람이 있겠어. ^^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영?



질문이 또 있었나?

뭐지? 무슨 잉글리시라고 한 거 같은데...



English

어라 모르겠다!



시작 재가 목소리 하는거? (영어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어권 나라에 가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다. 자신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늘지 않는 것이 이 영어라는 것을...

그중에서도 영어 단어는 절대적이다. 생활이야 부딪치다 보면 절로 적응이 되고,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귄 수 있지만, 영어 단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트 하고, 외우고, 써먹는 노력 없이는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 영어 단어에 딱 들어맞는 명언이다. 이곳에서 영어와 한판 씨름을 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도 영어 단어다. 모든 말의 기본은 단어 아닌가! 단어와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우리말이나 영어나 기본은 똑같다. 문법이라는 일정한 틀에 단어를 바꿔 넣음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문법은 틀이고 단어는 내용이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문법이 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문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일정한 틀이고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단어이므로 정작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은 단어다. 영문 독해도 마찬가지다. 설령 문법에 약하다 해도 단어만 알면 어느 정도 뜻 해석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 실력에 시너지가 팍팍 붙어서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는다. 그러니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영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자!

단, '열심히'가 반드시 '무식하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건 다 아실 거다. 열심히 하되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다. 여기에 내가 터득하고 내가 즐겨 하는 단어 암기법을 소개한다.

하나 '많이' 보다 더 중요한 '확실히'

단어란 무엇이나? 문장의 기초요, 영어의 모든 것이다.



때때로 이 영어 단어란 것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아주 몹쓸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시의적절하게 입에서 튀어나와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든든한 존재이기도 하다.

고백컨대 나의 단어 실력은 정말이지 절망적이다. 그럼에도 내가 여태껏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요리조리 눈치껏 이용해 먹기 때문이다. 카~~ 이 '이용'이라는 말이 다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난 분명히 이것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난 정말이지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적당한 표현들을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적게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알고 있어도 다 틀리게 알고 있으면 적지만 제대로 아는 것만 못하니까 말이다.

물론 다들 알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정확히, 그리고 많이 아는 거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단어에 얽힌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든가 그 단어 때문에 집안끼리 심한 싸움이 있었지 않고서야 오래도록 기억되기 힘들다. 천재가 아닌 이상 누구나 그렇다.

나 역시 단어를 외우면서 자주 잊어버려 속상한 적이 참 많은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단어를 외운 그 다음날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단어 외우기는 반복이 중요해 자주 눈에 띄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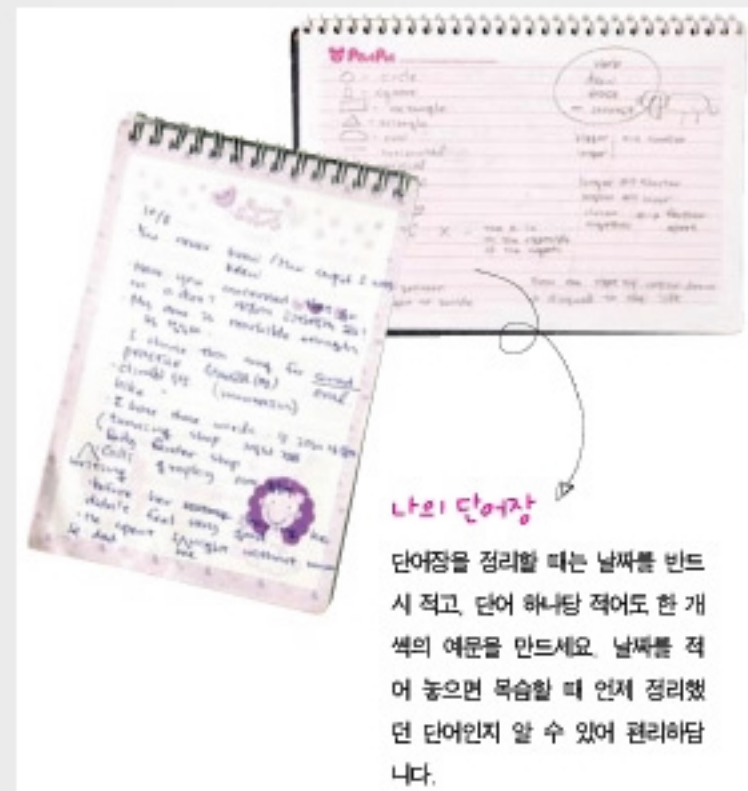
그러고는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 이때 분명히 까먹은 단어들이 20~30퍼센트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주의 깊게 외우고 나서 또다시 **2주 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한 번만 보고 말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자주 보면 기억이 오래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머리 구조상 헷갈리는 단어는 끝까지

죽어라 헛갈리므로 하루에 백 번씩 쓰면서 급하게 외워 버리려는 자세보다는 보름에 한 번씩 체크해 보겠다는 느긋한 태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단어를 암기할 때는 예문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되면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확실히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어를 외울 때는 스스로 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외우도록 하자. 예를 들어, pancake라는 단어는 "Do you want some pancake?"(팬케이크 좀 먹을래?)라는 문장과 함께 외우고, hurt라는 단어는 "It hurts a lot."(너무 아파)라는 문장과 함께 기억하는 게 좋다.

운동과 단어 암기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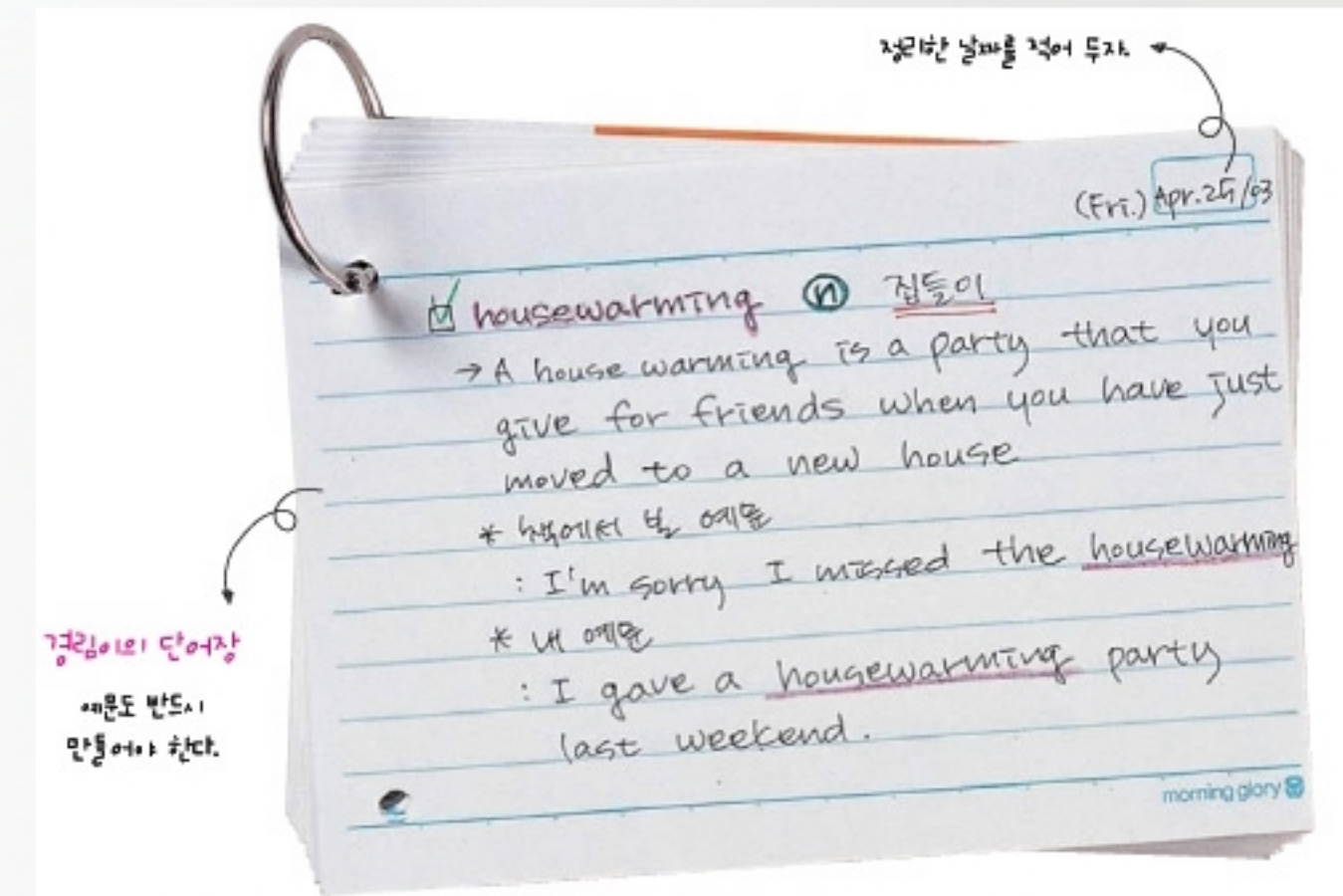


단어장을 정리할 때는 날짜를 반드시 적고 단어 하나당 적어도 한 개의 예문을 만드세요. 날짜를 적어 놓으면 목숨할 때 언제 정리했던 단어인지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들이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소설책이나 두 번 접은 신문을 들고 있었다.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데에서 '아~ 이 나라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그때부터 내가 지하철 안에서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이 미국사람들한테 처벌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하루에 열 개, 두 달째부터는 열다섯 개... 이렇게 개수를 늘려 가며 단어를 외웠다. 사실 하루에 열 개만 해도 한 달이면 300개다. 단어장에는 주로 책을 읽다가 발견한 모르는 단어, 문법책에 예문과 함께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두었다.



경험자의 단어장
예문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천재가 아닌 내가 이렇게 상당수의 단어를 꾸역꾸역 외우다 보니, 잠시 방심하는 사이를 틈타 영어 단어라는 녀석들이 배신을 때리기 시작했다. 방학을 맞고 이사를 하면서 그동안 힘껏 외운 단어들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 가고 있을 때...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건강한 정신에 완벽한 몸매,
훌륭한 몸매에 맑은 정신.
아~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한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는 게 아니라 걸어서 통학을 했고, 라디오 듣기에 재미를 막 붙인 참이라 단어를 외울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늘어 가는 몸무게를 보며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한 나 박경림은 일생일대에 가장 스펙터클하고 판타스틱하면서 스케일이 큰 '울트라캡송나이스짱'한 다이어트

플랜을 세우게 됐다. 건강한 정신에 완벽한 몸매, 훌륭한 몸매에 맑은 정신.... 카~~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나의 다이어트 플랜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1년 후 이맘때, 그러니까 나의 플랜이 끝날 때쯤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난 요즘 헬스클럽(여기선 짐Gym이라고 부른다)에 아주 열심히 다닌다. 제일 먼저 몸을 풀고, 그 다음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러닝머신treadmill을 뒀다. 그러던 어느 날,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중에 갑자기 머리 위로 전구가 하나 '땡' 하고 떠올랐다. '어차피 뛰는 동안 운동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 단어를 외우자!' 하는 생각 말이다. 카! 이런 아이디어는 항상 공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꼭 차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생각해 내기 힘든 멋진 아이디어다! ㅋㅋㅋ



그래서 난 그 다음날부터 집에 가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이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라 숨은 차지만 의외로 집중이 잘 된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잘 외워진다는데, 나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단어를 외우는 게 잘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전직 가수 출신이라 그런 것 같다. 이 리듬, 리듬을 타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다. (죄송합니다. 꾸벅^^) 운동과 영어 단어, 이 두 가지가 나에게는 모두 소중한데 '집에서 단어를 외우는 발상'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아 뿌듯하다.

단어를 외울 때는 발음 또한 아주 중요하다. 백날 머리로만 외워 봐야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발음도 엉망이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오버되거나 괜히 이상해진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단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크게 따라 말하는 것이다. 집은 음악소리가 아주 커서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떠들어 대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다. 일단 단어 테이프를 하나 구입해 들으면서무조건 단어를 크게 따라 외치며 외운다.

☀ 주제별로 분류하여 외우자

'단어 암기'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나 참고서 옆에 나와 있는 필수 단어들을 무작정 연습장에 써 가며 스펠링을 외우다 보면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싶은 억한 심정이 든다.

게다가 사람의 기억은 어찌나 간사한지! 학교에서 다음날 족지 시험이라도 본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신기하게도 시험을 딱 치고 나면 하나도 기억에 남질 않는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꼭 똑같은 걸 다시

외워야만 하게 마련이다. 왜 그럴까?

그 단어가 나랑은 아무 상관 없는 단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외우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단어 암기는 단순 고역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영어 단어를 참 많이 쓴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미 상당히 많은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

엄마 주스(juice) 먹고 싶어.
너 정말 센스(sense)가 있구나.
오케이, 내 스토리(story)를 이야기 줄게.
돈우려! 비하해! (Don't worry, be happy).
너 오버(over)다.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Longman Activator
사전

그냥 사전이 아니라, 단어를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활용' (activate) 사전입니다. 물론 그 주제들은 알파벳순으로 인접하여 정리되어 있지. 예컨대 주제 리스트에서 'taste' (맛)를 찾으면, 거기엔 delicious, disgusting, spicy, sweet 등의 단어들만 딱~ 분류되어 있고,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단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우고, 실제로 써 먹을 수 있도록 외우고 싶은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는 사전입니다.

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나?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무의식중에 암기가 된다. 분명히 외우려고 안 했기 때문에 외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쓰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즉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외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낸 방법이 남 같은 단어를 친구 같은 단어로 인식해 가며 외우는 것이다. 어떻게? 먼저 나와 상관있는 (내가 아는) 단어를 꼭 써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다 모르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우리가 이래저래 아는 단어는 참 많은데 그것들을 다 집합시킨 적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나서 일단 내가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나를 알아야 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는 또 얼마나 되나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깨끗한 연습장 꺼내기. 그런 다음 한 가지 맘에 드는 주제를 정한다.주제를 정할 땐 나와 관련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예를 들어 '내 몸'이라고 해보자. 우선 신체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모두 생각해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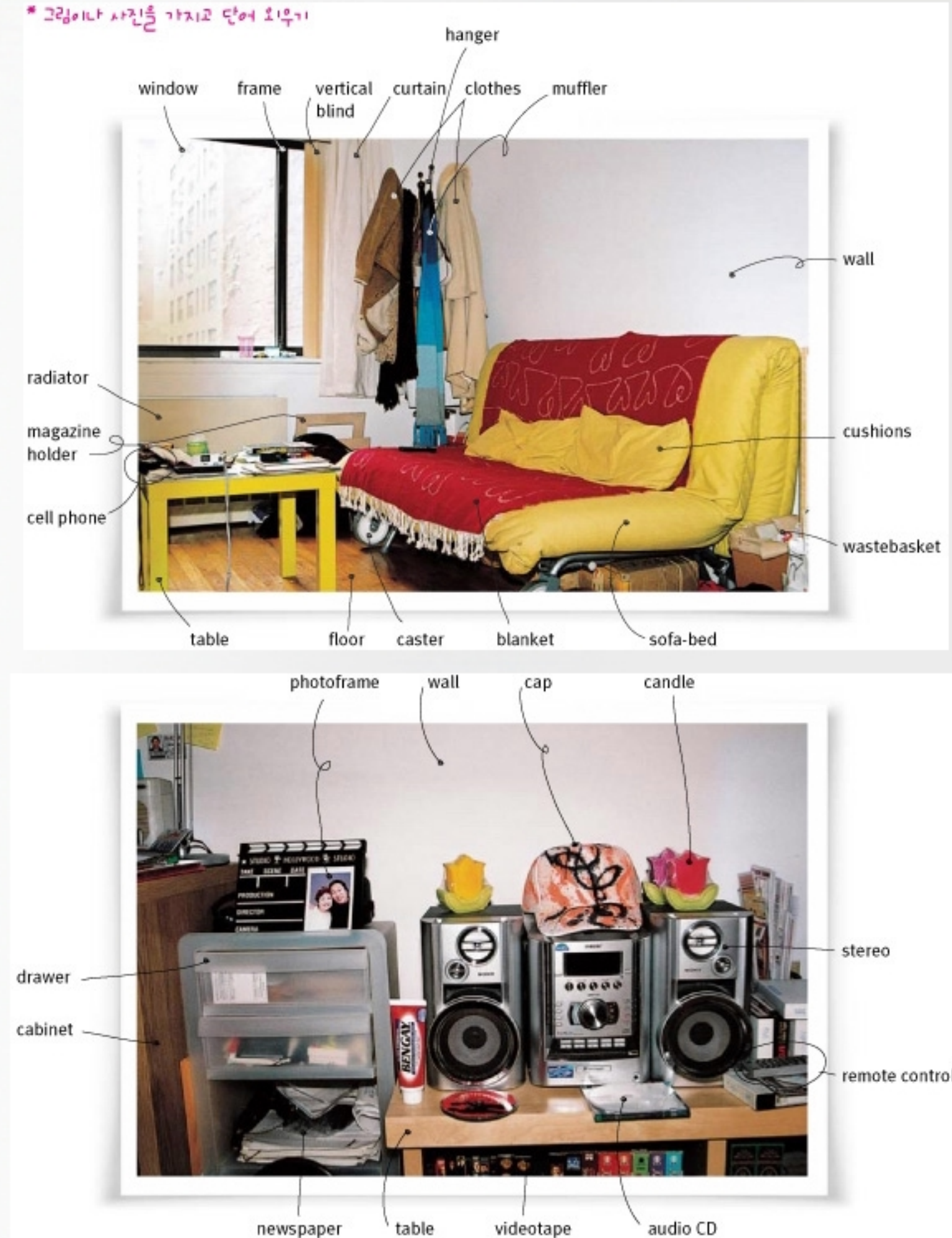
다. 머리 눈 코 입 귀 얼굴 가슴 어깨 배 배꼽 팔 팔꿈치 손 손목 손톱 손가락 다리 무릎 발 발톱 엉덩이 머리카락 가르마, 그리고 허벅지 발바닥 손바닥 목 치아 잇몸 이마 눈썹 쌍꺼풀 속눈썹 콧구멍 겨드랑이 항문 점 심장 피 내장 뼈 근육 알통 상체 하체 복숭아뼈 엉치뼈 허리 등등등 (헉헉)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의 단어인가?



그렇게 적은 다음, 이 가운데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옆에 적어 본다.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다. 모르는 단어가 훨씬 많다 해도 상관 말자. 아는 단어가 있다는 게 어딘가. ^.^

일단 내가 아는 것들이 정확해지면 이제 모르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본다. 그래서 적어 놓고 약 1분 정도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봐 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어와 나와 의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쓴 단어들은 무조건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단어라는 건 단번에 딱 외워지는 게 아니기에 그때만 집중해서 보고 나중에 다시 또 되새기는 게 낫다. 이때그림이나 사진의 도움을 받으면 금상첨화다. 시각적인 것과 동시에 외우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가기 때문이다.

신체를 다 했으면 연습장을 다음 장으로 넘겨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그 다음 장엔 직업들만 짹~~~. 이런 식이다.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내 방에 있는 물건을 비롯해 색깔의 종류, 채소의 종류, 화장품의 종류, 가구의 종류 등등 계속해서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 어느새 영어 단어 도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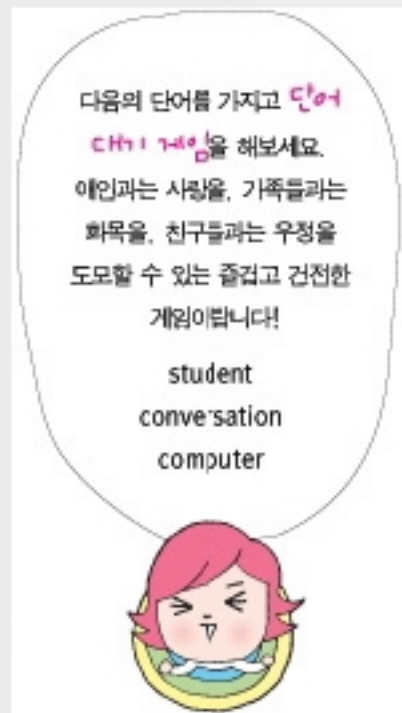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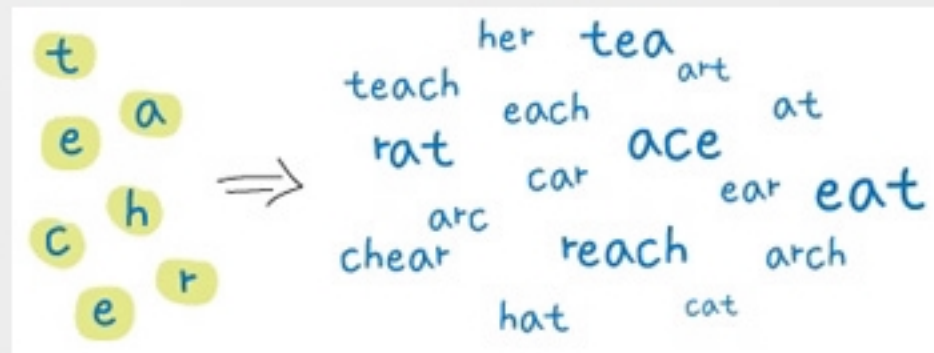


넷 게임으로 단어 외우기

난 아직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하여가'의 가사와 랩을 다 외운다. 근데 왜 단어 시험은 늘 반타작밖에 못하는 걸까? 내 생각으론 단어에 대해서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노래가사는 잘 외워지는데 왜 단어는 죽어라 안 외워지는지... 그 이유는 노래가사는 외워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 그게 정말 내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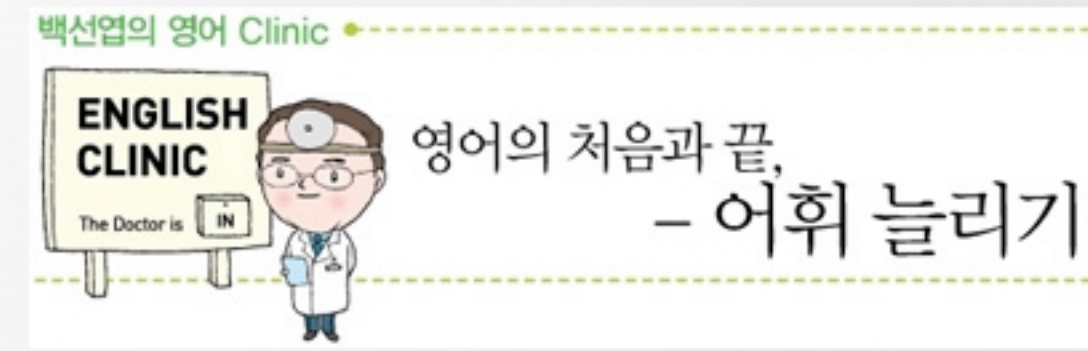
영어를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왕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외운다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이다. 내 생각엔 게임이 바로 '즐겁게 단어를 외우는' 한 방법이다.

이런 게임이 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 예를 들어, 선생이라는 단어, teacher를 선택했다고 치자. 이제는 돌아가면서 이 teacher에 들어 있는 레터(알파벳)로 조합하여 단어 만들기를 해보자. 과연 이 teacher에 들어 있는 철자를 조합하면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t, e, a, c, h, e, r를 상상하고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종이에 적어 놓고 봐도 된다. 그런 다음 단어 대기를 해보는 거다. 우선 내가 생각나는 대로 teacher의 스펠링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나열해 보겠다. (물론 순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금세 17개가 나온다. 친구들과끼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단어를 말하고 뜻을 말해 보는 것이다.

또 다른 게임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단어를 대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 굉장히 유치할 것 같은 게임이지만 이게 또 은근히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게임이다. 떡볶이, 뭐 이런 것을 걸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 없고 재미있는가. 우선 주제를 정하자. date, office, family, food 같은 것으로 말이다. 그런 다음 그와 관련된 단어들을 생각해 내고 스펠링까지 외워 보는 것이다. 단어도 외우고 시간도 때우고 떡볶이까지 먹고.... 아주 보람차지 않은가?



어드바이스 효과적인 어휘 습득을 위한 5가지 방법

효과적인 어휘 습득의 방법을 말하기 이전에 우선 가장 비효율적인 어휘 습득 방법부터 말하고 싶다. 바로 시중에 파는 단어집(그것도 단어와 한글 뜻만 나와 있는 것)을 사서 공부하는 것이다. 어휘는 맥락context 속에서 익히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단어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방법1. 쉬운 것을 확실하게 정복하라

미국 유치원생이 아는 단어는 약 800단어, 미국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는 약 1500단어라고 한다. 1500단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영어 교육만 착실히 마치면 대개 알게 되는 단어들이다. 이 '쉬운' 단어들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단어들은 엄밀히 말해 쉬운 단어가 아니라 '중요한' 단어들이다. 우선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부터 한 권 구하자. 그리고 카세트테이프를 들으며 지문을 통째로 외우자.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방법2. 영어책 한 권을 독파해 보라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원서책 가운데 한 권을 선택해서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 나오면 자기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것이고, 모르는 단어가 3개 미만이라면 쉬운 수준이다. 쉬운 걸 고르자)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 보자.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어휘를 모두 외우자.

방법3. 단어장을 항상 휴대하라

길을 가다 생소한 단어를 보았다거나, 외국인이 하는 말 가운데 새로운 단어를 들었다면 꼭 기억해서 단어장에 남겨 두자. 그때그때 모르는 단어와 부딪칠 때마다 반

드시 기록해 놓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쌓이는 어휘가 진짜 실력이 된다.



방법4. 문장과 함께 외워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단어는 단어대로 문장은 문장대로 각각 외우는데,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다들 문장 속에서 어휘를 외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문장 속에서 단어를 외워야만 살아 있는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방법5. 예문을 스스로 만들어라

단어를 외웠다는 말은 그 단어를 이용해서 예문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단어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다.

공부합시다

기초 단어로 풀어 본 박경림의 New York Life

Morning Routine

경림의 아침

나의 자취방은 the 3rd Avenue에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어김없이 get up해 brush my teeth를 하고 take a hot shower를 합니다. 그리고 turn on the TV하여 그날의 the weather report를 들으며 make coffee를 합니다. 가끔은 가볍게 eat breakfast를 하기도 하지요. 나는 뉴욕에 온 이후로 거의 put on make up을 하지 않습니다. 재빨리 comb my hair를 한 뒤 간편한 옷으로 get dressed합니다. lock the door를 하고 집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힘차고 경쾌합니다. 또 다른 아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너를 공부하기 전에

1. 편하게 눈이 가는 대로 꼭 읽어내려 갑니다.
2. 읽어내려 갈 때 단어의 내용을 상상하면서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3. 모르는 단어는 아래 예문을 통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4. 단어를 다 이해했으면 다시 한 번 본문 내용을 즐겁게 읽어 보세요.



● get up 일어나다

I get up at seven o'clock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 brush one's teeth 이를 닦다

I need to brush my teeth. 이를 닦아야 해요.

● take a shower 샤워하다

I'm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하러 가요.

● turn on the TV 텔레비전을 켜다

Would you turn on the TV? 텔레비전 좀 켜 주실래요?

● the weather report 일기예보

I read the weather report in a newspaper. 나는 신문에서 일기예보를 읽었습니다.

● make coffee 커피를 타다/볶다

I'll make coffee. 커피를 볶을게.

● eat breakfast 아침을 먹다

Did you eat breakfast yet? 아침 먹었어요?



- **put on makeup** 화장하다
Are you almost done **putting on** your **makeup**? 화장 다 돼 가요?
- **comb one's hair** 머리를 빗다
I'll **comb my hair** in the car. 차에 타서 머리를 빗을 게요.
- **get dressed** 옷을 입다
Get up and **get dressed**. 일어나서 옷 입어요.

● **lock the door** 문을 잠그다
Did you **lock the door**? 문을 잠그셨나요?

Dialogue

- 1
- A I **get up** at six o'clock every morning. 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B Why so early? 왜 그렇게 일찍?
A I have to **take a shower**, do my hair, and **put on my makeup**. 샤워도 해야 하고, 머리도 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기 때문이지.
B You could shower the night before. 샤워는 전날 밤에 해도 될 텐데.
- 2
- A Are you ready to go to work? 출근 준비 다 됐어?
B I want to hear out **the weather report** first. 우선 일기예보부터 다 듣고.
A You're going to be late. 그러다 늦는다.
B Okay. What a hurry! 알았어. 왜 그렇게 서둘러!

2 Party

미국의 파티



결혼 파티엔 초대장

미국사람들은 참 자주 go to parties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party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party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거창한 이유가 있거나 화려한 event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친구들과끼리 간단히 tea party를 하거나, 야구 관전을 한 뒤에 삼삼오오 모여 after-hours party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며칠 전에 저는 할렘에서 이곳 3번가로 move in한 기념으로 친구들을 invite해 housewarming을 했습니다. 우리 반의 친구들은 물론 여기서 사귀 많은 친구들이 get together해서 hostess인 나에게 gift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Korean food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 **go to a party** 파티에 가다
He's a real party-goer. 그 사람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 **event** 행사
The concert is an annual **event**. 그 연주회는 연례행사입니다.

● **tea party** 티 파티
My mom and her friends have **a tea party** once a month. 우리 엄마와 친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씩 티 파티를 열어요.

● **after-hours party** 쯡파티
Can you tell me where the **after-hours party** is? 어디서 쯡파티가 열리는지 아세요?

● **move in** ~로 이사하다
I have just **moved in** this city. 저는 막 이 도시로 이사해 왔어요.

● **invite** 초대하다
Were you **invited** to this party? 당신 이 파티에 초대받았습니까?

● **housewarming** 집들이
I'm planing to give **a housewarming** this weekend. 나 이번 주말에 집들을 할 생각이야.

● **get together** 모이다/모임
I'm having **a get together** at my place tonight. 오늘밤에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 **host/hostess** 파티를 연 사람
You're a great **host**. 대접 잘 받았습니다.

Dialogue

1

- A Where did you **move in**? 너 어디로 이사했니?
 B To 3rd Avenue. 3번가로 이사했어.
 A You're going to have a **housewarming**, then. 그럼 너 집들이 하겠구나.
 B Absolutely. 물론이지.

2

- A Bob's having a **get together** at his place tonight at eight. 밥이 오늘 밤 8시에 자기 집에
 서 모인다던데.
 B I can't go. I have to study for a test. 난 안 돼. 시험 공부해야 하거든.
 A You party pooper! 너 항상 분위기 망치더라!
 B I'm sorry. I'll come next time. 미안. 다음번에 갈 게.

3

Fast-food Restaurant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fast food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곳에서
 도 패스트푸드를 junk food라고들 하지요. 근데 유학생이 되어 항상 굶주린

상태로 지내다 보니 greasy한 hamburger가
 어찌나 입맛을 끄는지...! lunch hour의
 fast-food restaurant는 늘 붐비기 때문

에 wait in the line을 해야 order

를 할 수 있습니다. soft drink와
 fries가 저렴한 가격에 곁들여 나

오는 combo menu를 나는 가장

자주 먹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to
 go를 해서 Union Square의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가끔은 길거리 food vendor에서 사먹는 2

달러짜리 hot dog도 일품입니다.



우리의 일품할 양식 햄버거

● junk food[정품]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

Junk food is not good for children's health. 정크푸드는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 greasy[그리시] 기름기가 많은

This burger is too greasy. 이 햄버거 너무 느끼해요.

● lunch hour 점심시간

We have one hour for lunch. 점심시간이 1시간이에요.

● wait in the line 줄서다

We'll have to wait in line. 줄을 서야 할 것 같은데.

● order 주문(하다)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 soft drink 청량음료, 소다수

What kind of soft drinks do you have? 청량음료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 combo menu 세트 메뉴

I'm ordering from the combo menu. 세트 메뉴로 시키고 있어.

● to go 테이크 아웃

Is that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포장해 드릴까요?

● food vendor[폰벤더] 길거리 음식점

Hot dogs at this food vendor are very yummy. 저 노점상에서 파는 핫도그는 정말 맛있어요.

Dialogue

1

- A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시겠어요?
 B Yes. 예.
 A Will this be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래요? 아니면 가져가시겠어요?
 B Here. 여기서 먹겠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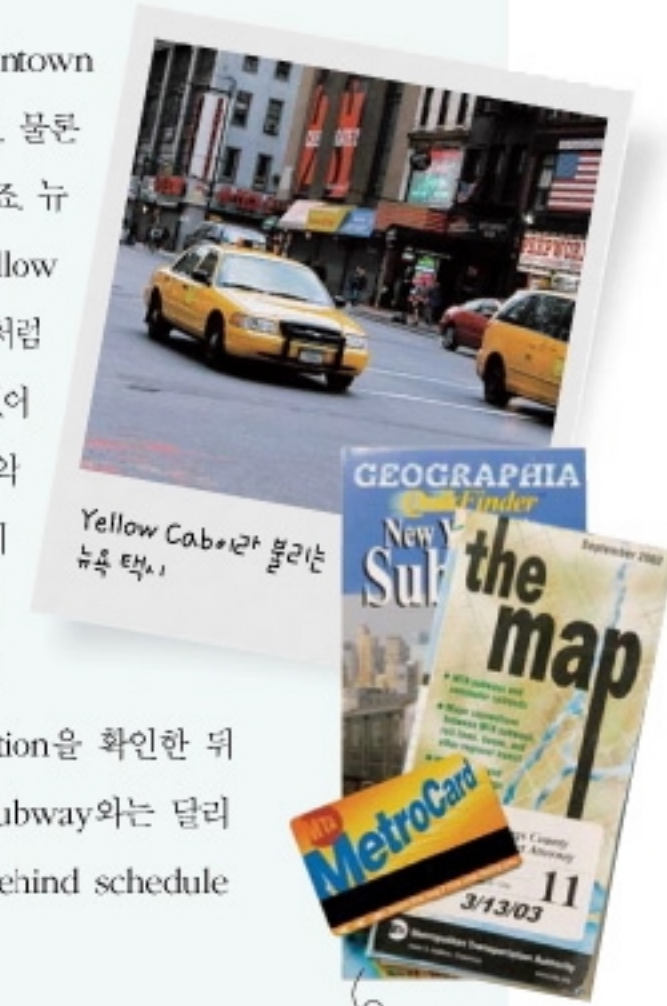
- A I'd like a number three meal. 저는 3번 세트 메뉴로 주세요.
 B What kind of **soft drink** do you want with that? 음료수는 어떤 것을 드릴까요?
 A Sprite. How much are refills? 스프라이트요. 리필은 얼마죠?
 B Refills are free. 리필은 무료입니다.

4

Public Transportation

뉴욕의 대중교통

나는 다양함과 활기가 넘치는 뉴욕 downtown 을 take a walk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listening to the radio를 하면서 말이죠. 뉴욕의 taxi는 색깔이 노랑다고 해서 yellow cab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아무데서나 get in the car를 할 수 있어 편리하죠. 하지만 뉴욕의 traffic jam은 악명이 높고 taxi fare가 비싸기 때문에 subways가 더 애용됩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safer해졌다고도 하고요, take the subway를 할 때는 우선 destination을 확인한 뒤 ticket booth에서 표를 구입합니다. subway와는 달리 bus는 자주 오지도 않을뿐더러 끝날 behind schedule 해서 다소 불편하지요.



뉴욕 지도와 지하철 카드

cabbie(택시기사)란 말은 택시(cab)에서 나온 말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는 driver라고 하지요.



Get in the car right now. 당장 차에 타세요.

● traffic jam 교통체증

I'm stuck in a **traffic jam**. 교통체증에 딱 걸렸지 뭐야.

● fare 교통 요금

What's the **fare**? 요금이 얼마예요?

● take/ride the subway 전철을 타다

Let's **take the subway**. It's much safer. 전철을 타자. 그게 훨씬 안전해.

● destination 목적지

What's your **destination**? 어디로 모실까요?

● ticket booth 티켓 창구

● downtown 시내 중심가

Let's go **downtown**. 시내 나들이 가자.

● take a walk 산책하다(=go for a walk)

Let's **take a walk** before it gets dark. 어두워지기 전에 산책이나 할까?

● listen to the radio 라디오를 듣다

I'm **listening to the radio** news. 나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어요.

● get in the car 차에 타다(또는 get off the car 차에서 내리다)

I'll be in line for the **ticket booth**. 티켓 창구에서 줄서고 있을게.

● **behind schedule** 늦은
We're **way behind schedule**. 우리 늦었어요.

Dialogue

1

A Where do you **get off**? 너 어디서 내려?

B I get off at the next stop. 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A Will I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B Sure. 그래.

2

A Let's **get in the car**! 차에 타자!

B Can I drive? 내가 운전할까?

A Sure. You'll need to adjust the seat. 그래. 자리 조정을 해야 하겠는걸.

B Thanks. 고마워!

5 School Life

경림이의 학교생활



내가 다니는 학교는 New York Film Academy
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major를 acting으로
register했습니다. 여기는 semester hours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서 curriculum이 이
미 꽉 짜여 있습니다. 나와 classmates들은 일
주일에 11classes를 take합니다. 매일 외워야
하는 수십 장의 script와 쉴 새 없이 내주는
handouts, 각종 class project들에 치여 때
로는 exhausted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
작 중요한 것은 score가 아니라 improving myself라고
마음먹으며, 하루하루 내 자신을 encourage합니다.

● **major** 전공

I'm **majoring** in economics.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 **register/sign up** 등록하다

I need to **register** for two classes. 두 과목 신청해야 해.

● **semester hours** 학점

How many **semester hours** did you take last semester? 지난 학기에 몇 학점을 수강했나요?

● **curriculum** 과목

Reading Shakespeare is on the **curriculum**. 셰익스피어 강독이 학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 **take a class** 수업을 듣다

I'm **taking classes** at the community college. 나는 전문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 **script** 대본

Memorize this **script** by tomorrow. 내일까지 이 대본을 외우세요.

● **handout**[핸다아웃] 유인물

I'm going to give you **handouts** today.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인물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 **class project** 연구과제

What is your **class project** about? 네 연구과제는 뭐야?

● **exhausted**[이그조스틱] 지친/피로한(← exhaust 지치게 하다)

I got totally **exhausted** when I came home.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 **score** 성적/점수

The averagescorefor that test was 50. 그 시험의 평균 점수는 50점이다.

● improve oneself 자기개발하다

I've come here toimprove myself. I want to expand my horizon. 나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내 가능성을 넓히고 싶습니다.

● encourage[잉커리취] 용기를 북돋다

His adviceencouragedme a lot. 그분의 충고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Dialogue

1

- A When's our next quiz? 우리 다음 쪽지시험이 언제죠?
B Your next quiz will be Wednesday. 다음 쪽지시험은 수요일에 있습니다.
A Did we get anyhandouts today? 오늘 유인물은 없나요?
B Yes. Pick one up on your way out. 있으니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2

- A I have toregistertoday. 나 오늘 등록해야 해.
B How many classes will you be taking? 수업은 몇 개나 들을 건데?
A With my job, I'll only be able to take two. 일을 해야 하나까, 두 과목만 들을 거야.
B I'm going to sign up for 3 classes. 나는 세 과목 들을 건데.



긴 문장을 줄줄 말해야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믿었던 나에게 원어민들의 짧고 간결한 일상 표현들은 새롭고 신선하기만 했다. 특히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에 응답하는 말들 중에는 단어 딱 한 개로 의미가 한 큐에 꽂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다. "Oh, that's a good idea. Go ahead." 대신 "Absolutely!" 간단한 이 한 마디가 오히려 더 강력하고 센스 있게 느껴진다. 아래는 미국 친구들이 하루에 열두 번도 넘게 쓰는 표현들이다. 큰 소리로 읽어 보자.



Track4 CD듣기

1 Sure! (그래/천만에)

'물론이지!' 라는 뜻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 단어. 하지만 막상 그것만은 아니었다.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할 때 "Sure!"라고 말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좋아', '물론'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Thank you!"라고 대답했을 때 "Sure!"라고 하면 '그래, 당근 고마워해야지'라는 건방진 의미가 아니라 '월요' 혹은 '아닙니다' 같은 공손한 의미라는 것은 정말 몰랐던 것이었다.

Dialogue

- A Thanks a lot for all your help.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B Sure! No problem. 천만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2 Awesome! (멋져!)

이 '어썸'이라는 단어는 이곳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의 하나다. 한번은 나와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는 다른 한국 학생이 나에게 사인signature을 받으러 찾아온 적이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룸메이트들은 내가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기념으로 내 CD를 한 장씩 선물로 주었다. 그때 내 앨범 재킷을 보고 룸메이트들이 "Awesome!"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

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awful' [어플] (끔찍한) 이랑 느낌이 살짝 겹쳐서 그 비슷한 뜻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룸메이트들은 내가 무슨 옷만 입어도 어썸, 내 노래만 들어도 어썸, 춤만 좀 춰도 어썸이라는 말을 했다. ㅋㅋㅋ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good이나 great보다도 더 좋게 표현할 때 하는 말이다. 어썸에 상응하는 말을 찾으려면, Incredible [인크레더블] 정도가 있을까?

Dialogue



GREG : Let's all go to the movies tonight. 오늘밤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
KATY : How are we going to get there?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데?
GREG : My dad says we can use his car. 우리 아빠가 차를 써도 된다고 하셨어.
KATY : **Awesome!** 죽인다야!

3 Absolutely! (물론이지!)

우리말로 치면 '당근이지'에 맞먹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많이 사랑받는 표현이다. '절대적으로'라고만 외워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단어장에 '맞아/당근/그거야'라고 옆에다 써 놓자.

Dialogue

- A Janet seems really nice. 재닛, 그 애 괜찮지 않냐?
- B You two should get together. 너희 두 사람 한번 만나야겠는데?
- A Should I ask her out? 데이트하자고 해봐도 괜찮을까?
- B **Absolutely!** 당근이쥬!

4 Beautiful! (예술인데!)

한번은 미국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한 친구가 "Beautiful!" 이라고 외치는 게 아닌가? 나는 어리둥절해져서 '뭐가 뷰티풀하다는 거야' 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beautiful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너무나 훌륭한'이란 뜻이 있는 것이었다. 왜, 우리들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멋진 숯 한방을 보면 "야 이거 예술인데!"라고 하지 않나? 그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나 할까?

Dialogue



GREG : **Beautiful!** 와, 예술이다!
KATY : What do you mean? 뭐가?
GREG : I mean this stew, Ghimchi-Jjigae? 이 탕 말야. 김치찌개라고 했던가?
KATY : Yeah. Absolutely. 그렇지? 너 음식 맛 좀 안다.

5 Cool! (좋군!)

cool, 난 정말 이 말을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다. 그냥 입에다가 모터를 단 듯이 쓴다. 이것도 cool, 저것도 cool, 혼잣말로도 cool. 미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다. 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쿨하다'라는 말이 cool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니... 어쨌든, 알아 두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단어로 사람에게나 물건에게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Cool!"이라고 말해 보라. 절대 손해 안 보는 쿨한 단어다.

Dialogue

- A I asked my mom.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 B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셔?
- A She said I can go, too. 가도 된다고 하셨어.
- B **Cool!** 잘됐다!

6 Exactly! (그거야!)

우리말의 '바로 그거야'라는 영어 표현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Dialogue

- A How do I get to the library? 도서관까지는 어떻게 가죠?
- B Go left, then go straight for ten blocks, and then go right. 왼쪽으로 간 후에 10블록을 직진하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 A I should turn left here, go ten blocks, and then turn right? 여기서 왼쪽으로 간 후에 10블록을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으라고요?
- B **Exactly!** 그렇습니다!



Exactly의 발음은 '이그제츨리'가 아니라, '이그재(지)츨리'에 가깝습니다.
틀리거나 옳거나 묻지 마세요?

7 Deal? (됐어요?)

한국에서 나에게 deal은 '딜러'할 때의 그 '딜'이란 의미 이상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선 deal이란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쓴다. 계약이니 법률이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 그런지, "good deal." (좋은 조건으로 뭔가를 샀다)이라고 할 때나 "It's no big deal." (뭐 별거 아냐)이라고 할 때처럼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인다. "Deal?" 하고 물을 때는 십중팔구 '찬성하냐?' (Is it a deal?) 정도의 뜻이다.

Dialogue

- A It's 500 dollars. 500달러예요.
B Oh! That's too much! How about 450? 아, 너무해요. 450달러라면 어때요?
A Okay! That's the bottom line. Deal? 알았어요.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하실 거예요?
B Great. 좋아요.

8 Shoot! (그리세요!)

'공을 발로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히 상대가 질문을 할 때 shoot이라는 단어로 승낙을 표한다. 예컨대, 누군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돼?"라고 물었을 때 승낙을 한다면 가볍게 "Shoot!"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Dialogue

- A Can I ask you a question? 뭣 좀 물어봐도 돼요?
B Shoot! Go ahead. 그럼요. 뭔데요?
A Do you know where the concourse B is? B 청사가 어디지 아세요?
B I'm sorry. I have no idea. 죄송해요. 모르겠는데요.



당, "Shoot!"이란 말은 상대가 먼저 질문이나 부탁을 해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9 Whatever! (좋을 대로!)

경우에 따라 좀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다. 만사가 귀찮다는 뜻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또는 신경질이 섞인 투로 '맘대로 해' '좋을 대로 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면 된다. 다른 말로는 "I don't care." 정도?

Dialogue



- GREG : I'm a bit hungry. Let's grab a bite. 배가 좀 고프는데, 우리 뭐 먹으러 가자.
KATY : If you want. 좋을 대로.
GREG : What would you like to have? Cheeseburgers? 뭐 먹을래? 치즈버거?
KATY : Whatever! 니 맘대로 하세요.

10 Terrific! (끝내주는데!)

처음 이 말을 친구 레베카에게 들었을 때 난 terrible로 착각, 오해를 하고 그 친구랑 대판 싸울 뻔한 적이 있다. ri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어 [트리픽]처럼 들리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무지하게 좋은 말이라고 했다. cool이나 awesome처럼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마구 쓸 수 있는 표현이니 여러분도 잘 기억했다가 써먹기를 strongly recommend(강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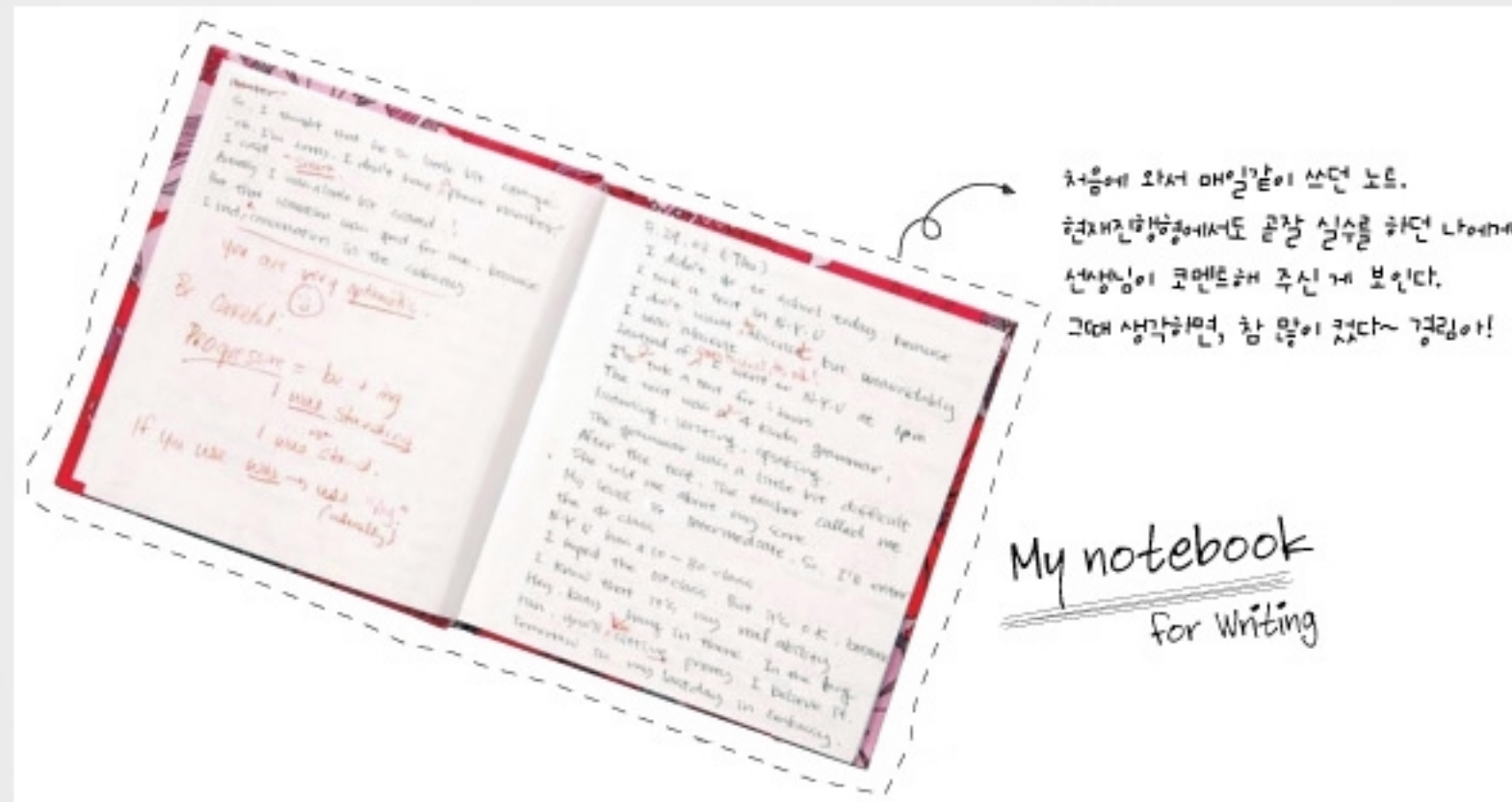
Dialogue

- A How was your test? 너 시험 어땀어?
B Terrific. 아주 잘 봤지.
A Your studying paid off. 공부한 만큼 결과가 있었구나.
B Yes. Thanks for helping me. 응, 도와줘서 고마워.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라는 것을 했으면 이미 옆질러진 물이라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등 하는 말들이 나왔을까? 나 역시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학을 결심하고 난 후 뉴욕에 도착해 하나하나 부딪쳐 나갈 때마다 오기 전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며 당연히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미국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이지 가장 후회가 됐던 건 바로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지 않고 온 것이었다.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나 친구를 사귀는 일 같은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나말이라는 건 자신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언어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친구들도 마음을 터놓고 자신들의 일원으로 대해 주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공부든 뭐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뭔가 배우고 싶고, 나를 키우고 싶어 이곳까지 올 결심을 했다. 그러나 실상 나는 유학을 위해 평소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한 것이 거의 없었다. 유일한 준비가 '배짱' 하나였으니, 더 말해서 뭣하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미국에 오면 자연히 영어가 나날이 쑥쑥 늘 줄 알았다. 물론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 그저 많이 듣는다고 들리는 것도, 많이 돌아다닌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학생'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습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어휘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억지로 한 영어공부가 전부이다시피한 나인지라, 이곳에 와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자연히 예전에 단어를 많이 외우지 않았던 것이 후회막심할 수밖에. 지금 이를 악물고 들이는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쏟았더라면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할까!!!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쪽지시험 치고 그러셨을 때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 둘걸!!! 껴이꺼이~~.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짝지시킴 하고
그러셨을 때 틈틈이 열심히 공부해 둘 걸!!!



만약 내가 단어만 많이 알았더라면 여기서 배운 문법 규칙들을 무궁무진하게 적용하면서 영어 실력이 그야말로 일취월장했을 텐데, 만약 내가 단어만 많이 알았어도 영화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웬만한 상황은 눈 감고도 이해했을 텐데.... (이곳에 처음 와서 <시카고>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이지 단 한 마디도 들리는 단어가 없어 처참했다.) 정말 많은 후회를 내게 안겨 준, 아 단어들이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여!

나야 이미 이곳에 떨어져서 별 수 없이 영어와 씨름하고 있지만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단어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인생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자 하면 꼭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영어공부를 좀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어공부를 시작하시길... 



"인생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자 하면 꼭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영어공부를 좀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어공부를 시작하시길..."

내가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이 "너는 말을 잘하니까 분명히 영어도 빨리 늘 거야"였다.
하지만 그런 반만 맞는 얘기라는 게 이곳에 와서 확인됐다.
대화를 끌어가는 요령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터득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회화에 유리하긴 했지만,
정작 영어 실력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많이 들어 주면서 쑥쑥 늘었기 때문이다.



영어 말하기,
그냥 지르고
보자고요!

Speaking

말하기가 가장 쉬웠어요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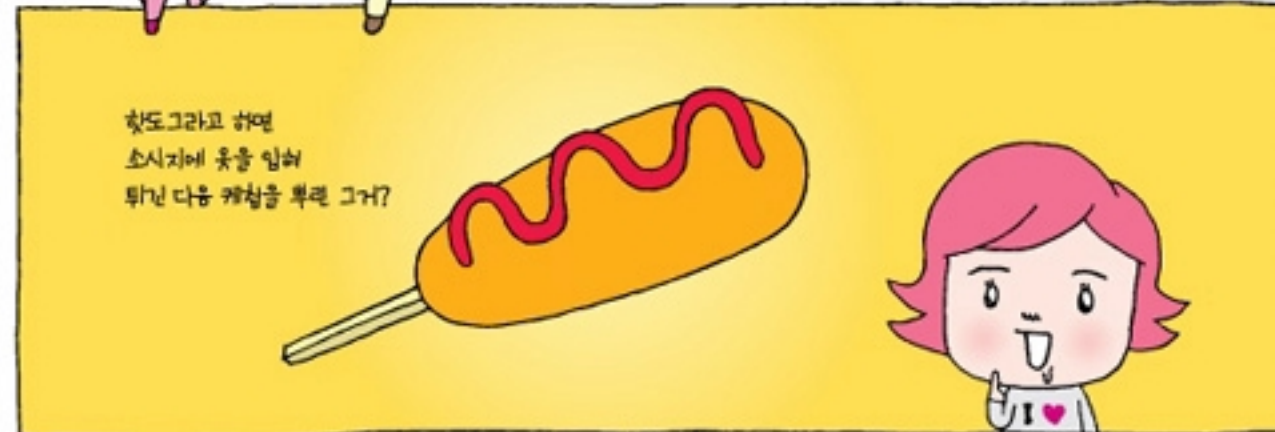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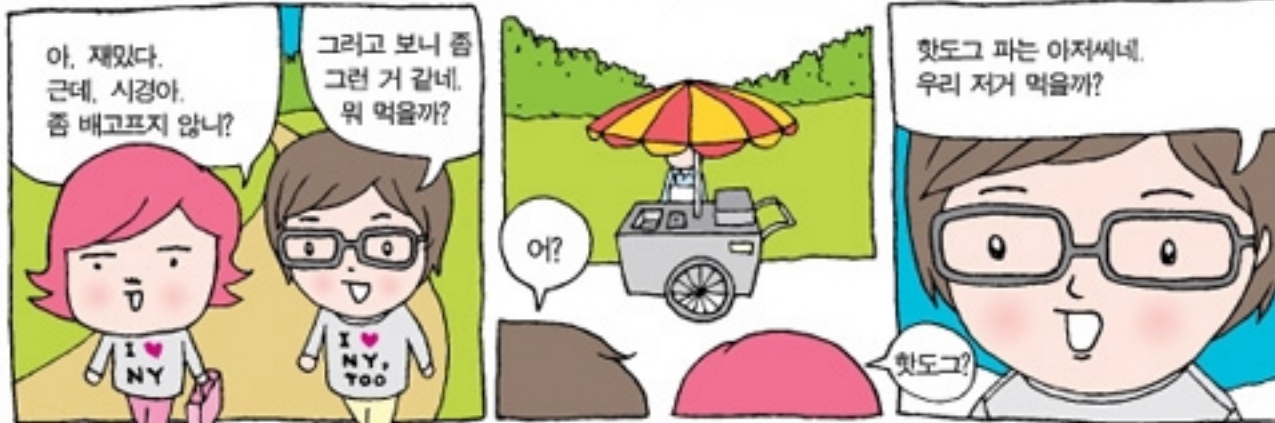
● **영어 과감 62** 너무 많은 연습은 건강에 해롭다 ● **효과 쟁! 나의 영어 학습법 66** 말하기 모방으로 시작하자 -
텔레비전은 나의 말하기 교재 _ 말할 때 문법은 일단 잊자 _ 모양새도 살펴 보자 _ 발음 또한 정말 중요하다 ● **백선엽의 영어**
Clinic 78 영어 말하기, 발음과 요령이 반이다 - 영어 말하기의 Do's & Don'ts _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발음 연습
● **박경림의 현지 영어통신 84** 필요할 때 툭툭 터뜨리는 두 마디 영어 Top 10 ● **Katy's Diary 90** 타인에게 말 걸기

英語 必讀 |

너무 많은 연습은 건강에 해롭다



미국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사로운 어느 봄날,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시경이가 이곳 뉴욕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에서 온 친구를 보니 너무 반갑고 기뻐 우린 쇼핑도 하고 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동안 수다를 떨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파 왔는데 앞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온 나는 그야말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도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동안 아무리 영어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어도 이곳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Thank you나 Hello.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으니 갓난아기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나.

그러나 그 사실이 부끄럽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든 적은 없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하다가 틀리는 건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다.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실수하는 것은 다 자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틀릴까 봐 두려워 아무 시도도 안 하면 남들도 그 사람의 실력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친해지기도 좀 뭣할 거다.

말하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말을 배우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생각해 보자. 우리네 엄마, 아빠들은 꼭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 아빠!" 하며 아기로 하여금 당신들의 말을 따라하게 만든다. 아기는 잠자코 듣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쑥 완벽한 발음으로 "엄마! 아빠!"를 외친다. 좀 지나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스스로 이런 저런 말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애들 앞에서 말조심하라는 말도 있는 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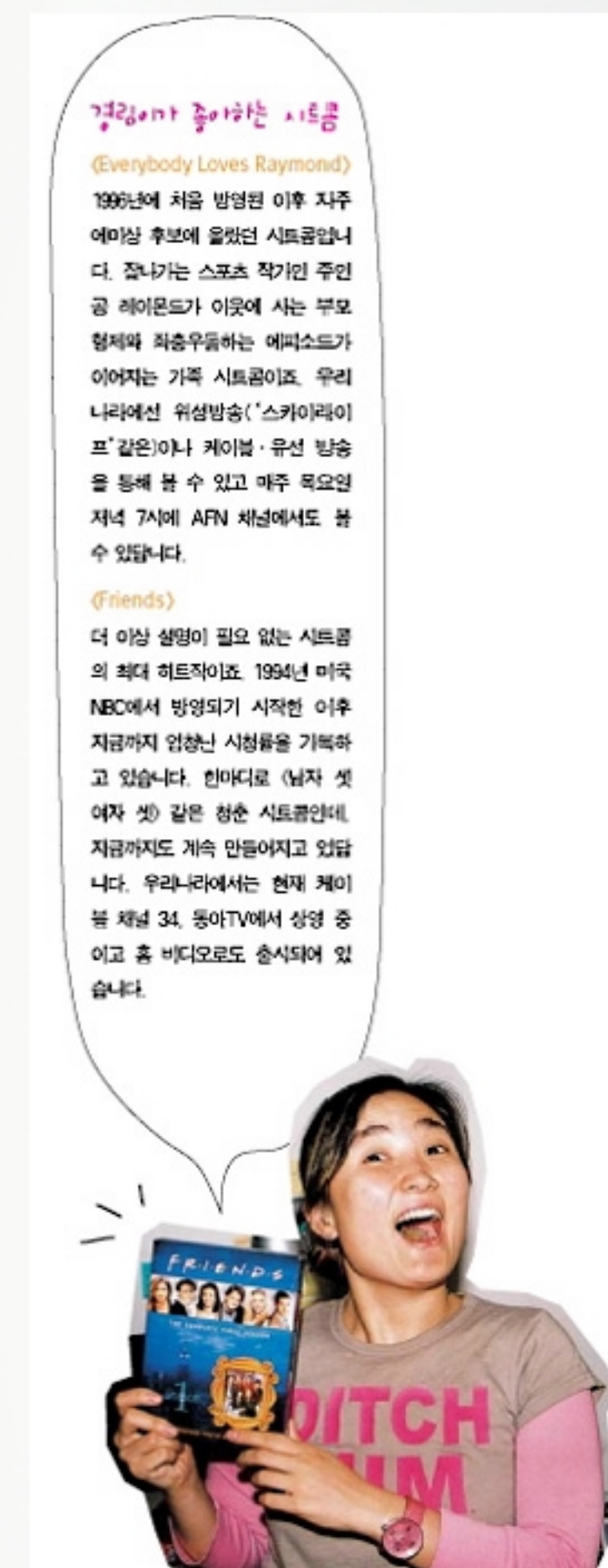
그렇다.**따라하기!!!!**이것이 가장 빠르고 무서운 방법인 것이다.사실 난 지금도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말하기에 더 자신 있다. 적극성예다 눈치와 보디랭귀지까지 겸하면, 사실 말하기만큼 노력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유는? 그냥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듣기와 말하기는 늘 짝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다. 따라서~ 104쪽의 듣기 공부법도 이 장과 함께 세트로 읽는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나의 모든 공부법은 다 이 따라하기(모방)에 기초를 둔 것이다. 나를 따라하라!

★ **텔레비전은 나의 말하기 교재**

텔레비전은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 친구였다. 물론 처음엔 사실 할 일이 없어

서 텔레비전만 졸창 봤다. 근데 이게 그다지 즐겁진 않았다. 아니, 너무 속상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 화면은 계속 흐르고 사람들은 웃는 것 같은데 (주로 시트콤을 봤으니까) 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경험이 좋아하는 시트콤

(Everybody Loves Raymond)

1996년에 처음 방영된 이후 자주 예미상 후보에 올랐던 시트콤입니다. 잭이라는 스포츠 작가인 주인공 레이몬드가 이곳에 사는 부모 형제와 화중우를하는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가족 시트콤이죠. 우리 나라에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같은)이나 케이블·유선 방송을 통해 볼 수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AFN 채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Friends)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시트콤의 최대 히트작이죠. 1994년 미국 NBC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 셋 여자 셋) 같은 청춘 시트콤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케이블 채널 34, 동아TV에서 상영 중이고 홈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들리지 않아도 그냥 틀어 놓고 뚫어지게 보기를 일주일.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 가끔, 아주 가끔, 한마디씩 귀에 꽂히기 시작했다. 인사말이라든지, 몇 개 단어들, 그리고 몇 가지 대답들... 어찌나 반갑던지! 그 이후로 들리는 단어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텔레비전은 내 선생이자 친구로 자리잡았다.

내가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문법 책을 본다든지 카세트테이프를 듣는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지만 텔레비전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식 없이 은연중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모르는 말일지라도 그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대충 말의 의미를 알아맞힐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텔레비전에서 "Who are you?"라는 말을 했다. 그럼 당연히 "당신 누구요?" 또는 "너 누구야?"라고 말하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지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살아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나는 주로 시트콤이라든지 토크쇼를 자주 보는 편인데, 보는 게 쉽지는 않다. 이유인즉 너무나 많은 구어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학교

에서 배우는 영어는 죄다 바른생활 영어들이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을 들을 기회는 참 적다. 이곳 미국은 특히 시트콤이 많은데, 나에게도 그 가운데 <Friends>와 <Everybody Loves Raymond>가 제일 재미있었다. 대사도 일상 대화가 많이 나오고...

어떤 공부든지 그럴겠지만 이 텔레비전 영어공부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금세 지겹고 보기 싫어진다. 해서 자신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처음엔 무조건 자주 보고 눈에 익혀서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친숙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턴 내 영어공부에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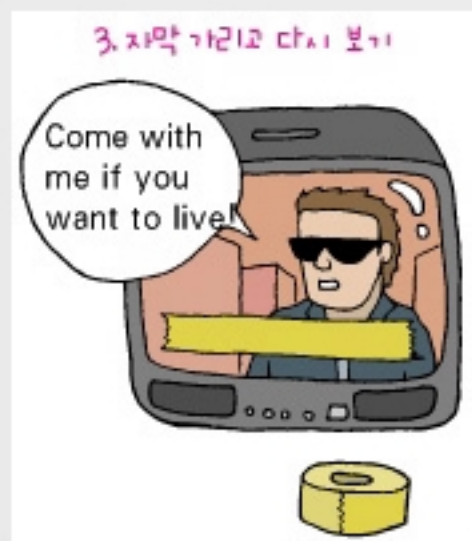
다. 물론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영어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선 너무 아쉽다. 중요한 건내가 본 프로에 나온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지금부터 내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액션영화, 만화영화, 드라마, 시트콤, 토크쇼, 버라이어티쇼, 뉴스 등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찍는다.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세를 바로잡고 정신을 집중한다. 동시에 비디오 녹화를 시작한다.

처음엔 그저 내용이라도 파악해 보겠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본다.자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막을 띄워도 좋다. 어차피 내용을 쫓아 가느라 자막을 찬찬히 볼 여유는 없다. 참고로 미국에는 텔레비전마다 자막 기능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영어 자막이 그대로 나온다. 이는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것인데 사실 나 같은 유학생들이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본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집중해서 본다. 이때는 자막을 가린다.(비디오에 자막을 지우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박스테이프를 아래 부분을 가려 버리자.) 이번에는 '아,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쓰는구나',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간혹 하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다.



세 번째 볼 때는 역시 자막을 가린 채 연필과 연습장을 들고 들리는 대로 적으며 본다.일종의 받아쓰기인 셈이다.

이렇게 세 번을 다 보고 나서는 내가 연습장에 뭘 적었는지를 주욱 살펴본다. 내가 뭘 적은 것인지 나 자신도 헛갈리는 것이 많을 테고, 문장이 말도 안 되거나 스펠링이 틀린 단어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겐 사전이 있기 때문이다.

아는 단어인데 스펠링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라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경우엔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뜻과 스펠링을 알아 두면 된다. 문장의 경우 대충 받아 적다 보면 중간에 빠먹은 단어가 있거나 어순이 엉망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장면을 다시 떠올려서 그 상황을 상기해 본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해서 스스로가 유추를 해야 한다. 단어도 넣어 보고 문장도 만들어 보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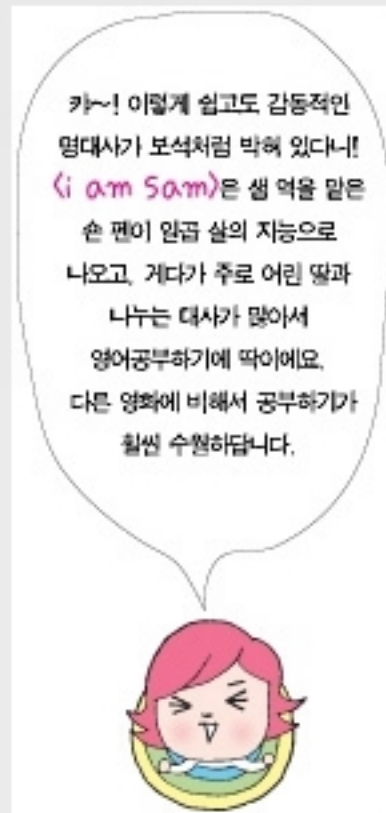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다. 이번에는 다시 자막을 보이게 해서, 내가 쓴 것과 실제 영문을 대조해 가며 체크해 본다.이 순간! 영어 말하기에 뭔가 감이 잡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쓴다는 걸 알았다면꼭 그 문장을 써먹어 봐야 한다.다음날 학교에서라든지 친구를 만났을 때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기다리자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그 문장을 써먹어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한다든지 맞장구를 치면 성공이다.

사실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는 확인을 한다든지 그 문장을 써먹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지 말고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외국에서 온 친구한테 가서 써먹어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상대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절대 아랑곳해선 안 된다. 나의 영어 실력발전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의 '쪽팔림' 정도는 일찌감치 안녕해야 한다.



텔레비전 대신 영화도 좋아요!

미국 방송으로 공부하는 게 영 번거롭다면 영화를 하나 골라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부터 연거푸 몇 번을 보고, 볼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던 <i am sam>을 추천합니다. 미국에서도 오자마자 테이프를 사서 보고 또 보고, 비디오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봤지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감동의 대사 몇 마디예요!

●That's a wonderful choice. 탁월한 선택입니다.

→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샘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늘 건네는 말. 영화 첫 장면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Lucy, are you afraid to tell the truth because you'll hurt your dad's feelings? 루시, 아빠 마음 상할까 봐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운 거니?

→ 샘의 양육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검사 루시에게 묻는 말이에요.

●All we need is love.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 루시의 대답이 명대사죠.

●Who do you look up to? Who do you want to be like as a father when parenting Lucy?

당신은 누굴 존경하죠? 루시를 키우면서 누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겁니까?

→ 터너 검사가 이번엔 샘에게 묻습니다.

●Myself. Yeah, I look up to myself as a father. 접니다. 네, 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 역시 영화사에 길이 남을 샘의 한마디.

●I have had a lot of time, see, to think about what it is that makes somebody a good parent and it's about a constancy, and it's about patience and it's about listening, and it's about pretending to listen even when you can't listen anymore, and it's about love like she said. 좋은 부모로 만드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게 뭔지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한결같은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들어 주는 것, 심지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조차 들어 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 그리고 루시가 말한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법정에서 샘이 부모의 조건에 대해서 한 말. 이 말 할 때 정말 슬퍼요. 흑흑흑.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꾸준히 보고 상황을 익히면 그것만큼 영어 말하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없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따를 수는 없지만, 책으로만 말하기를 익히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영화 시청은 말하기에 곧바로 큰 영향을 준다.

더욱이 영상은 시각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머릿속에 남는, 그러니까 잔상을 남기는 효과란 게 있다.해서 그 표현이 해당 상황과 쌍으로 머릿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맞았을 때 글로 배운 경우보다 훨씬 더 잘 생각난다는 장점 또한 있다. 그런 상황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더 확실히 내 것이 되고 말도 더 쉽게

나온다.

영어로 영어 말하기에 도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화가
가장 적합할까요?

영어공부에 적합한 영화는 현대사 배경이고, 대사가 많고, G(전체 이용가)나 PG(성인 지도하에 관람가) 등급이 매겨진 것들이에요. 전 세계의 대중을 겨냥한 디즈니 만화영화도 적합하지요. 아래는 우리 왕초보들에게 아주 딱인 영화들이에요.

- 드라마(drama)
(Big Daddy) 빅대디
(One Fine Day) 어느 멋진 날
- 로맨스 코미디(romance comedy)
(American Pie) 아메리칸 파이
- 공포(horror movie) (Scream) 스크림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 액션(action movie)
(Spy Kids) 스파이 키즈
(The Last Samurai) 라스트 사무라이
- 만화영화(animation)
(Aladdin)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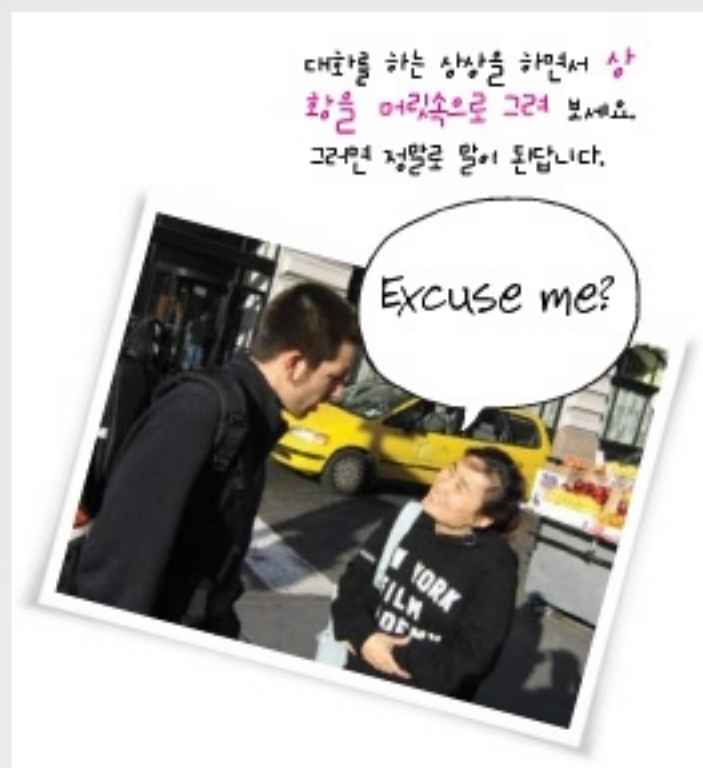
이렇게 한 프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다 보면 일종의 중독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봤던 화면이 오버랩되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차를 타나 24시간 내내 대사와 장면이 막 엄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히죽히죽, 남들이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처럼 입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다 좀 지나면 그때 배우가 했던 제스처니 표정 같은 것을 막 따라해 가며 대사를 중얼거리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영어 표현을 익히고 말하는 데 항상 걸리적거려던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사라진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그 사이 문법 도사가 되었거나 단어를 획기적으로 많이 암기한 것도 아닌데, 텔레비전의 다른 프로도 덩달아 잘 들리고, 친구들과 말할 때나 학교에서도 불편한 느낌이 가신다. 그러면 이제 말하기가 몸에 붙은 거라고 보면 된다.

☀ 말할 때 문법은 일단 잊자

글을 쓰거나 남의 글을 읽을 땐 물론 문법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말을 할 때만큼은 이 문법이란 걸 일단 잊어버리자. 문법을 떠올리면 조건반사 식으로 말문이 막히는 게 우리의 공통점이다.

어순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과거분사형을 써야 할 것을 현재분사형으로 썼다 하더라도 우선은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오는 게 중요하다. 먼저영어와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영어와 친해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어를 많이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문법과는 상관없는 짧은 영어 표현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Hi. Hello. Thank you. You're welcome...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문법을 잠시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그 표현을 생긴 그대로, 통째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줄 안에 끝나는 간단한 표현들은 수도 없이 많고, 이 표현들이 영어 말하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크다. 친구의 말을 못 알아들어 되물을 때 쓰는 Pardon? 어떤

일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할 때 쓰는 Almost.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쳐줄 때 말하는 Exactly!나 That's true!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고 싶을 때 쓰는 Excuse me?나 Hello! 등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기초적인 표현들이다.

이렇듯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외우고, 아는 표현만으로도 영어대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말이다. 오늘 당장 빈 노트를 사서 알고 있는 표현들을 주욱 적어내려 가자. 그리고 그것만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을 하면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라. 정말로 말이 된다.

★ 모양새도 살려 보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미국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곤 했다. 어차피 발음이나 문장 같은 건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하는 느낌이나 품새를 배우고 싶었던 거다.

해서 내가 깨달은 방법은 바로..., 말 중간중간에 well, ummmm, so, anyway, you know, I mean 같은 말들을 넣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말로 치자면 '뭐,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냐, 거시기, 여하튼, 그런 거지 뭐, 어찌 됐든 간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내 말은' 등등과 비슷하다.

분명한 건, 이런 표현만 써도 약 2분에서 3분 정도는 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요령이 더 생기면 "You know what I'm saying?"이나 "How can I put it!" 등 좀 더 포장된 문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일단 말끝마다 "내 말이 뭔 줄 알겠어?"나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등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것이다. 잘만 하면 이 방법으로 최소한 5분 정도는 끌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물론 이런 방법들은 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다. 그렇지만 영어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 뉘야 할 문장들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문장과 문장 사이가 잘 끊어지는데 (생각을 해가며 말을 해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써 가며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이어 주는 게 듣는 사람이 덜 괴롭기 때문이다.



그럼, 말과 말 사이를 이어 주는 표현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 요점을 꼭 짚어 줄 때

The point is that~ 하고 문장을 시작해 주세요.

What I'm trying to say is~ 도 훌륭한 표현이에요.

The point is that we should stop arguing. 요는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야.

● 말을 정정할 때

No, no! 라고 하지 말고 I mean, 이라고 한 다음 다시 말하세요.

I saw a tiger, I mean, a lion in the zoo.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를 봤어요.

● 이해가 안 갈 때

그냥 I can't understand. 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Sorry, but~으로 시작해 주면 훨씬 자연스럽죠.

Sorry, but I don't know what you mean.

● 진지하게 사과할 때

그냥 Sorry!라고만 하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에서는 I'm sincerely sorry for~ 라든지

I must apologize~ 라는 식으로 미안함을 더 강조해 주세요.

I'm sincerely sorry for the damage I've caused you. 당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도움을 요청할 때

Can I ask you a favor? 하고 우선 물어본 뒤 부탁드립니다.

● 설명해야 할 때

Let me explain, 하고 서두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겠죠?

● 상대가 오해하고 있을 때

I didn't mean it. 라고 하면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말도 그렇지 않은가? 그냥 "몰라요" 하고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글쎄, 뭐라고 해야 하나?" "제 말씀하시겠죠?"라고 말하는 게 훨씬 예뻐 보인다.

'영어도 못하면서 뭘 그런 말을 따라해? 남세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영어도 국어랑 똑같아서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건 절대로 창피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배우느라 따라하는 건데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네 발음 또한 정말 중요하다

예전에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한 외국인 오빠는 우리말의 '며느리'와 '마누라' 그리고 '마늘'의 발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그 오빠는 숫자 '삼'과 '셋', 그리고 '숨' 역시 구분을 잘 못했다. 한번은 "이 청바지 싸가지야"라고 하기에 한참을 무슨 애긴가 했더니, "싸구려야"라는 말을 하려던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혀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 His new shoes were blue.
- Dawn saw the ball come down.
- I saw the white of her eyes.
-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 The long box was filled with socks.
- See how she now shakes the towel.



아마 미국 친구들에겐 내가 딱 그 오빠 같을 거다. 어학원에 다닐 때 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일본 친구보다는 내 발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우월감에 젖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원어민 선생님들은 나나 일본 학생이나 똑같이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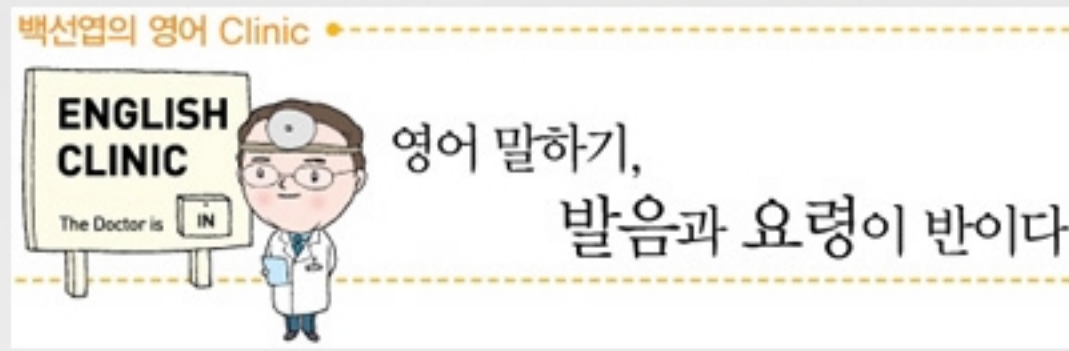
해서 이곳에 와서 정말이지 처음으로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해보았다. 사실 그동안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배우들이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는 걸 볼 때면 '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가 직접 해보니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단점이 있다면 침을 좀 질질 흘린다는 점인데, 그거야 뭐 혼자 있을 때만 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고... 문제는 그 연필을 남에게 빌려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잘 발음하기 위해선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빨리 발음하려고 하지 말고 자음과 모음을 잘 구별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입에 익숙해

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단어의 강세도 모음의 발음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악센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건 나만의 방법인데, 머리 묶는 고무줄을 양손에 끼고서, 영어를 말할 때 가장 힘을 줘야 할 부분에 고무줄을 늘어 준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강세를 살릴 수 있다.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말을 할 때 자신감이 붙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말 역시 훨씬 더 잘 들리는 기분이다.



어드바이스 영어 말하기의 Do's & Don'ts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문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화의 기본 매너를 아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요령은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한, 내 10년간의 미국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대화 원칙 1.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라 Try to ask questions!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질문 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가라.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태도다.

대화 원칙 2. 공통점을 찾아라 Try to find something in common!

영어로 대화를 할 때는 싫더라도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 위주로 대화를 풀어 가야 분위기 살리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다. 상대방은 여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종교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화 원칙 3. 대화를 눈치껏 전환하라 Switch subjects quickly!

한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이야깃거리가 거의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대화를 다른 방향, 즉 다른 주제로 돌려서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사람들 수다를 들어 보면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녀 얘기고 다른 하나는 애완동물 얘기다. 대화가 끊어질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아이들 얘거나 애완동물 얘기를 꺼내 보라. 혹은 할리우드 영화 얘기 같은 것도 안전한 화제다. 한편 영어권 사람들이 기피하는 주제는 정치, 종교, 군대 얘기다.

대화 원칙 4. 대화 속의 주제를 빨리 파악하라 Try to figure out what they are talking about!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눈치코치귀치 등 오감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제를 파악해야 동문서답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측을 하거나 선불리 알아들은 척하지 말고 다시 물어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화 원칙 5. 쉬운 단어를 써라 Always use simple words!

대화 중에 괜히 유식해 보이려고 《Vocabulary 22000》 같은 책에 나오는 단어만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다가는 외국인들, 감동하기는커녕 신기해할 것이다. '영어를 저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저런 어려운 단어는 알까?' 하고 말이다.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단어만 사용해도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외국인과 대화할 할때
그들의 억양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 보세요. 그러곤
속으로 그대로 따라해 봅니
다. 그들만의 억양을 운음
으로 터득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지요. 그렇다고 겉
으로 소리 나게 따라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대화 원칙 6. 시선을 맞춰라 Make eye-contact!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도중 다른 곳 쳐다보는 것 병이다 병.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때 대화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곳을 쳐다보면 실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쳐다보는 것이다.

대화 원칙 7. Yes나 No로 말을 끊지 말라

Don't say 'Yes' or 'No' at the beginning of an answer!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Yes나 No로 대답을 끊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 가야 한다. 이게 바로 대화의 테크닉이다. 가령 길을 묻는다면, "Let me show you..." 같은 문장을 날려라.

대화 원칙 8. 몸짓, 표정을 동원하라 Use nonverbal communication!

말로 안 되면 손짓, 발짓, 얼굴 표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라. 말은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얼굴 표정에 언어가 살아 숨쉰다. 외국인들 대화할 때 그들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관찰해 보라. 볼 만하다. 배우자.



대화 원칙 9. 계속 입을 움직여라 Try to keep talking!

말이 막힐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Let me think." 같은 말을 던진다. 말이 막혔을 때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Let me think..."라는 말을 한 뒤 표정으로 생각하는 시늉이라도 하라. 아무 말이나 표정도 없이 속으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무슨 꿑꿑이속이 있는 거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말이다.

공부합시다

절대로 틀려선 안 되는 발음 연습

많은 사람들이 발음과 영어 실력은 관계가 없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들 가운데에는 틀리면 의사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것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는 축약, 강세, 억양과 같은 리듬이 의미 전달에 무척 중요하다. 여기서는 아주 필수적인 기초 발음인 알파벳 발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틀리기 쉬운 몇 가지 대표 발음을 짚고 넘어가겠다.

발음을 틀리게 한다는 말은 발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내가 박경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알파벳 발음은 정말 엉망이었다. 물론,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거의 100퍼센트 정확하게 발음한다.



연습 준비운동

1. 먼저 호흡을 기다리고 편하게 앉은 후에 입술을 손으로 문질러 근육을 풀어 주는 것을 1분 동안 합니다.
2. 배에 힘을 주고 도, 레, 미, 피, 솔, 라, 시, 도를 높이에 맞추어 크게 노래해 봅니다.
3. '피'음을 기본 높이로 잡고 A부터 발음을 시작해 봅니다.

알파벳은 영어 발음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조차 알파벳 발음을 시켜 보면 거의 99퍼센트는 하나쯤 틀리게 발음한다. 영어를 좀 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 주의 깊게 듣고 연습해 보라. 아마 영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Track1 CD듣기

(A) 무난하게 발음할 수 있다. '에이'

(B) 발음을 '비'(X)가 아니라 [뵤](O) 수준으로 해주어야 한다. 영어의 [b] 발음은 우리말의 ㅂ보다 입술이 더 강하게 붙었다 떼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C) 역시 '시'(X)가 아니라 [씨](O)로 해야 한다.

(D) 우리말의 ㄷ보다 뱃속 깊이 울리면서 나오는 느낌이다.

(E) 별 어려움 없이 발음할 수 있다. 다만 입을 옆으로 더 벌리고 힘을 줘야 한다.

(F) 역시 한국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발음 중 하나다. 입을 크게 벌리고 윗니로 아랫입술 안쪽을 가볍게 붙였다 떼면서 터뜨려서 내는 소리다.

(G) 흔히 '지'(X)라고 발음하기 쉬운데 [쥐](O)라고 해야 올바른 발음이다.

(H) 역시 한국사람에겐 쥐악인 발음인데 '치'(X)가 아니라 [취](O)가 맞다.

(I) 무난히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발음.

(J) '제이'(X)라고 하기 쉬운데 [웨이](O)로 발음하고 그렇게 들어야 한다.

(K) 별 무리 없이 발음하고 들을 수 있는 알파벳이다.

(L) 한국사람 가운데 이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다. [애을](O)에 가깝게, 반드시 혀끝을 윗니 바로 뒤에 붙였다 떼야 한다.

(M) 쉽게 발음하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완벽하게 닫아 주어야 제대로 소리가 난다. 한국사람 대부분이 [m] 발음을 불명확하게 한다.

(N) [m]과는 달리 [n]은 발음할 때 위아래 입술이 붙으면 절대 안 된다.

(O) '오'(X)라고 발음하는데 [오우](O)라고 발음해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

(P) 반드시 양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터뜨려야 한다.

(Q) 아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알파벳이다.

(R) [l] 발음과 구별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혀가 구강의 어느 부분에도 닿으면 안 된다.

(S) x와 헛갈리기 쉬운 발음으로 '에스'(X)가 아니라 [에쓰](O)라고 발음한다.

(T) 쉽게 발음할 수 있는만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알파벳이다.

(U) '했시유' 할 때처럼 힘없는 '유'가 아니라 [이우] 하는 느낌으로 발음해 주어야 한다.

(V) [b] 발음과는 달리 윗니로 아랫입술 속 부분을 약간 터치하면서 성대를 울려 내는 발음이다.

(W) 이 발음은 절대 '더블류'(X)가 아니고 'double+you'를 생각해서 [더브을유]라고 발음해야 한다.

(X) '엑스' 와 비슷한데 이때도 역시 [엑쓰]라고 발음한다.

(Y) 역시 [와이]라고 발음해 주면 제대로 말한 거다.

(Z) 혀가 윗니 뒤에 닿을 듯 말 듯한 상태로 성대를 울려 내는 발음이다. 벌이 날아갈 때 나는 소리로 [즈] 소리를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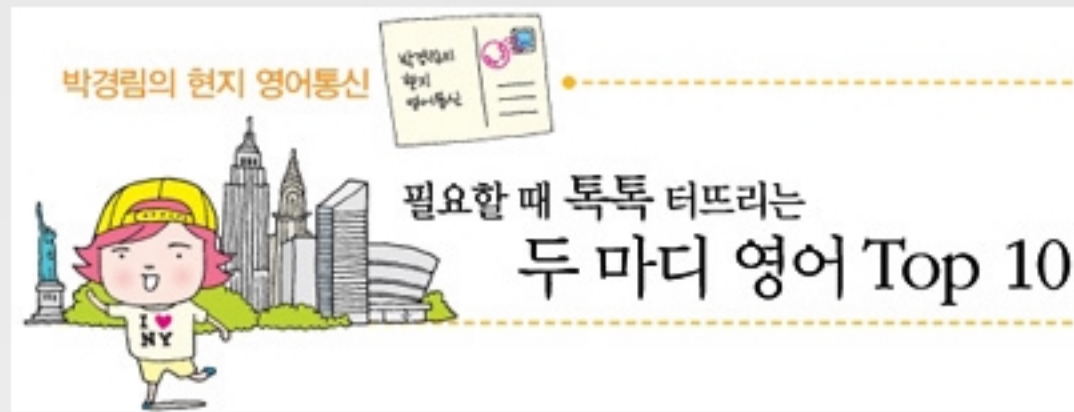
아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틀리는 발음 쌍들이다. '나는 자신있어' 하지 말고, 한번 주의 깊게 발음을 연습하기 바란다.

(P-F) 문장 속에서 섞여서 나오면 아주 많이 헛갈리는 게 바로 [p] 발음과 [f] 발음이다. 문장 속에서 연습하라.
He picked a pen. 그는 펜을 하나 집어 들었다.
I flew to France. 나는 프랑스까지 비행기로 날아갔다.

(M-N)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발음한다고 하는데, 원어민은 잘 못 알아들어서 항상 더블체크하는 발음이 바로 [m]과 [n] 발음이다. [m] 발음은 확실히 입술을 붙였다 떼라!
Mary will get married soon. 메리는 곧 결혼할 예정이다.
Nate stayed in New York for nine nights. 네이트는 뉴욕에 9일 동안 머물렀다.

(B-V) 한국인에게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 같은 발음이 [b]와 [v] 발음이다. [b] 발음은 피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느낌으로, 성대를 떨며 크게 발성해야 한다. [v] 발음을 할 때는 위아래 입술이 닿으면 절대 안 된다.
Ben will bring his boat. 벤은 그의 보트를 가져올 것이다.
The village on the valley has a very nice view.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경관이 아주 좋다

(L-R) [l] 발음은 반드시 혀끝이 윗니 뒤에 닿아야 하며, [r]은 혀가 입 안 어디에도 닿아선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
He lived very long life.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잘살았다.
I met my Russian friend at a restaurant. 나는 러시아인 친구를 식당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원어민들끼리 하루에 스무 번도 넘게 쓰는 두 마디 영어를 뽑아보려 한다. 이 두 마디 영어도 결코 만만찮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말처럼, 적절한 상황,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보디랭귀지가 따라 줘야 비로소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승화되는 표현들이다.

자, 그럼 아 유 웨리?



1 Why not? (그러지 뭐.)

'그러지 뭐' 하는 것과 비슷한 뜻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간혹 내가 한국의 연예인이라는 걸 알아보고 (사실 내가 소문 내고 다님)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라고 묻는데 나는 그때 "Sure!" 또는 "Why not?"이라고 말한다. 단, 이때 억양은 Why not? 하고 not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Why not? 하고 why에 강세를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말이 될 수도 있다.

Dialogue

- 1
A Can I go out with you? 같이 가도 돼?
B Why not? ↗ 그럼.
- 2
A I can't work on Friday. 전 금요일에는 일할 수가 없어요.
Why not? ↘ 왜죠?

2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은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래서 뭐?' 또는 '그래서 뭐 어쩌라구?'라는 의도로 하는 말인데 상대가 한참 잘난 척을

한다든지 나와는 그리 상관없는 얘기, 또는 내가 어찌 할 방법이 없을 때 관심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Dialogue

- A I can sing better than you can. 나는 너보다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어.
- B So what? 그래서?
- A You can't sing at all. 너는 노래를 못한다는 말이지.
- B I don't care. I play piano better than you do. 뭘 상관이야. 난 너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데.

3 No way! (그럴리가!)

'싫어', '안 돼', '천만에', '이러는 거 아니야' 등등 '안 된다'는 계열의 의미군을 형성하고 있는 이 말, 굉장히 많이 쓰인다. 때론 '그러지 마'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컨대 누군가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할 때 말이다. 단어들을 풀어 보면 '길이 없다', '길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실제 쓰이는 것도 그 뜻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Dialogue



GREG : We've got two concert tickets! 콘서트 티켓 두 장 있다!
KATY : No way! 그럴리가!
GREG : Yes. I won them in a contest. 정말이야. 콘테스트에서 땀어.
KATY : That's great! 이야!

4 That's it. (바로 그거야!)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거나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할 때면 직원이 으레 "Anything else?" 하고 묻게 마련이다. '뭐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란 말인데, 더 필요한 게 없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That's it."이라고 말하면 된다. 또는 '그래, 바로 그거야!'라고 할 때도 "That's it!"이라고 한다.

Dialogue

- A Can you show me how to do it?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줄 수 있어요?
 B Okay. Try doing it this way. 오케이. 이렇게 해봐.
 A Am I doing it right?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거죠?
 B That's it. 그래, 그렇게 하면 돼.

5 Sounds good! (좋은 생각인데!)

이 말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많이 쓰인다. 누군가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한다든지 즐거웠던 얘기를 할 때, 방학 계획이나 이성친구와의 데이트 얘기를 할 때, 또는 점심이나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음식 어때?"라고 제안할 때 등등... 그 어떤 상황이든지 본인이 좋으면 두말할 것 없이 "Sounds good!"이라고 하면 된다. 싸운스 굿?

Dialogue



GREG : Any plans tonight? 오늘 저녁에 계획 있어?
 KATY : Nothing special. How about you? 특별한 건 없는데, 넌?
 GREG : I'm in a mood for a beer. Want to join me? 오늘 맥주가 땡기는데, 같이 한잔 할까?
 KATY : Sounds good! 좋아!

6 What's up? (잘 지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뭐해?', '어떻게 지내?' 등등의 뜻으로 쓰인다. 특히 이 말은 미국 친구들뿐 아니라 보스턴 레드 삭스에 있는 병현이가 전화를 받으면 늘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루는 내가, "넌 왜 만날 와썹만 하나?"라고 물었더니, 병현이가 하는 말이... "그럼 당연히 전화가 왔으니까 '왔어?' 하고 물어야지, 그럼 '갔어?'라고 하겠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어 왔어?'하는 말로 '와썹'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다. 병현이는 야구선수 대신 개그맨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

Dialogue

- A Hey, what's up? 어이, 안녕?
 B Nothing much. Did you eat yet? 뭐 별일 없어. 밥 먹었어?
 A Not yet. 아니, 아직.
 B Let's go grab a bite. 배 채우러 가자.

7 Not really. (그건 아니고.)

'사실은 아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No, it isn't."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Not really."라는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쓰는 말이다. 우리 말의 '사실은 아냐'라는 의미에 가까우려면 "Not actually."가 더 적당한 것 같다.

Dialogue

- A Is that your car? 저거 네 차니?
 B Not really. It's my mom's car. 아니, 우리 엄마 차야.
 A Does she let you drive it often? 엄마가 너한테 자주 빌려 주시니?
 B Not really. Just on the weekends. 아니, 주말에만.

8 Kind of. (좀 그렇지.)

"Not really."가 아니라고 대답할 때 쓰는 말이라면 "Kind of."는 그렇다고 대답할 때 자주 쓴다. "Yes, it is." 역시 "No, it isn't."처럼 좀 군대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으응, 그래' 하는 의미로 "Kind of."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Dialogue

- A Is he tall? 그 사람 키 커?
 B Kind of. He's taller than I am. 그렇다고 해야겠지. 나보다 크니까.
 A You're not very tall. 넌 작잖아.
 B Everyone's taller than me. 다들 나보다 크지 뭐.

9 Never mind! (별일 아냐.)

상대방이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누군가 그를 욕한다거나 해서) 쓸데없이 신경 쓰고 있을 때 '걱정 마!', '신경 쓰지 마!'라는 뜻으로 "Never mind!"라고 말한다. 또는 '됐어', '별일 아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Dialogue

- A Would you help me wash the dishes? 설거지 하는 것 좀 도와줄래?
 B Well, I'm doing the laundry now, and then I have to study. 글썄, 난 지금 빨래하거든

.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 하는데.

Ⓐ Never mind, then! 그럼 됐어, 놔둬!

Ⓑ Sorry. Next time, Katy! 미안. 다음에 할게, 케이티!

10 Come on! (이것 보라구!)

come을 단지 '오다'의 의미로만 안다면, 갈수록 골치가 아파지는 게 바로 이 come이란 녀석의 본색이다. "Come on!" 할 때의 come이 뭘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을 써야 할 판이다. "Come on!"은 단순히 '이리 오너라'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나의 바람대로 해주길 바라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쓰인다. 상황에 따라 해석되는 우리말 뜻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Dialogue



GREG : It's already 7:30. I gotta go now. 벌써 7시 30분이네. 나, 가 봐야겠다.

KATY : Oh, **come on!** Let's have some fun. It's Friday evening. 야! 왜 그래! 좀 놀자. 금요일 저녁이잖아.

GREG : No way! I have tons of homework to do. I gotta get a move on. 안돼! 숙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단 말야. 나 지금 당장 가야 해.

KATY : Okey, then, I'll let you go. 그럼 됐어. 잘 가.



타인에게 말 걸기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말을 잘하니까 분명히 영어도 빨리 늘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아니, 영어랑 우리말이랑 같나? 이러다 영어 못하면 무슨 망신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에서 경험한 바를 되짚어 보건데,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과 사람들과 사귀고 친해지는 것과는 그다지 큰 상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조금은 맞는 것 같다.



아무리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해도 대화를 끌어나가는 방법을 모른다면 적절한 소재를 요령껏 찾아내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대화가 매끄럽지 못하든가 다소 지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는 건 영어 실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대화를 잘 이끌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 테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영어를 많이 듣고 말함으로써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라든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더 많이 알아 가게 되는 이치다.

감사하게도 많은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본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겁이 없는 편이라 대화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나의 영어는 형편없었는데도 말이다. 의외로 대화의 시작은 참 간단하다. 자연스럽게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날의 사건, 아니면 상대방의 의상이나 헤어에 관련된 얘기로 시작하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만나자마자 종교 얘기를 하겠나, 아님 이라크 파병 문제를 얘기하겠나, 집안 문제를 얘기하겠나. 그럼 아마 상대방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처음엔 가볍고 **심플한 게** 좋다. 



그렇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 대화가 아기자기해진다. 예컨대 상대방의 의상이나 헤어에 관련된 얘기로 시작했다면 상대는 자신의 의상이나 머리 모양에 대해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나도 그런 옷을 입어 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머리 모양을 시도했었는데 망쳤다'든지 하고 대답하며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하므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질문을 많이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얘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질문을 하고, 상대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동시에 나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신이 나는지 상대가 어떤 얘기를 꺼리는지 어떤 걸 대답할 때 말이 짧은지 등등을 눈여겨본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대화 상대는 친구들만이 아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날씨 얘거나 그날의 빅 경기 얘기 등을 하면서 말을 걸어 본다. 사실 나는 어쩌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점원이라든지 직원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처음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특히 기억나는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의 구찌 매장에서 만난 조셉이다.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이 굳~이 사려 하는 구찌 매장에 들어갔다. 그 매장의 점원은 아주 착하고 친절할 사람이었다. 그에게 제품에 대해 이것저것 물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This shop's display looks great. It'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New York." (매장 디스플레이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뉴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Really? Are you from New York?" (그래요? 근데 뉴욕에서 왔어요?)

"Yes. I'm on break from school. This is my first time in Vegas, but I've seen it on TV a lot. Vegas was even on a TV show in Korea once." (예. 방학이어서 여행 왔는데요, 라스베이거스는 난생처음이에요.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자주 봤어요. 한국 텔레비전에도 종종 나왔지요.)





박경림이 추천하는 뉴욕의 멋진 곳

예술, 공연, 패션, 금융... 이 모든 분야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뉴욕! 다양한 색깔과 개성이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 넘치며 사람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곳. 나는 학교와 가까운 유니언스퀘어 근처와 예술의 거리인 소호를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내가 자주 들르는 곳들을 모아 봤다.

01 Shakespeare Book Sellers

셰익스피어 수업이 따로 있는 나는 셰익스피어 연극 대본 및 각종 참고서적을 구할 수 있는 이 고서점을 자주 찾는다.

→ 716 Broadway/Washington Place



04 Kim's Video & Music

가장 오래 조금 보태서 세상에 나온 비디오란 비디오는 다 있는 가게. 자판스런 게도 한국인이 운영한다.

→ 144 Bleecker St.



06 Details 소호점

주방용품, 인테리어 용품 등 없는 게 없는 예쁜 가게로 미국사람들이 아주 즐겨 찾는 곳. 자점이 많다.

→ 57 Prince St. between Lafayette and Prince



02 Kate's Paperie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들를 정도로 자주 가는 곳. 문구류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561 Broadway between Prince and Spring



05 The Apartment

여성들이라면 꼭 갖고 싶어 할 만큼 앙증맞은 액세서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아주 작은 가게다.

→ 101 Crosby St.



03 Angelika Film Center

독립영화와 제3세계 영화를 위주로 상영하는 곳.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오아시스> 같은 한국 영화도 곧잘 상영된다.

→ 18 West Houston & Mercer 사이



자유의 여신상

브루클린 다리

07 Olive & Bette's

소호의 패션을 선도하는 가게로, 나에게 딱인(?) 예쁘고 아기자기한 티셔츠들이 많다. 기네스 펠트로, 캐머런 디아즈 같은 연예인들이 단골 손님이다.

→ 158 Spring St.



08 Strand Book store

1927년에 열었다고 하는 고색창연한 헌책방. 고풍스럽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위안을 준다. 요즘은 신간도 팔고 있다.

→ 828 Broadway between 12th and 13th St.



09 Movie Star News

세계 영화와 영화배우의 모든 것, 팬클럽, 자료 등을 갖추어 놓은 곳. 포스터도 살 수가 있다.

→ 134 W 18th St.



10 Whole Food Market

유기농식품 전문점. 신물음으로 살 만한 것들도 아주 많다. 나도 여기서 장을 본 뒤로 얼굴이 장난 아니게 훌쩍해졌다.

→ 24th St. 7 Ave.



내가 이곳에서 살아낸 아주 간단한 리스닝 연습은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전화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기로 전해지는 목소리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집중을 요하는 데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디랭귀지에 의존해

내용을 추측할 여지가 발생되어 실질적인 듣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 상대의 말을 듣는 동시에 나도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영어는
온몸으로
듣어야 해!!!



List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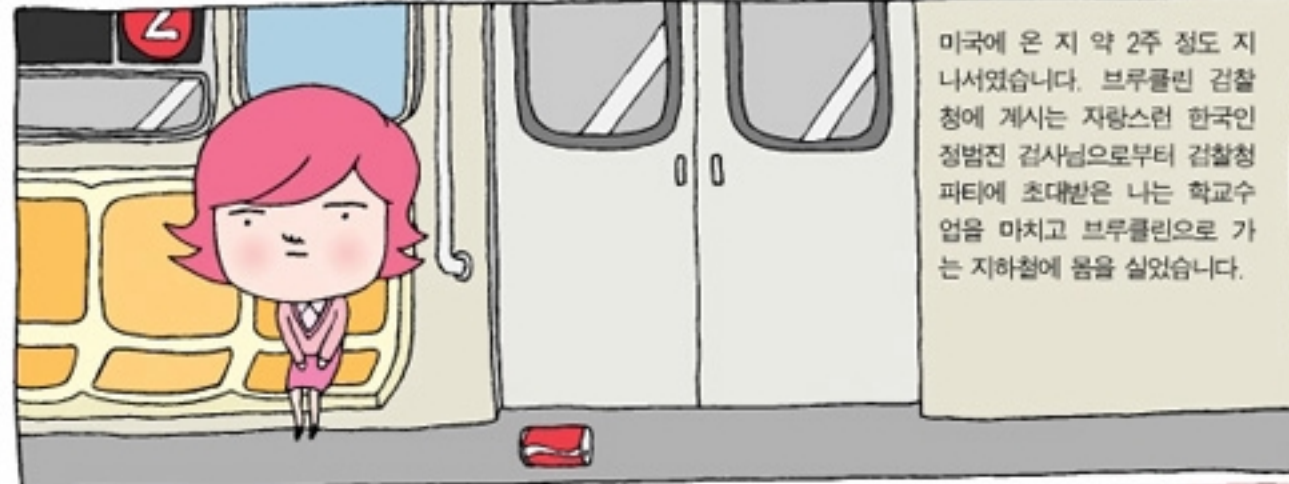
온몸으로 영어 듣기

CHAPTER

3

● **영어 과감 100**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 **효과 뽀! 나의 영어 학습법 104** 내 영어 듣기 선생님은? - 매일 들어라
_ 라디오는 듣기 선생님 _ 전화통화는 최대의 찬스다 _ 쉬운 오디오북을 듣자 ● **백선엽의 영어 Clinic 114** 리스닝, 리들을 타야
한다 - 리스닝 잘하려면 발음부터 고쳐라 _ 영어 리들의 5가지 기본 원칙 ● **박경림의 현지 영어통신 122**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발음 10가지 ● **Katy's Diary 126** I Love My Life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미국에 온 지 약 2주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브루클린 경찰청에 계시는 자랑스런 한국인 정범진 검사님으로부터 경찰청 파티에 초대받은 나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브루클린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두 미국사람들만 있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몰라.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그냥 돌아감까?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하면 되잖아. 아, 아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통기를 내서 가보자. 그치만...



고음...



아, 경림 씨! 이쪽이에요!

검사님!



반가워요. 이곳은 저랑 같이 일하는 XXX 씨예요.

Good evening!

I'm so glad to meet you. I heard a lot about u from Mr. Jung. How do you like to live in the states?

H... Hi

뭐야? 저 엄청 긴 데냐는?

안 좋은 예감이다. 작전 1호 개시!

어머머. 전화가 왔나 봐요. 후후후

Excuse me.

검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화 받고 바로 따라 들어갈게요.

I'll see you at the party

그럼요, 경림 씨

외국인과의 대화를 피하는 작전 1호: 전화가 걸려 온 듯 리스폰스 전화로 통화를 한다. 외국인이 끊어내 나갈 때까지 장시간 통화를 끊지 않는다. 벨소리는 반드시 지독으로 하릴 줄 것. (통화 도중 전화가 오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통화는 반드시 모국어로 하여 외국인으로 하여금 몹시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애들은 잘래 떠러하지 말것!

그러하여 파티는 시작되고...

아니나 다들까
외국인들 투성이네
이런. 정 검사님은
또 왜 저리 먼 곳에
계신 거야?

좋았어.
심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직전 2호로
들어가지.

외국인과의 대화를 피하는 직전 2호:
3월쯤 굶은 사람처럼 생기 않고
먹는다. 그래도 말을 걸어 3명 일에
두 것을 삼가지 말고 최대한
못 알아들게 통역통역한다.

입에서 삼삼 녹는 음식보다
오래 삼을 수 있는
질긴 음식을 고를 것.

Excuse me?

나... 나잖아.
뭐가...!!!
하는 수 없지
스마일 작전으로
나기.

Excuse me?

나 아니겠지?

Me?

Yes.

Where did you bring it?
(그거 어디서 가져왔나요?)

허걱!
모르는
문장이네

가... 가만, 차츰 많은 사랑이고 또 내가 독양언이니까
어디서 왔는지 궁금할 거야. 그래 분명 where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 그럴 때는 아니잖아.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지?
근데 가만, 내가 어디서 왔다고 말하지?
맨해튼에서 왔다고 할까?
아니, 난 어릴 때도 유학생 티가 나니까
한국이라고 말해야겠지.
I'm from Korea 라고 말할까?
아니, 그건 너무 뻔하지 않겠나.

그럼 그냥 짧게 Korea 라고 말할까?
근데 그럼 또 북한이나 남한이나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답은 최대한 간결명료하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좋은데.
좋아, 그럼 그냥 멋지게
South Korea 라고 하자.
R 발음에 신경 써서.

South Korea!

아이구!

경림이 이눔아~!!!

Ha Ha Ha

?

뭐야?
그게
그렇게
재밌는
대답이었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 검사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 덕에 내 긴장감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의 첫 파티는
그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내 생각엔 영어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리스닝인 것 같다. 다들 공감하겠지만, 말은 더듬거릴지언정 내가 하는 거고, 읽는 것도 사전 뒤적여 가며 하면 되고, 쓰는 것도 자신의 수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듣는 건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말끝마다 "Pardon?" "Excuse me?"라고 되묻는 것도 정도껏이고, 텔레비전처럼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으면 그걸로 오버인 상황도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듣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중간이나 처음에 들었던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 남아서 맴돌기 때문에 다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전체를 다 날려 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럴 때면 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듣기를 하는 동안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 나는 학교에서 듣기평가만 하면 이상하게 별 쓸데없는 단어 한두 개만 귀에 딱 꽂히고 나머지는 다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들었던 그 단어가 문제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만 귀에 들려서 사람만 헛갈리게 만들어 놓고 결국 문제도 틀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또 시간이나 숫자가 나오는 대화들은 왜 케들 교란 작전을 펴는지, 오히려 쉽게 답을 찍은 문제가 더 잘 틀린다. 특히 처음에 들었던 숫자가 가장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걸 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답을 맞힌 적이 없다. (어~~~ 분위기가 내가 꼭 학교 다닐 때 바보였던 것처럼 흐르는 것 같은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다 듣지 않고 부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 꼭 나중에 작은 코 다친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1년 동안 터득하고 깨달은, 확실한 영어 리스닝 공부법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 매일 들어라

사실 영어 듣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반복해서 듣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 오자마자 **텔레비전**을 거의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살았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뚫어져라,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를 집중한다는 건 참으로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감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트콤은 물론이고, CNN 헤드라인 뉴스까지 가리지 않고 들었다. (요즘 한국에서는 '헤딩라인 뉴스'가 뜬다고 하던데...) 특히 한국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집중이 더 잘 되고 아는 단어도 나오고 이해도 더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영어를 들을 때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알아듣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키워드라도 알아듣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 또 들었다.



영어 듣기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이 열쇠가 되는 말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쉽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앞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내용을 들을 건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제 뭐 했어?"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어제 한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이다. 이때 다른 것들을 설령 놓친다고 해도 어제 한 일에 대해서만 정확히 듣고 대답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이치다.

이는 텔레비전을 볼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듣는다는 모든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말을 하다가 상대가 "너 시경이 소식 들었어?"라는 말을 했다면 분명 나는 다음에 상대가 성시경에게 일어난 사건을 나에게 말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여튼 나는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꾸준히 반복해서 영어 방송을 들었다.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지금은 텔레비전을 보는 게 처음처럼 힘들지 않다. 지금도 물론

내용을 다 알아듣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영어 방송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긴장이 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며 나는 엄청 감격해한다.

지금도 나는 집에만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산다. 옷을 입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텔레비전을 켜 둔다. 집에서는 텔레비전, 집 밖은 완전히 영어의 바다. 다시 말해 24시간 영어가 들리는 환경을 조성한 셈인데, 그렇게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어가 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다.

☀️ 라디오는 듣기 선생님



지금까지도 매일 학교를 걸어가는 20분 동안 난 라디오를 듣는다.

처음 들을 땐 현지 수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치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라디오를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앞서 2장 <텔레비전은 나의 말하기 교재>에서 텔레비전으로 말하기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텔레비전이 회화, 즉 말하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 라디오 청취는 듣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라디오는 귀로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사실 내 생각엔 텔레비전보다 **라디오**가 더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시각적인 정보가 같이 나오므로 잔상 효과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집중하지 않으면 흐름을 놓치기 쉽고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 또한 휴대가 간편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라디오는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또한 화면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듣기만 할 수 있어 어떤 얘기인지를 상상하면서 귀를 쫓긋 세워야 한다. 이때 단어들을 집중해서 많이 듣게 된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라디오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했다. 만날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 전부였고 가끔 길을 걸으며 음악을 들을 때도 CD 플레이어

로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운동 기계에 이어폰을 꽂고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해서 보며 운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꼭 비행기에서 좌석에 이어폰을 꽂고 방송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도 한번 시도해 봤다. 그랬는데 신

기하게도 평소에 집에서 혼자 방송을 보는 것보다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았다. 왠지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앞으로 라디오를 매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대단한 생각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 학교 가는 길에 동행할 친구 하나를 사귄 셈 치기로 하며... 집에서 나오자마자 전자상가에 가서 조그만 휴대용 라디오를 샀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학교로 걸어가는 20분 동안 난 라디오를 들었다. 처음 들을 땐 왠지 수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치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라디오를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좋은 건 라디오 진행자들은 발음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듣기 쉽고 내 발음도 덩달아 교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 DJ의 발음과 평소 내 발음의 차이를 깨우칠 수 있다. 게다가 그날 날씨도 알 수 있고, 스포츠 소식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알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 일석 몇 조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몇 달 전의 일이 생각이 난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전주가 나오는 것이다. 나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당연히 팝송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나오는 가사는 "말해 줄래~~~." 분명 우리나라 노래가 이어폰을 통해 내 귀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랬다. 그 노래는 박화요비의 'lie'였다. 얼마나 기쁘고 놀랐던지. 홀로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혼자서 외국 나와 있는 게 이런 기분인가. 갑자기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날따라 화요비는 더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렸다.ㅋㅋㅋ

나는 노래가 끝난 후 DJ의 멘트가 너무 기대되어 귀를 쫓긋 세우고 있었다. 드디어 노래가 끝나고 DJ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This song is so nice, isn't it? And the singer also is really excellent. But ummmmm. I'm sorry I don't know the singer's name. Let see... this song is 'lie'. But I'm not sure. If you know about this song or singer, call me now..." 대충 이런 얘기였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CD플레이어에 이 CD를 넣어 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와 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한국 노래와 한국 가수임이 분명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에서 영어 방송 듣기



● VOA News의 Special English

VOA는 Voice of America의 준말로, 미국이 자국의 홍보를 위해 전세계에 퍼뜨리는 방송이에요. '미국을 알린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랑 위주로 가는 내용이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요. 하지만 영어공부라는 목적에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미국의 표준 영어발음을 또박또박 쓰는데다가 기본 1500단어 안에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1500단어라도 너무나 원어민스럽고 세련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www.VOANews.com 사이트 안에 Special English를 클릭하면 영어 음성을 듣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 BBC World Service

교육의 나라,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교육 프로그램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서 만든 BBC Learning Zone이란 채널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영국식 발음으로 들을 수 있는데다, 교양 프로 제작의 1인자인 BBC가 만드는

거라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www.BBCWorldService.com에서 음성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 AFN 라디오

주한 미군들을 위해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미국 라디오 방송의 정수! AFN 라디오 FM에서는 힙합, R&B 등 미국의 최신 유행가를, AM에서는 시사 프로그램부터 날씨, 스포츠 뉴스 등 갖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지요. 지역 주파수는 www.afn.co.kr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박화요비의 노래가 나온 것도 신기했지만 그 말을 알아듣고 기뻐하며 흥분하고 있는 내 자신도 신기했다. 물론 내 노래 '착각의 늪'이 나왔다면 더 기뻐겠지만 이 한 곡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여하튼 이 라디오도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청취해야 한다. 하루 듣고 계속 안 듣다가 또 하루 듣고... 이러면 늘 똑같이 안 들린다. 반면 꾸준히 듣다 보면 진행자가 자주 쓰는 말들이 들리게 되고 하루하루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로 들리게 된다. 그 재미도 쏠쏠하고 실력이 늘어 가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참 뿌듯한 일이다.

☀ 전화통화는 최대의 찬스다

내가 이곳에 와서 나름대로 터득한 리스닝 방법은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일종의 공포감마저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전화통화만큼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도구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전화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기로 전해지는 목소리로만 대화를 하는 것이지라 그 집중도가 꽤 높을 뿐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는 동시에 나도 말을 해야 하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표정이나 제스처 등등에 의존해서 뜻을 추측하게 되지만, 전화는 보디랭귀지라는 비밀 언덕이 없으니 단지나의 귀만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곳 미국에는 특히나 텔레마케팅이 많다. 대체로 이런 전화들은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까지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린다. 왜 이 좋은 것을. 이걸 내 리스닝을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텔레마케터는 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물건 이름부터 시작해서 기능, 가격까지 오만 가지 설명을 다 한다. 이보다 더 확실한 리스닝이 어디 있나? 그뿐인가. 내가 조금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자매품에 대한 설명도 아끼지 않고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집 부엌에는 믹서와 식칼 세트가 있는데 다행히도 품질이 아주 좋다. 그동안 수십 통의 전화 가운데 가장 구미가 당긴 물건들이었다. 특히 믹서는 돌도 갈 수 있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뭐든지 잘 갈린다.ㅋㅋ

일부러 돈을 들여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화 문의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전화로 티케팅도 한번 해보고, 물건 주문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기 실력이 늘게 되어 있다. 직접 부딪쳐 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영어 리스닝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로 전화통화를 하지?

여기서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전화로 영어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내가 아는 친구의 외국 친구가 나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준다며 자진해서 하루

에 한 번씩 전화를 주었지요. 근데 그때 그게 어찌나 두렵고 싫던지, 그 친구가 전화만 걸면, "Hi, Yes... me here... but I am busy. Call me later, bye bye!" 하고는 바쁜 척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곤 했지요. 그때마다 진땀깨나 뺐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좋은 기회를 내 발로 찬 셈이더군요. 만약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전화통화를 부탁해 보세요. 만약 친구가 없다면,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전화 영어 서비스를 받으면 좋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창에 '전화 영어회화'만 치면 수십 개가 뜹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영어에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하루에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 투자하는 큰 것이 아니라고 싶어요. 그에 비해 거두는 소득은 비교가 되지 않지요. 하루 10분의 전화통화가 영어 실력을 확 키워 놓을 수 있다고, 나 박경림은 경험에서 우러난 확신을 합니다.

넷 쉬운 오디오북을 듣자

영어 리스닝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 바로 어린이용으로 나온 **오디오북** audio book들이다. 오디오북이란 문자 그대로 책을 읽은 걸 녹음한 '음성 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오디오북이란 게 별로 없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오디오북 시장이 엄청 크다. 아마도 땅덩어리가 커서 다들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던 것이 이렇게 커졌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자라든지 독서가 불편한 노인과 어린이, 문맹자 등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신간이 발매되면 거의 동시에 오디오북 버전이 같이 나온다. 오디오북은 내용을 요약한 축약판 abridged과 전체 내용을 모두 담은 완본 버전 unabridged으로 나뉜다.

오디오북 중에는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오디오북이 가장 많다. 적절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 깔리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성우나 배우들도 흥미진진하게 읽어 준다.

그런데 아이들용이라고 쉽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북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100퍼센트 원어민 속도로 글을 읽기 때문이다. 원어민을 위한 오디오북이 너무 빨라 따라갈 수가 없다면 외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개발한 오디오북을 골라 보자. 영어전문 서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Oxford University Press의 교육용 오디오북 시리즈나 Penguin출판사의 Readers 시리즈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오디오북의 또 하나의 장점은 '대본'이 있다는 거다. 바로 원본이 되는 책이다. 처음부터 영어로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왕초보들은 그게 힘들다. 이해도 가지 않는 내용을 힘겹게 리스닝을 하다 보면 좌절감에 몸서리쳐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오디오북은 책이라는 대본이 있기 때문에 듣고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책을 읽어 보든지, 아니면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다. 아무래도 글을 먼저 읽고 들으면 기본 내용이 충분히 파악된 상태기 때문에 들리는 모든 단어와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팍팍 정리가 된다. 이 부분이 초보자들 듣기 연습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자기 전에 부모님이 읽어 주시던 동화책을 듣는 기분으로 하루에 30분씩 오디오북을 들으며 잠들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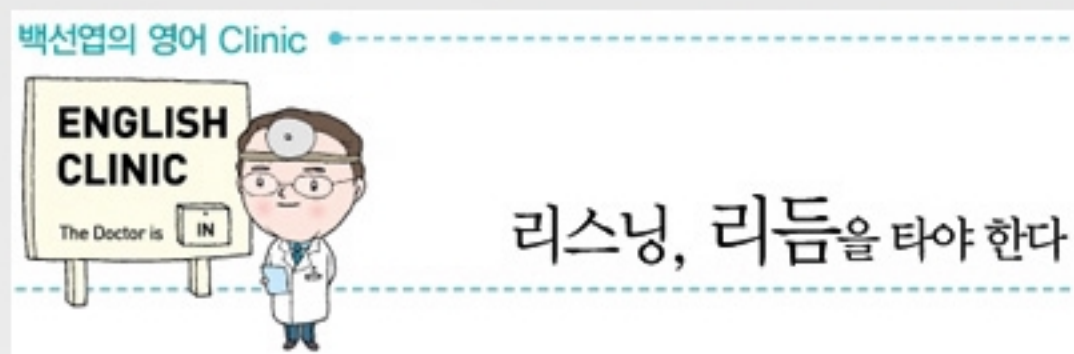
오디오북은 영어전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있어요!



●Oxford University Press 시리즈
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오디오북이어서 무척 쉽고 (100단어부터 300단어까지 활용되지요) 아주 천천히 읽어 주는 게 특징입니다. 타이틀도 누구에게나 친숙한 전래동화 위주입니다. Beginner, Elementary 등으로 수준이 나뉘어 있습니다.

●Penguin Readers 시리즈
200단어부터 3000단어대까지 수준도 무려 7단계로 나뉘어 있고, 타이틀도 고전부터 영화 원작이나 코미디, 현대 작가들의 작품 등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또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나누어 읽어 준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원어민의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읽어 주므로 중급자에게 추천합니다.

●모험적인 사람들을 위한 흥미진진한 기타 오디오북 타이틀
영국의 유명한 이야기 작가인 로알드 달(Roald Dahl)의 소설들이나 조안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또 《반지의 제왕》만큼이나 유명한 C. C.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이야기》 같은 오리지널 오디오북은, 호홉은 길지만 그만큼 재미있지요. 또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 쉽게 고친 버전이 아닌, 어린이 명작 고전의 오리지널 오디오북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상급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어드바이스 리스닝 잘 하려면 발음부터 고쳐라

알아 두면 좋은
영어전문 서점과
다양한 서점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어떤
교재가 좋을지 살펴보세요.

- 스토리 하우스
www.mystoryhouse.com
- 잉글리시 플러스
www.englishplus.co.kr
- 에스24
www.yes24.co.kr
- 김앤존슨
www.kimandjohnson.co.kr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영풍문고
www.ypbbooks.co.kr

발음이 먼저냐, 듣기가 먼저냐! 즉, 발음이 정확해야 잘 들리는지, 아니면 발음과 듣기는 별개인지는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귀가 뚫리면 말이 된다'라는 신조 아래 죽도록 받아쓰기며 리스닝 연습을 해왔다. 그냥 무조건 원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만 했지 정작 영어의 원어민 발음을 따라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리스닝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버렸다. '발음을 할 수 있는 단어가 귀에도 들리는 것'이다. 발음을 교정하면 신기하게도 리스닝이 더 잘 되는 것을 주위에서 수없이 보아 온 나는 이것을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교정하는가? 우선 오늘 당장 근처 서점(가능하면 영어전문 서점)에 가서 알파벳 발음과 숫자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용 기초 발음 교재 같은 것부터 사가지고 기본부터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하라. 발음 연습. 그게 바로 영어 듣기의 시작이다.

공부합시다 영어 리듬의 5가지 기본 원칙

듣기 원칙 1. 동사는 축약형으로 들린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영어를 말하고 들을 때 구어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축약해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축약은 '줄여 말한다'는 의미로 be 동사, do동사, have동사, 조동사 등을 과감히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다.

축약형은 단순히 발음상의 편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어민들은 일상적으로 거의 99% 축약형을 쓰기 때문에 만일 회화에서 축약형을 쓰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특히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축약형을 모르면 영어 리스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이런 축약형을 모두 문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듣는 연습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다.

●Be 동사의 축약형

I am → I'm

He is → He's

She is → She's

It is → It's

I'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We're going home now. 우리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Do 동사의 축약형

Who does → Who's

Why did → Why'd

Who's she like? 그녀는 누구 좋아해?

Why'd I do that?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Have 동사의 축약형

I have → I've

You have → You've

He has → He's

She has → She's

It's been raining all day.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

I've been to Africa. 나는 아프리카에 가 본 적이 있어.

●조동사 will의 축약형

I will → I'll
 You will → You'll
 He will → He'll
 She will → She'll
 I think you'd better stop. 너 그만 하는게 좋겠다.
 It'll be okay. 괜찮을 거야.

듣기 원칙 2. 부정은 강하게 들린다

영어 리스닝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정문이다. 부정문은 무조건 [t]발음이 생략된 채로 강하게 들린다. 가령, isn't는 [이즌], don't는 [도운], doesn't는 [더즌], haven't는 [해븐], can't는 [캔]이라고 말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can과 can't. can't에서 [t]발음은 도무지 안 들리고, 다만 [a]발음이 더 강하게 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긍정이나 부정이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Be 동사의 부정
 is not → isn't
 are not → aren't
 was not → wasn't
 were not → weren't
 He isn't my brother. 그는 우리 형이 아닙니다.
 You aren't my girlfriend any more. 너는 더 이상 내 여자친구가 아니야.

●Do 동사의 부정
 do not → don't
 does not → doesn't
 did not → didn't
 You don't have to do that. 넌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
 I didn't finish my homework. 난 숙제를 못 끝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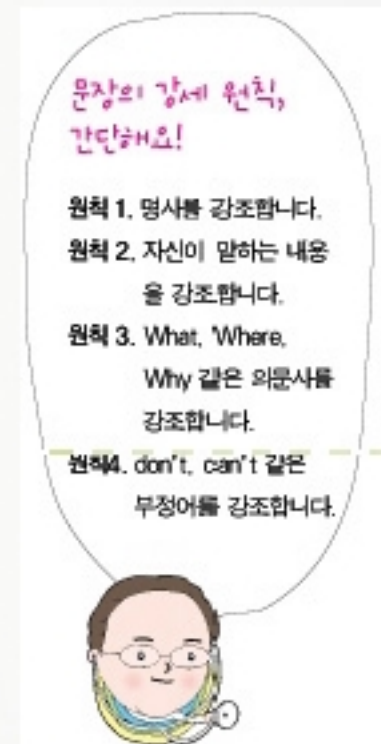
●Have 동사의 부정
 have not → haven't
 has not → hasn't
 had not → hadn't
 He hasn't done it yet. 그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했어.
 I hadn't seen her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조동사의 부정
 will not → won't
 would not → wouldn't
 should not → shouldn't

can not → can't
 could not → couldn't
 I won't go there. 난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I wouldn't mind eating. 난 먹는 것 괜찮아요.

듣기 원칙 3. 듣기의 열쇠는 강세와 악센트다

우리말을 할 때도 말에 강세가 있듯이 영어에도 단어마다, 또는 문장마다 강하게 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강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영어 리스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강세를 모두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시간을 가지고서 단어를 외울 때마다, 문장을 말할 때마다, 신경 써서 말하고 듣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만일 주위에 외국사람이 없다면 오늘 당장 AFN 방송을 틀거나 아리랑 TV를 보라. 외국인들이 말을 할 때 단어에 강세 딱딱 넣고 문장에 강세 딱딱 넣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어의 강세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개 단어의 강세를 표시해 보자. 모르겠으면 사전을 찾아서 강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대로 발음해 보자. 어느 부분을 강하게 해주어야 할지 사전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2분.
 father // mother // Christmas // interesting // reservation

●문장의 강세
 단어에도 각각 강세가 있고, 문장에도 저마다 강세가 있다. 그런데 단어 강세는 사전을 통해 외우고 훈련하면 되지만 문장의 강세는 사전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문장의 강세란 문장 속에서 강하게 발음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자.

My parents live in New York City. 우리 부모님은 뉴욕에 살고 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개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parents(부모)와 New York City(뉴욕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말할 때는 parents와 New York City를 강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이 문장을 리스닝할 때 parents와 New York City가 강하게 들린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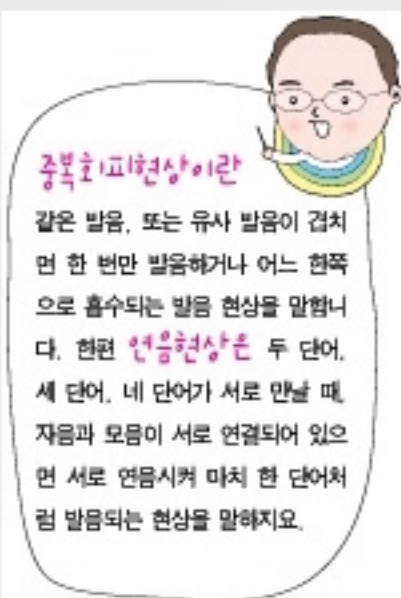
Do you mind if I smoke?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 이 문장에서 가장 강하게 말해 주어야 할 부분은 mind와 smoke 부분이다. 다시 말해 이 두 단어 mind와 smoke만 들어도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므로 이 두 단어가 이 문장에선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듣기 원칙 4. 발음은 이어진다

영어는 이탈리아어나 독일어와는 달리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언어다. 그 때문에 단어 스펠링을 외우는 게 골치 아프기도 하고. 이런 철자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신 영어는 발음상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해서 나타난 것이 갖가지 음운현상이다. take it이 '테이크잇'이 아니라 [테이킷]처럼 발음되는 연음현상, America가 '어메리카'가 아니라 [메리카]처럼 발음되는 약음현상, 두 개의 비슷한 발음을 회피하는 중복회피현상(예를 들어 since summer는 '썬스썬머'가 아니라 [썬썬머], summer 또한 '썬머'가 아니라 [썬머]로 발음된다), 그리고 강세가 있는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은 '어'와 '으'의 중간 발음으로 약하게 발음하는 슈와현상(schwa, 예를 들어 legitimate는 '레지티메잇'이 아니라 [러지러밋]처럼 발음된다) 등등...

이런 '발음 편의 현상'은 철자, 단어, 문장 모두에 적용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영어 발음의 갖가지 변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영어 고수들도 실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중복회피현상과 연음현상의 예들을 살펴보고 연습해 보자.



Track2 CD듣기

● 한국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중복회피현상과 연음현상의 예

같은 발음이 겹칠 때 하나로 소리나는 경우

upside down 업사이드다운 → 업사이다운
 enough food 이너프푸드 → 이너푸드
 police said 폴리스세드 → 폴리세
 less simple 레스썬플 → 레썬플
 bus stop 버스스탑 → 버스탑
 left turn 레프트턴 → 레프턴
 white teeth 화이트티뜨 → 와이티

겹치는 유사 발음이 어느 하나에 포섭되는 경우

[s]+[ʃ]→[ʃ]
 tennis shoes 테니스슈즈 → 테니슈즈

[z]+[ʃ]→[ʃ]

cruise ship 크루즈쉽 → 크루쉽

[θ]+[s]→[s]

both sides 보우쓰싸이즈 → 보우싸이즈

[s]+[θ]→[θ]

nice thing 나이스띵 → 나이띵

[d]+[ð]→[ð]

and there 앤드데어ə → 앤데어ə

중간에 낀 발음이 묵음 처리되는 경우

[t]의 묵음 don't know 도운트노우 → 돈노우

best spot 베스트스팟 → 베스팟

[h]의 묵음 shoot him 샷힘 → 슈름

help her 헬프허 → 헬퍼

What's her와츠허 → 와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단어처럼 연음되는 경우

like it 라이크잇 → 라이킷

find out 파인드아웃 → 파인아웃

give and take 기브앤티크 → 기번테익

work it out 워크잇아웃 → 워키아웃

두 개 이상의 조동사가 연음되는 경우

would have been killed 우드해브빈킬드 → 우르빈키얼

should have done 슈드해브던 → 슈르던

could have died 쿼드해브다이드 → 크르다이



듣기 원칙 5. 리스닝의 핵심은 억양이다

나는 여기서 '영어 리스닝의 핵심은 억양이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영어권 사람들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문장을 올렸다 내렸다~ 리듬을 타듯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같은 문장을 말하더라도 문장에 리듬감을 주고 말하느냐, 아니면 그냥 말하느냐에 따라 첫째, 뜻이 달라질 수가 있고 둘째,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다. 억양에도 당연히 몇 가지 원칙이 있고 이 원칙만 잘 알고 있으면 그들이 하는 영어의 반 이상은 커버할 수가 있다.

●평서문은 말끝을 내린다↘

I'll do it later. 내가 나중에 할게.

I'll buy you a beer if you win. 네가 이기면 맥주 내가 쏜다.

●의문문은 말끝을 올린다↗

Do you want to play ping-pong? 너 탁구 칠래?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What,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끝을 내린다↘
Who is it? 누구시죠?
Why is that? 왜 그렇죠?

●평서문 구조라도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 된다↗
He went there? 그가 거기에 갔어?
You're tired? 너 피곤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의 의문문은 끝을 내린다↘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커피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차를 드시겠어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apple or orange? 사과와 오렌지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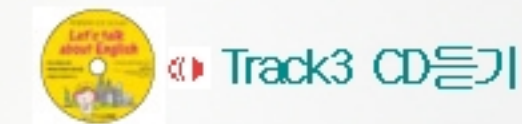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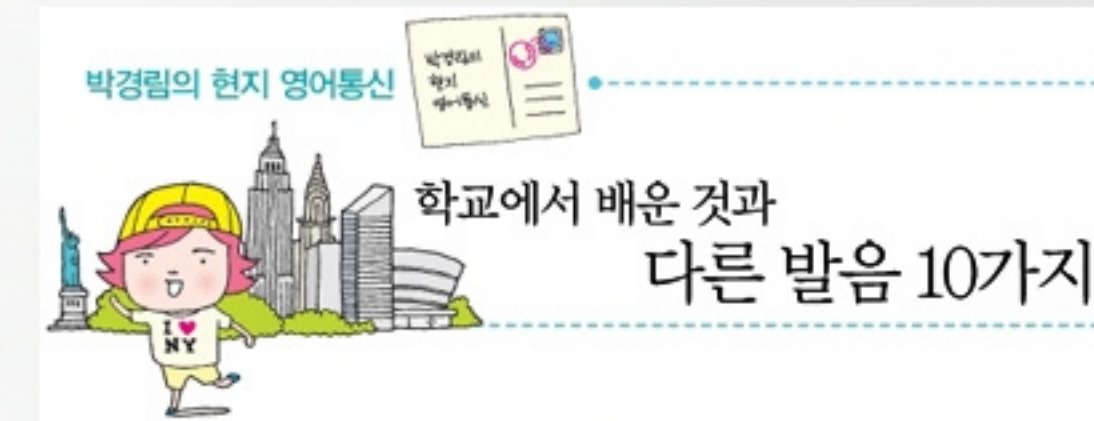
●확신이 서지 않은 부가의문문은 끝을 올린다↗
Bill is a nice guy, isn't he? 빌은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She is cute, isn't she? 그 여자분 참 귀엽죠,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 확신이 선 부가의문문은 끝을 내린다↘
It's pretty, isn't it? 예쁘죠, 그렇지요?
You want to buy that, don't you? 그것 사고 싶지, 그렇지?

●누구에게 명령을 할 때는 끝을 내린다↘
Do it now. 지금 해라.
Come here. 이쪽으로 와.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하도록 받아 줄 때는 끝을 올린다↗
So? 그래서요?
And? 그리고요?

우리말이 음절이 끊어지는 언어라면 영어는 음절보다는 강세에 주안점을 두는 언어다. 한국어는 개별 음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음절을 똑똑하게만 발음하면 의미가 잘 전달된다. 하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높낮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어야 의미가 잘 전달된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잘 인식하면, 영어의 리듬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stop 유형 (경음화)

stop을 발음해 보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자신 있게 '스톱' 또는 '스탑'이라고 발음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면 [스땃]이라고 [t] 발음을 아주 된소리 [ㄸ]로 해준다. s가 처음에 올 때는 [t]나 [p], 또는 [k] 발음이 각각 [ㄸ], [ㅌ], [ㄱ] 등의 된소리로 발음된다.

staff 스태프(X) s대프(O)
speak 스피크(X) s베익(O)
mistake 미스테인크(X) 미s데익(O)
spike 스파이크(X) s베익(O)
skate 스케이트(X) s캐잇(O)
scoop 스쿠프(X) s꾸프(O)

2 everybody 유형 (유화)

미국사람들은 모음 중간에 오는 [d]나 [t]의 발음을 우리말 '오라'할 때의 [ㄹ] 발음과 비슷하게 발음한다. 이것은 미국식 영어 발음의 특징이라 영국식 영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party 파티 → 파리
caterer 케이터러 → 케이러러
ready 레디 → 웨리
matter 매터 → 매러
better 베티어 → 베러
item 아이름 → 아이름

3 internet 유형 (자음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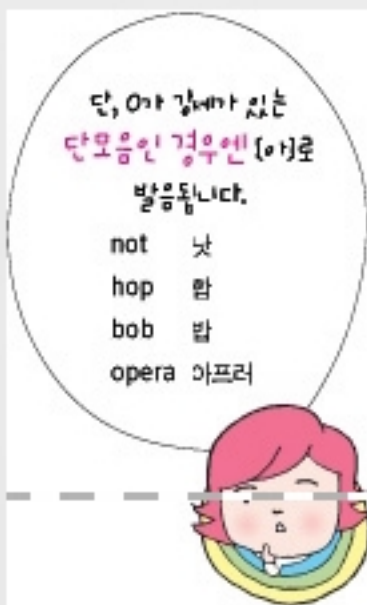
요즘 인터넷 모르면 바보 소리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internet을 [이너넷]이라고 발음한다. 이것은 모음 사이에 nt가 오면 [t]발음이 [n]에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 때문이다.

county 카운티 → 카우니
interview 인터뷰 → 이너뷰
plenty 플렌티 → 플레니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 → 이너내셔널
dental 덴탈 → 데늘
twenty 트웬티 → 트웨니

4 important 유형 (끝자음 생략)

우리는 '임포얼턴트'라고 발음하는데 미국사람들은 important에서 마지막 [t] 발음을 하지 않고 [임포얼턴]이라고 짧고 부드럽게 발음한다. 끝자음 t나 k, p, d, f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accident 액시던트 → 액씨던
tank 탱크 → 탱
slump 슬럼프 → 슬럼
told 토크 → 토크
self 쉘프 → 쉘
restaurant 레스토랑 → 레스토랑



5 odd 유형 (o모음의 악센트)

영어 왕초보라면 백이면 백 모두 다 틀리는 발음이 바로 이 이 중모음 [오우] 발음이다. [오]와 [오우]는 반드시 구별해서 발음하자.

hole 홀(X) 호울(O)
hope 호프(X) 호우프(O)
joke 조크(X) 조우크(O)
note 노트(X) 노트(O)
oh 오(X) 오우(O)
role 롤(X) 로울(O)

6 cute 유형 (u모음의 악센트)

요즘의 연애가 화두는 꽃미남. 이 꽃미남을 영어로 한다면 handsome guy가 아니라 cute guy일 텐데, 여기서는 cute 발음을 우리가 배운 대로 '큐트'라고 하지 않고 [키윳]이라고 한다. [k] 발음이 맨앞에 나오면 대부분 [키윳]나 [카우]로 들린다.

couch 카우치(X) 카우취(O)
count 카운트(X) 카운(O)
coupon 쿠폰(X) 키윳폰(O)
cow 카우(X) 카우(O)
coward 카워드(X) 카우어드(O)
cube 큐브(X) 키윳(O)

7 large 유형 (마찰음)

large를 한국사람들 대부분은 '라아지'라고 하는데 미국사람들은 좀 다르게 발음한다. 거의 [라쥬]라고 들린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ʒ]는 아주 확실하게 발음한다.

allergy 앨러지(X) 앨러쥬(O)
bridge 브릿지(X) 브릿쥬(O)
DJ 디제이(X) 디쥬이(O)
geography 지오그래피(X) 쥬아그래피(O)
judge 저지(X) 쥬쥬(O)
magic 매직(X) 매쥬(O)

8 drive 유형 (구개음화)

d나 t 뒤에 r이 오면 '드르'나 '트르'가 아니라 [쥬리], [츄리]가 된다.

drink 드링크(X) 쥬링(O)
drawer 드로워(X) 쥬러(O)
dress 드레스(X) 쥬웨스(O)
train 트레인(X) 츄웨인(O)
trouble 트러블(X) 츄뤼블(O)
truth 트루쓰(X) 츄트(O)

9 cotton 유형 비음

2번에서 [t]나 [d]의 발음이 [ɹ]에 가까운 발음으로 나오는 유화현상을 얘기했는데, 이와는 달리 [t] 음이 [n] 같은 콧소리 앞에 올 때는 성문(聲門)을 갑자기 막아 버리는 음으로 돌변할 때가 있다. 예컨대 cotton은 '코튼'이라고 하지 않고 [캣은](이때 '카슨'이 아니라 '캣'과 '은' 사이에 짧고 센 마디를 두고 '은'은 콧소리에 가깝게 발음한다)이라고 하는 식이다. 이렇게 발음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

cotton 코튼 → 캣은
button 버튼 → 벳은
kitten 키튼 → 킷은
mutton 머튼 → 멧은
rotten 로튼 → 랫은
written 리튼 → 뢰튼

10 apple 유형 a모음의 악센트

apple은 '애플'(X) 이 아니라 '애'를 강하게 발음한 [애애플]이다. 미국에 처음 와서 apple을 발음할 때 그냥 배운 대로 '애플'이라고 했더니 미국 친구들이 알아듣기는 하는데 한참 혼란스러워하다가 겨우 알아듣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알고 보니 apple에서 a는 [æ]로 강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에'나 '애'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그게 아주 큰 차이였다. 그리고 이 '애'를 크게 발음해 주다 보면 '폴'도 거의 '뽕'에 가깝게 들린다.

act 액트(X) 애액ㄷ(O)
add 애드(X) 애애ㄷ(O)
allergy 앨러지(X) 앨러쥬(O)
angry 앵그리(X) 애앵그뤼(O)
animal 애니멀(X) 애애너덜(O)
atmosphere 어트모스피어(X) 앳머스피어(O)



I Love M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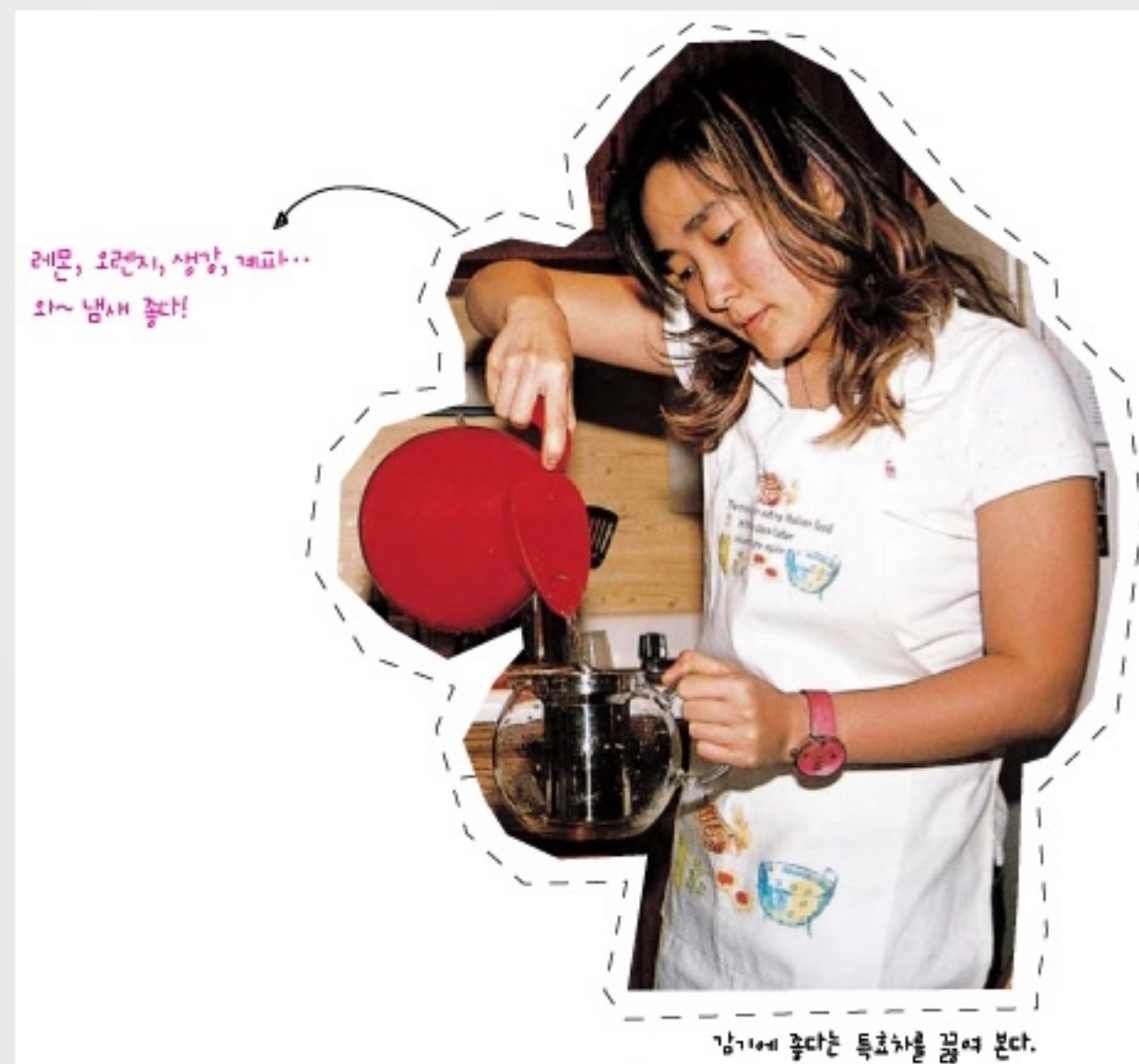


내가 사는 곳은 맨해튼3번가의 27th스트리트. 정말 아름다운 동네다. 내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나 내가 사는 이 3번가가 나는 너무나 좋다. 이곳은 그야말로 다운타운(번화가)이다. 새벽 3시에 걸어 다녀도 아무 걱정 없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이면 길거리의 음식점이나 바, 나이트클럽을 찾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빈다.

나는 집과 학교를 걸어서 다닌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스무 블록인데, 운동도 되고 걸으며 이 생각, 저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옛그제는 이 스무 블록 안에 있는 한국인은 죄다 만난 것 같다. 하루 동안 만난 한국사람만도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델리가게에서 일하시는 언니, 네일숍에서 일하시는 언니 그리고 식품점에서 일하시는 오빠를 줄줄이 만났다. 모두들 정말 친절하다.



사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땐 무조건 영어를 빨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한국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우리 동포라는 인식도 조금씩 자라게 되었다.



감기가 오려는지 몸이 으슬으슬하다. 델리가게 언니가 말해 준 감기 특효차를 끓여 본다. 언니가 말해 준 대로 주전자에 물을 붓고, 레몬과 오렌지를 네 조각으로 나누어 넣고, 생강과 계피, 그리고 꿀을 넣은 뒤 계속 끓였다. 30분쯤 지나니까 레몬과 오렌지가 익으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 나온다. 실제 맛은 예상보다 훨씬 시다. 그래도 몸 생

각해서 뜨거운 레몬 오렌지 차를 몇 잔 계속 마신다.

벌써 시계는 새벽 2시 10분을 지나고 있다. 요즘은 늘 새벽 3시쯤 자는 것 같다. 과제물이며 공부할 게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다. 다만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다 나를 만들어 주고 나중에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 더 큰 사람이 되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나를 사랑해야만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마침 라디오에서는 Aretha Franklin의 'I will survive'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I will survive**.왠지 모르게 힘이 솟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래! 아자, 아자! 박경림 파이팅! 내일도 힘차게, 이 뉴욕에서 서바이브하는 거야!'

apartment

5층 오른쪽 방이 경리실이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my desk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상입니다.
좀 어질러져 있죠?



my kitchen

작지만 돌도 가는 믹서까지
갖춘 부엌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유니언 스퀘어의 꽃시장에서
산책을 합니다.

내가 문법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서당개가 천자문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는 문법을 몰라서 창피하다거나 영어를 못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문법을 통달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이나 독서를 통해 하나씩 배워서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내가 터득한 '문법 쉽게 공부하기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한다.

문법, 너를
한 방에 보내 주마!



Grammar

CHAPTER

4

왕초보 문법은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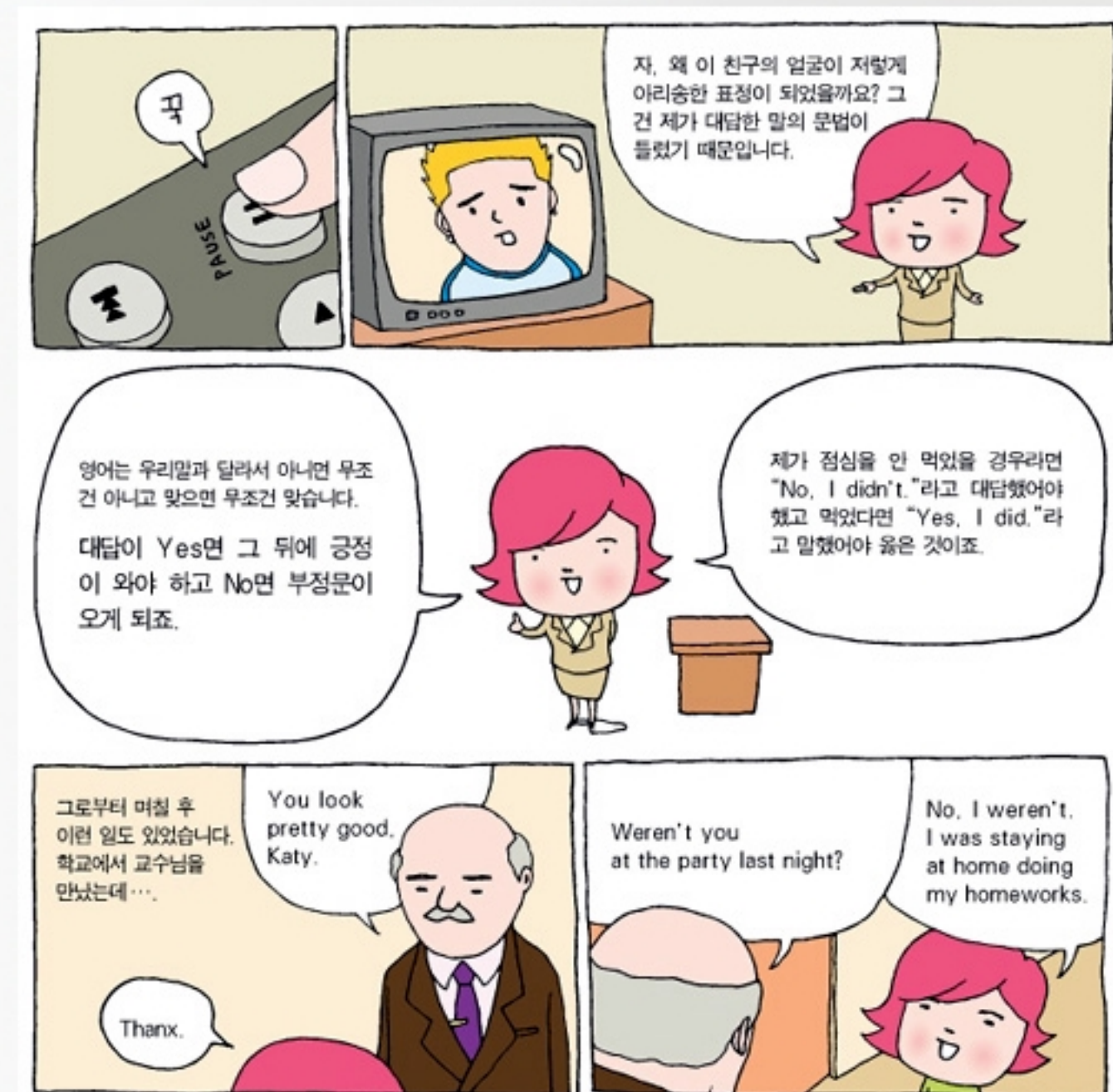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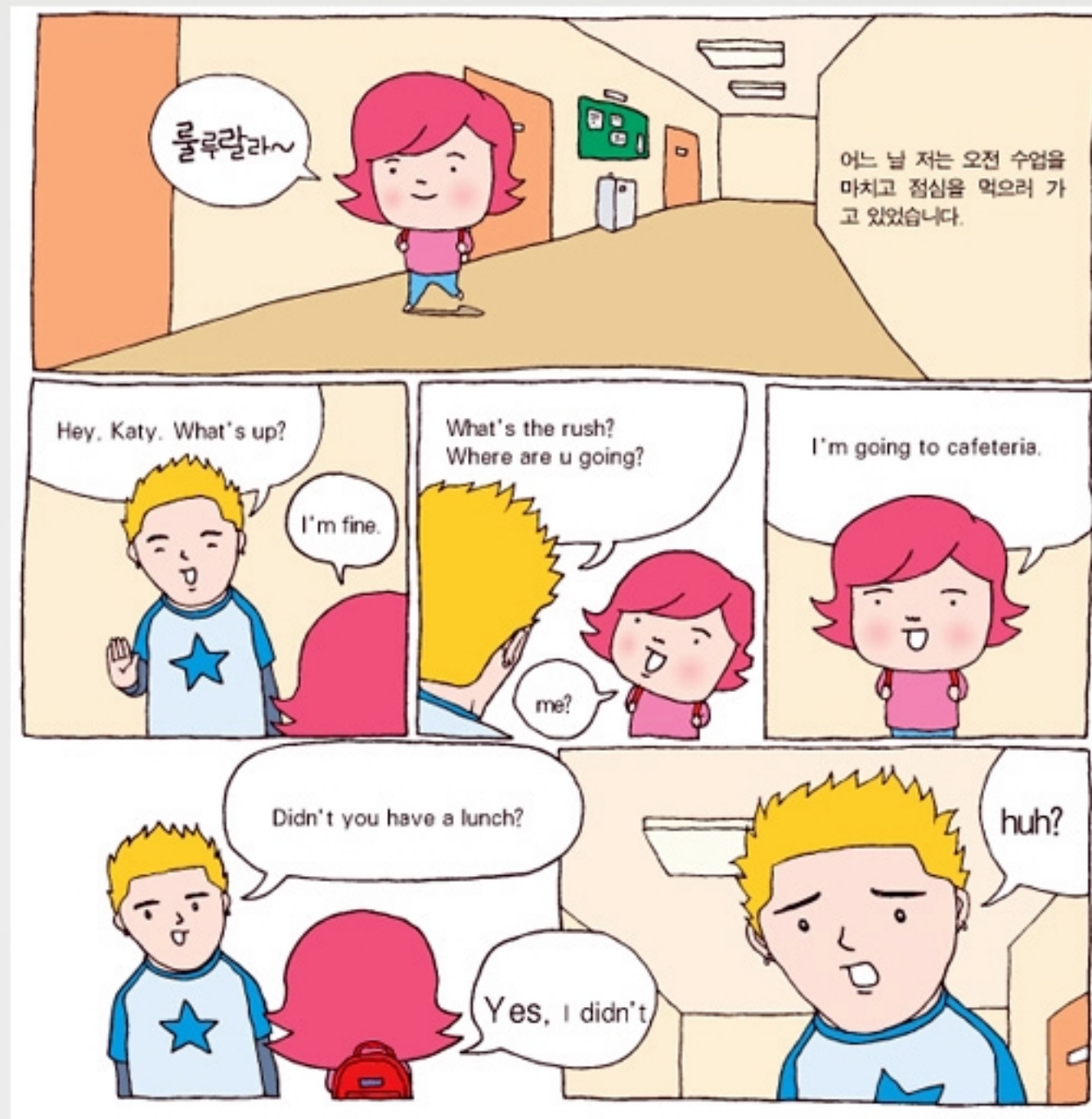
● **英語 과답 132** 아호! 나도 이제 예스, 노를 구분할 수 있다! ● **효과 정! 나의 영어 학습법 136** 문법? 多多益善보다는 多用益善! - 박경림이 정리한 영어의 왕초보 문법 _ 우선 알아 두고 볼 문법 사항들 ● **백선엽의 영어 Clinic 156** 박경림의 영작을 통해 본 영문법의 기초 - 한국인의 문법 오류에는 패턴이 있다 _ 박경림의 노트로 본 중요 문법 ● **박경림의 현지 영어통신 168** 미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세 마디 영어 Top 10 ● **Katy's Diary 174** 하루하루가 내게는 감격의 순간

英語 과답 |

야호! 나도 이제

예스, 노를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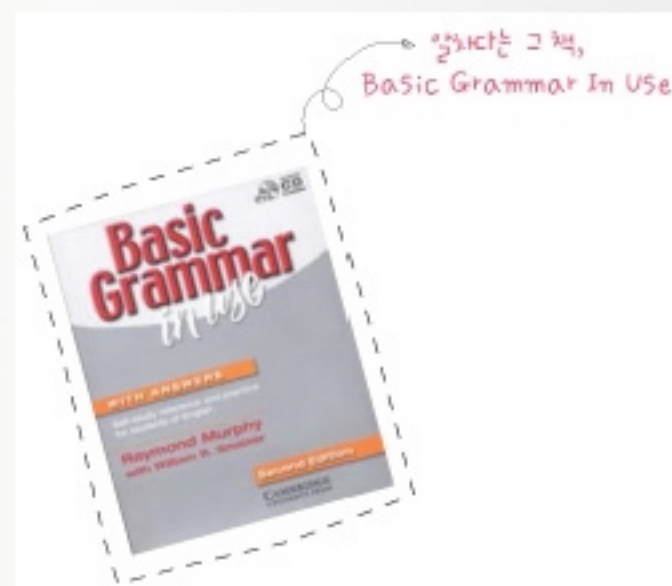


사실 내가 문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서당개가 천자문을 읊는 거나 마찬가지다. 난 아직도 영어 문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서 문법이 약한 편이다. 선생님들로부터 "다른 한국 학생들은 문법을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도저히 못하겠거나 실수를 많이 해서 창피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뻔뻔스러운 건지는 몰라도, 우리말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는 생각에서다. 막말로 자기네 나라 말도 문법을 다 알기란 힘든 것 아닌가!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리 내 나라 말이라고 해도 문법을 다 알기란 힘들다.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주한 외국인들이 보는 귀화시험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나도 다 맞힐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친구들도 영어 문법을 모를 때가 참 많다. 전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들도 그랬다. 내가 새벽까지 영어 문법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도와줄까?" 하다가 내가 뭔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냐"고 하면서 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다.

이곳에 처음 와서는 말 배우느라고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보내다가 9월이 되어서야 내 영어 멘토인 백선엽 오빠가 보내 준 문법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바로 《Basic Grammar in Use》란 책이었는데, 다들 알겠지만 원래 문법책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쉽다. 해서 나는 '문법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안 해서 그럴지 진작 했으면 문법, 나한테 딱 걸릴 뻔했네!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머리는 있는데 안 해서 그렇다니까'라며 오만 가지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웬걸, 뒤로 갈수록 왜 이렇게 헛갈리고 정신 없는 문법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많던 동그라미는 간데없고,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작살들이 수없이 꽂히기 시

작했다. 이에 절망한 나는 '문법이 뭐가 중요한가, 말만 잘하면 되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며 혼자만의 위로를 하곤 했다.

Basic Grammar In Use란?

《English Grammar in Use》 시리즈는 Raymond Murphy와 William R. Smalzer 선생님이 쓴 영어 학습서로 영국 Cambridge University Press(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비영어권이라면 어느 나라에서건 베스트셀러인 이 영어 학습서는 영어를 공부하는 초보자와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를 위해 난이도별로 나누어 있지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명쾌한 문법 설명과 철저한 암하기식 예문, 그리고 스스로 문법 실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꾸준히 하루에 한 과(unit)씩 공부한다면 약 3개월 정도에 영어의 기본적인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법에 젤 약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문법은 쓸데없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문법은 외국어를 배울 때 꼭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로 생각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모국어라면 말을 먼저 완벽하게 익힌 뒤 문법을 배우고 이해하겠지만 외국어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

그렇게 따져 보면, 결국 문법이란 것도 말을 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법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최대한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문법을 공부해야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나 박경림이 정리한 왕기초 문법

나는 1장에서, '단어란 문장의 기초요, 영어의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을 여러분들께 전파했다. 그렇다면 문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앞의 말을 이렇게 바꾸면 힌트가 나온다. '문장은 단어들의 집합이다.' 카! 그렇다. 문법은 단어들을 집합시키는 규칙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경림입니다. 다들 건강하셨지요?
저도 건강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이 말들도 다 일정한 말의 규칙 하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해도,

안녕, 박경림 이름, 건강요?, 건강 저, 안녕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기 힘들 거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표현의 기본 규칙이라는 것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 우리말의 기본 규칙은 '어미'와 '조사'인 것 같다.

이 통닭은 내가 사온 통닭이야. 통닭이 참 맛있대.
통닭을 먹어. 너는 안 먹어?

여기서 '은, 가, 이, 을'은 조사로, 낱말에 무슨 조사가 붙는가에 따라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이야, 다, 어'는 어미로, 동사 '이다, 맛있다, 먹다, 안 먹다'를 평서문이나 의문문으로, 또는 명령문으로 만든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경림입니다.
다들 건강하셨지요?
저도 건강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특별한 문장이요?



근데 영어의 기본 틀은 이와는 달리 '어순'인 것 같다. 영어는 우리말에는 있는 조사와 어미가 없는 대신, 어순에 따라서 그 단어의 기능이 달라진다.

My teacher comes. → 여기서는 teacher가 **주어**
Yes, he is my teacher. → 여기서는 **보어**
I like my teacher a lot. → 여기서는 **목적어**

이처럼 똑같은 teacher라는 말이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주어도 됐다가, 보어도 됐다가, 목적어도 되면서 일인다역을 맡는다.

또 한 가지, 영어와 우리말이 다른 점은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의 맨 뒤에 붙는데, 영어는 동사가 먼저 등장한 뒤 목적어나 보어 등, 동사의 행위를 입는 요소들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I am a girl.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배웠던 문장이다. 해석하면 '나는 소녀입니다'가 된다. 여기서 우리말 '입니다'는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데, 영어는 동사(am)가 주어 바로 뒤에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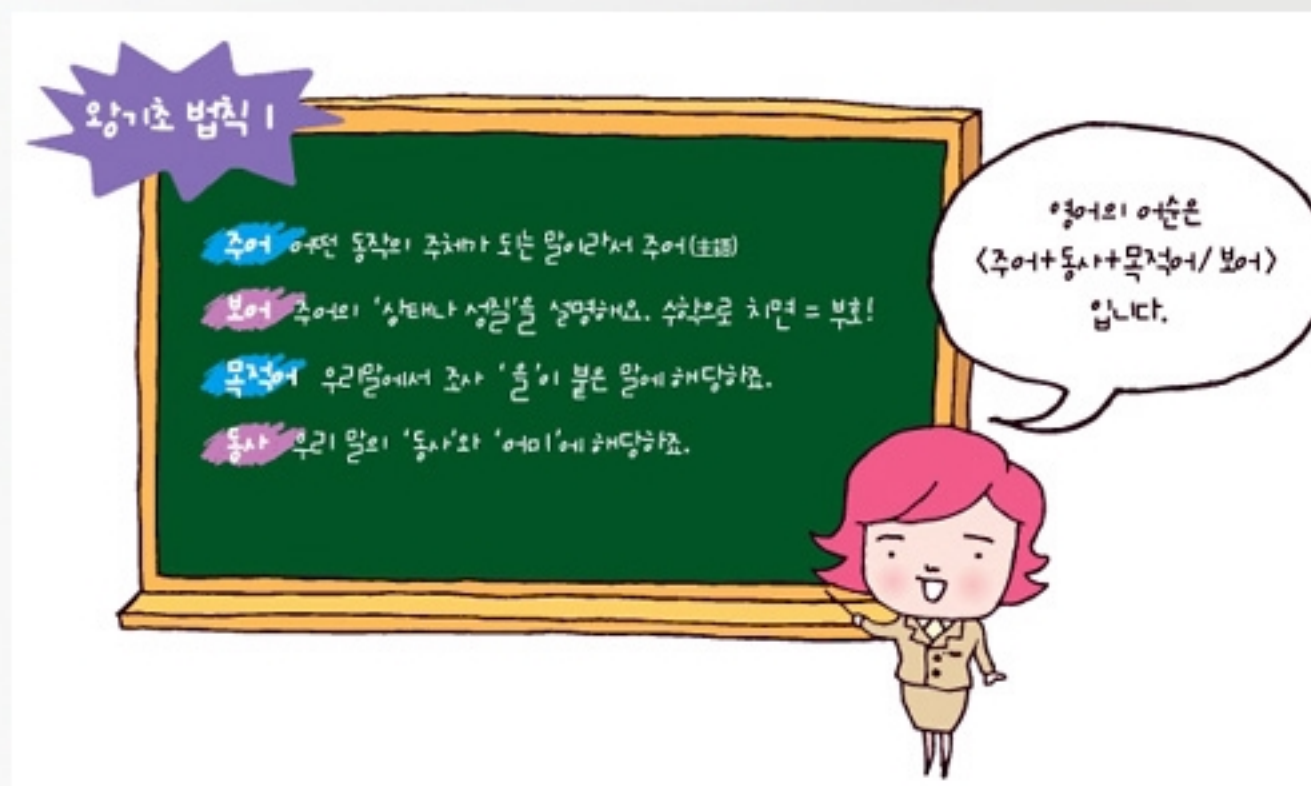
I like him.

이 역시 우리가 중학교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이다. 해석하면 '나는 그를 좋아해요'가 된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말 '좋아해요'는 맨 뒤에 나오지만, 그에 상응하는 영어 like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나온다.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누굴 바보로 아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긴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아는 문장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영어 문법의 순수 초절정 고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는 영문법 책은 다 이 기본에서 살을 붙인 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요약하면 영어는 어순이 생명인데, 그 어순이라는 게 우리말 어순과 다르다는 점이 취약이다. 영어가 입에 빨리 붙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문법의 순서, 즉 말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답부터 훨씬 편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어 · 동사 · 목적어 · 보어. 이렇게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요소와 그 위치를 알았다. 이제 기본 틀을 알았으니 그야말로 기본적인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My name is Kyeong-rim Park. 제 이름은 박경림입니다.
I live in Manhattan. 난 맨해튼에 살아요.
I like money very much. 나는 돈을 매우 좋아해요.

이 모든 문장들이 기본에 충실한 문장들이다. 왜 어른들이 항상 기본에 충실하란 말씀을 하지 않는가. 그 말은 영어에도 적용된다. 모든 문장들은 이 기본에서 결국 벗어나지 않게 마련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장이 좀 길어진다고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역시 따지고 보면 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see in New York. 뉴욕엔 볼거리가 많아요.
→ 붙어 있는 게 상당히 많지만 <주어+동사>라는 기본에서 나왔다.
I gave Neil a pencil. 나는 닐에게 연필 한 자루를 줬어요.
→ gav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Neil과 a pencil로 두 개가 있지만, 결국 <주어+동사+목적어>라는 기본에서 나왔다.
They call me Katy here.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케이티라고 불러요.
→ call의 목적어 me와 그 목적어와 동격 관계를 가진 Katy라는 보어가 함께 나왔지만, 기본은 <주어+동사+목적어/보어>라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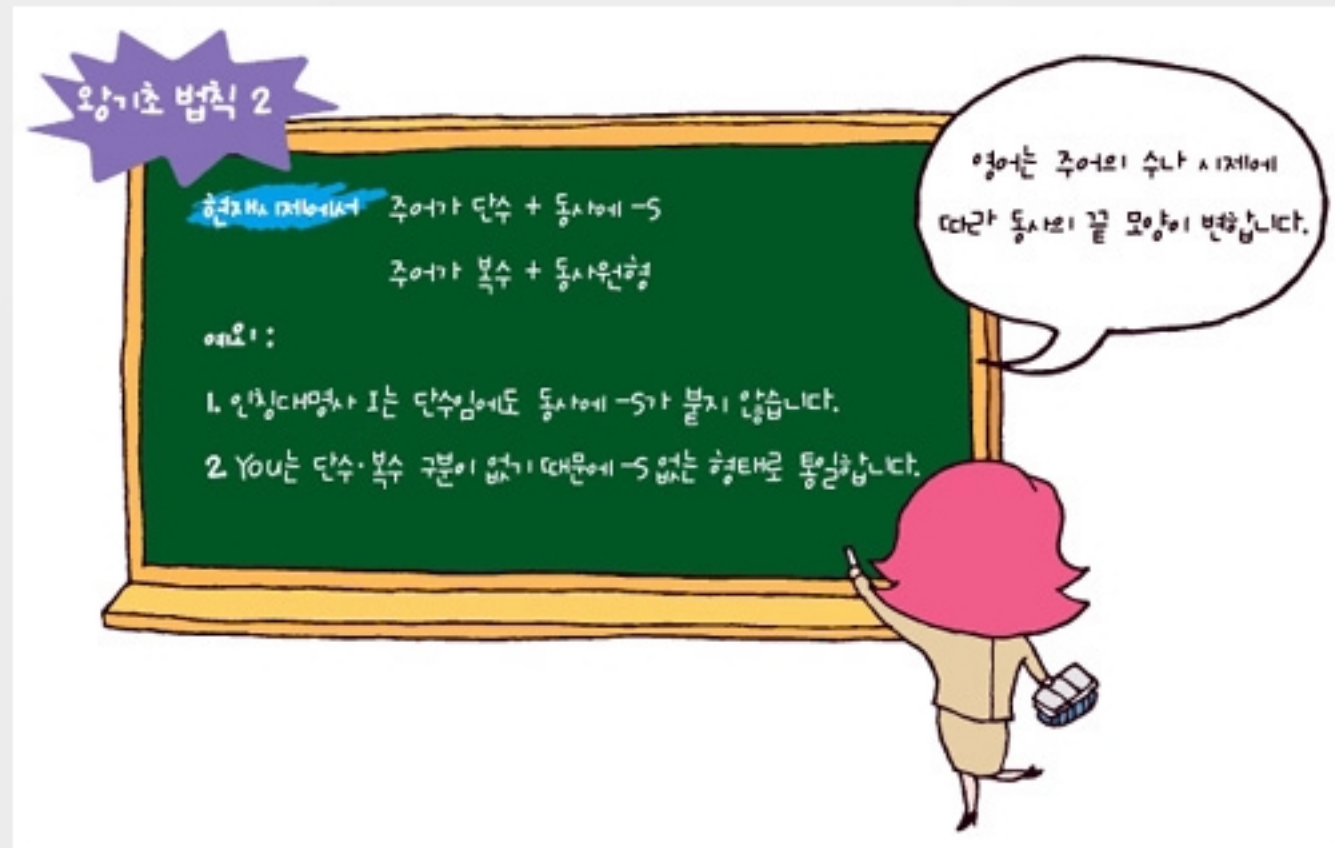
이렇게 기본만 알아도 외국인과의 어느 정도의 대화는 나눌 수 있다.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 이름은 뭐라고 대답하고,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다, 어디에 사냐? 어디에 산다, 가족이 몇 명이나? 가족이 몇 명이다,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다, 몇 살이나? 몇 살이다, 취미가 뭐냐? 취미가 뭐다, 전화번호가 뭐냐? 전화번호가 뭐다.... 거짓말 약간 보태서 맞선도 볼 수 있겠다.ㅋㅋㅋ

근데 기본 틀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덤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법칙이 하나 더 있다. 바로동사의 형태 변화인데, 영어에서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가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 동사의 꼬리에 -s(또는 -es)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한 다는 것이다.

A bird singS. 새는지저권다.

Birds sing. 새들은지저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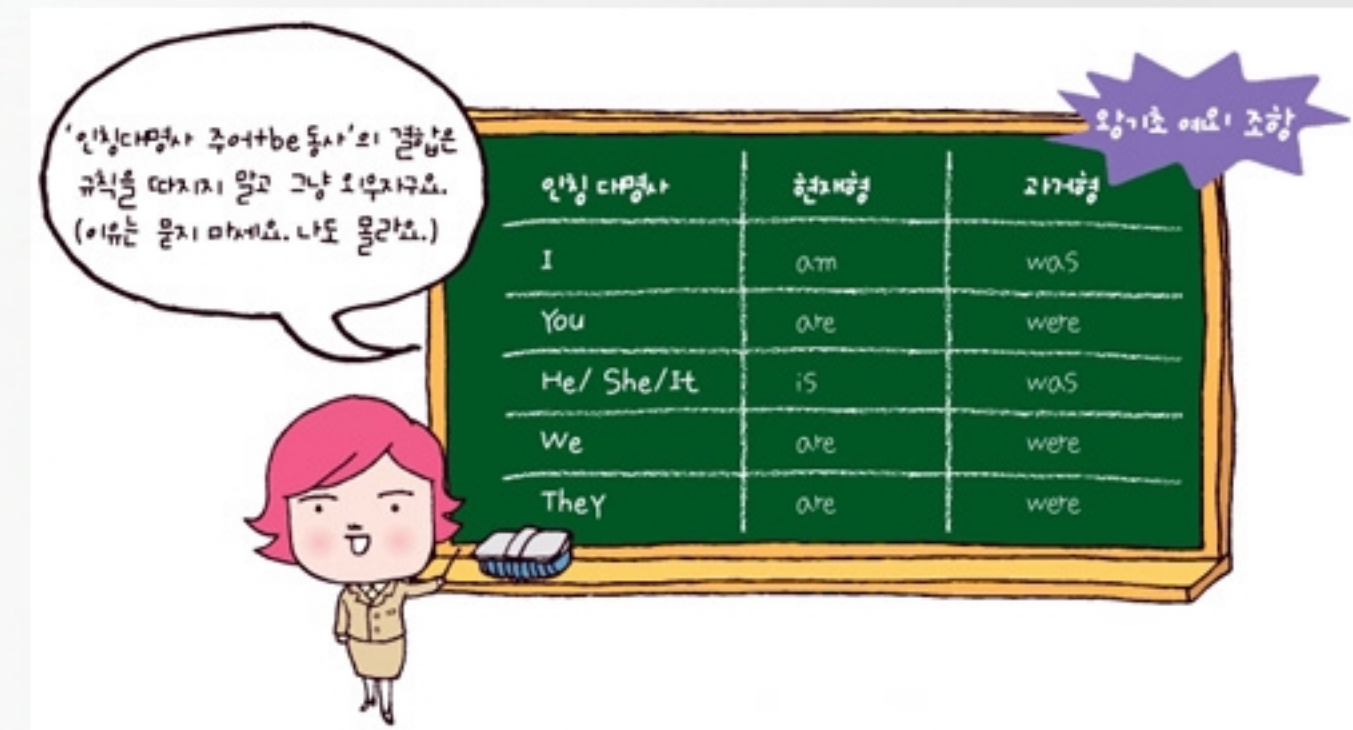
난 이 오묘한 변화를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다. 위의 bird는 하나라서 외로우니까 동사에 -s라도 붙여 주는 거고, 밑의 birds는 이미 여러 마리라서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에는 -s를 굳이 안 붙이고 원형 그대로 쓰는 것이라고. 넘 유치한가? 그래도 효과는 짱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동사가 현재형일 때 -s가 붙고 안 붙고 하면서 달라질 뿐, 과거형일 때는 딱 하나의 형태만 있다는 거다. 주로 과거는 -d나 -ed가 붙는데, 간혹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이 골치 아프게 한다. 흔히 예외라고 해서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인데 예컨대 sing의 과거는 singed가 아니라 sang이다. (이런 게 또 시험엔 잘 나온다.)

A bird sang.

Birds sang.



우선 알아 두고 볼 문법 사항들

나는 아무래도 문법을 따져서 영어를 말하는 경우보다 귀에 익고 입에 익어서 그냥 나오는 영어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문법책을 보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가도 책에서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한 표현이 예문으로 나오면 갑자기 집중도 잘 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다. 책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내 적성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아래의 문법 항목들은 책에서 중요하다고 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마저 모르면 살기가 좀 힘들겠구나'하고 몸소 느꼈던 것들이다. 이른바 박경림 '강추' 문법인데, 전격 공개하겠다!

기본 시제



현재시제건 과거시제건 정말이지 시제라는 것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나 미국에 와서나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이 시제를 공부하려면 우선 동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변화를 짚 짚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사실 지금도 lie(거짓말 하다)와 lie(눕여 있다. 눕다), lay(눕히다)가 엄청 헷갈린다.

그러나 동사 변화에서 버벅거리는 건 사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진짜 큰 문제는 '완료'라는 딱지가 붙은 시제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크나큰 문제다.

완료시제에는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와 현재완료진행, 과거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이 있다는데, 왕초보 입장에서는 과거완료며, 미래완료며 완료진행 같은 건 몰

라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미국 애들은 꼭 쓰는,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이현재완료**만큼은 영어 왕초보라도 꼭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재완료 시제에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등의 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 네 가지가 더러 섞여 있기도 하고 구별하기가 모호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보다는 완료시제가 일반 과거시제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때 주로 잘 쓰이고, 어떤 때는 쓰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평소에 잘 저지르는 행동을 예로 들어 보겠다.

I lost my key.
I have lost my key.

현재완료의 대표 문장 세 가지

- I have been to Spain. 나 스페인 가 본 적 있어.
- Have you seen the Last Samurai? 너 <라스트 사무라이> 봤어?
- How long have you been in New York City? 뉴욕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이 두 문장은 모두 우리말로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번역이 된다.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분명 다른 맥락에서 구별해서 쓰고 있다.

I lost my key.
→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찾았는지, 지금도 없는지에 대한 건 알 수 없다.

I have lost my key.
→ 열쇠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 내 수중에 열쇠가 없다는 뜻.

이렇게 현재완료는 과거처럼 똑같이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하지만 그것이 현재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는 거다.



I have been to Spain.
→ 예전에 스페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환상적이었어요! 내 기억에 평생 남아 있을 거예요.

I slept for only four hours last night.
→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I study English very hard.
→ 박경림은 늘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이라는 뜻이죠.

I'm eating noodles.
→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요? 국수를 먹고 있지요.

I will stay home tomorrow.
→ 영어의 동사형 '현재형'과 '과거형'은 있지만 '미래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will의 도움을 받지요.

어제 오늘 내일

의문문 만들기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영어 왕초보들에게 있어, 영어로 번듯한 의문문을 만들어 미국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특히 나는 미국에 온 지 한참 지나서도 질문을 할 때 Are you~?로 해야 맞는지 Do you~?로 해야 맞는지 곧잘 헷갈렸다. 그렇다고 영어로 말할 때 물어보지 않고 대답만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나만의 영어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다.

● Are you~로 시작하는 의문문●

Are you~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Are you~ 다음에 a student, a doctor 같은 명사나 okay, hungry 같은 형용사, 그리고 Are you feeling okay? Are you eating?처럼 동사의 ~ing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다시 말해 Do you eating?처럼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말이다. 'Are you~ing?'형 의문문은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쓴다.

● Do you~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럼, Do you~?는 언제 써야 할까? 알고 보면 무척 간단하다. Do you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즉 sleep, eat, feel, go, have, work 등과 같이 동사의 순수한 형태가 나온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Do you work? Do you play cards? Do you like music?같이 써야지, Are you work?(X) Are you play cards?(X) Are you like music?(X)처럼 말해서는 곤란하다. 'Do you+원형'형 의문문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늘 일정한 사

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 쓴다.

Are you working on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일하실 건가요?
Do you work on Saturdays? 토요일도 근무하시나요?

주의할 의문문 한마디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라는 문장을 영어로 말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How do you think about it?"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말의 '어떻게'가 how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What do you think about it?"입니다! 나도 이걸 쓸 때마다 헛갈리더라고요.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라면 Are you와 Do you를 뒤섞어서 말하더라도 영어권 사람들은 알아듣기는 한다. 하지만 듣기에 좀 걸끄러운 영어가 되니까 이왕이면 Are you~? Do you~?를 맞춰 쓰도록 하자.

참, what이나 how 같은 의문사는 are you~?든 do you~?든 문장의 제일 앞에 붙이면 된다.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 그리고 '누구'가 궁금할 때는 who, '어떻게'가 궁금할 때는 how, 그리고 '언제'는 when, '어디서'는 where, '왜'는 why인 건 다 아실 거다.

조동사

조동사는 문자 그대로 풀면 '보조 동사'쯤 될까? 하지만 실상은 '보조'로 쓰이는 '시다' 동사가 절대 아니다. 이 조동사들은 동사에 붙어서만 기능을 하고, 그 자체로는 쓰일 수 없어서 '조'자가 비록 붙어 있지만, 동사의 의미를 뒤에서 엄청나게 주물럭거리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조동사 하나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그 상황에서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게 다반사다.

보통 조동사라고 하면 must, can, will, may 정도,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would, should, could, might까지 들먹이면 상당히 수준급이다. 하지만 조동사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수동태를 만들 때 쓰는 be 동사나 get 동사, 완료시제에서 have+pp 할 때의 have 동사,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do 동사들도 다 조동사 범주에 들어간다.

사실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을 보면, 의미 구별이 쉽지 않은 겹치는 게 많다. 'It can be true.'나 'It may be true.'나 의미가 엇비슷하다. 'Could you do me a favor?'와 'Would you tell her that I'm coming?'에서도 둘 다 '공손한 부탁'이라는 비슷한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동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법칙을 따지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을 익혀 조동사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친근하고 효율적인 것 같다. 예컨대 Would you~?라든가 It can be~ 같은 건, 굳이 조동사의 용법을 따지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 그냥 입에 익히자!



박경림이 뽑은 조동사 문장

● can

I can speak English. 나도 말할 수 있다, 영어를!
It can be true. 참말일 수도 있지.

● will

I will call you tomorrow. 내일 전화할 게.
Will you come tomorrow? 내일 오시겠어요?

● must

You must do your homework. 숙제는 꼭 해야 하는 거야.
He must be right. 그 남자 말이 맞는 게 틀림없어.

● may

You may go now. 이제 가셔도 돼요. (좀 거들먹거리는 투로.)
It may be true.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

● could

would do so, if I could.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말.)
Could you please do me a favor? 좀 도와주실래요? (아주 공손하게.)

● would

Would you tell her that I'm coming. 제가 지금 가고 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시겠어요?
We would play at this place. 이곳에서 놀곤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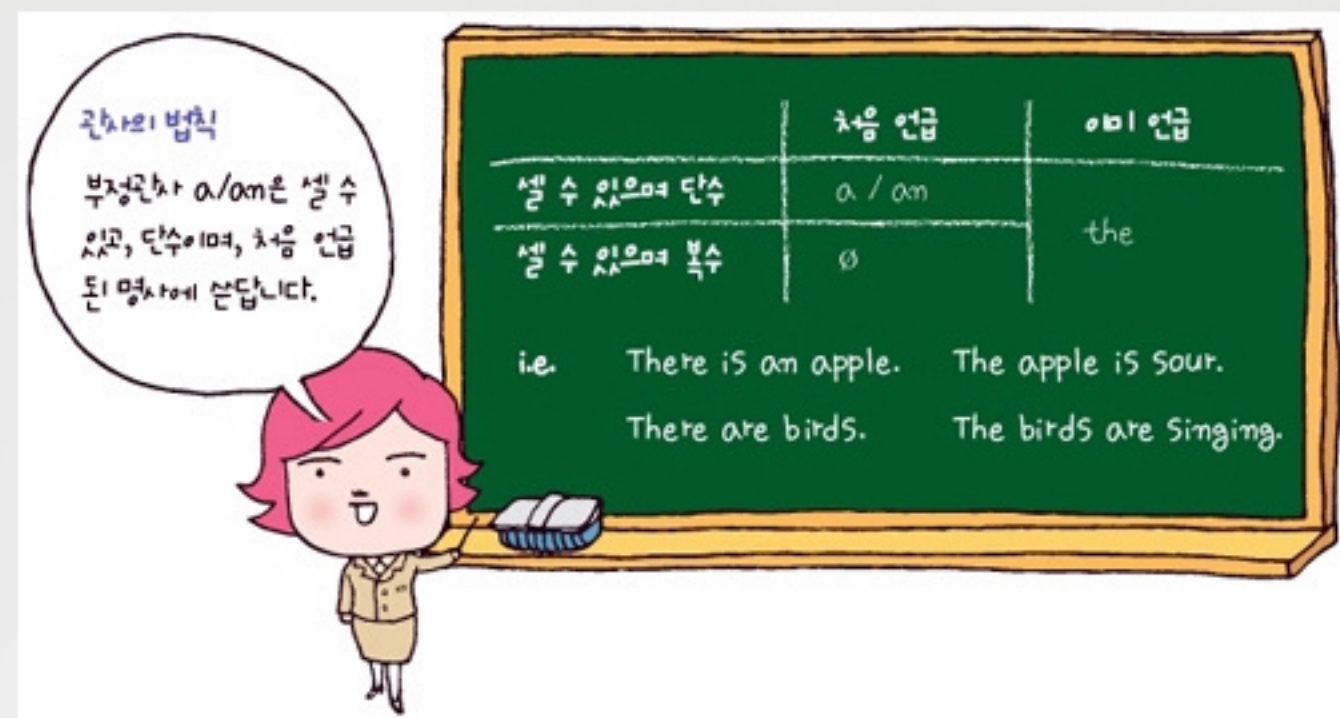
● should

One should keep one's promise.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이야.
I shouldn't have done that.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관사

관사란 a/an이나 the를 가리키는데, 우리말에는 이 관사라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통계에 의하면 영어 문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관사라고 하니, 우리가 제일 많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관사 붙이기다.

관사를 붙이는 첫 번째 기본 규칙은 처음 언급될 때는 셀 수 있는 단수명사인 경우 a나 an을 붙이며 복수명사일 때에는 관사를 안 붙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본 규칙은 이미 언급된 명사라면 단수, 복수를 막론하고 the를 붙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사에는 셀 수가 없는 것들도 있다. 셀 수도 없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느냐 달라지는 게 없는 추상적인 명사들은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첫째, 셀 수 없기 때문에 a나 an을 붙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e를 붙일 수 없는 것이다.

Truth doesn't change.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John is handsome. 존은 잘생겼다.
Water is the clear liquid and is used for drinking and washing. 물은 투명한 액체로서 마시거나 씻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따지면 관사가 무척이나 간단할 것 같지만, 규칙은 딱 두 줄이면서 예외 항목은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게 또 이 관사다. 게다가 우리말 명사에는 '센다, 안 센다' 하는 개념이 영어만큼 강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관사 a/an을 붙여야 할지, 아니면 무관사로 가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게 맞는지가 그야말로 끊임없이 혼동된다.

그래서 나는 무식하지만 나름대로 쓸모 있는 나만의 방법을 한 가지 개발했는데, 바로 우리말의 '그' 자를 명사 앞에 넣어서 말이 되면 the를 붙이고 말이 안 되면 무관사 또는 a나 an을 붙이는 거다. 예를 들어, '나는 차가 한 대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한다면, '나는 그 차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I have a car.'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차를 다음 주에 세차할 거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차(=내 차)'를 세차하겠다는 말이니까, 'I'm going to wash the car next week.'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보면서 관사를 고르는데, 적응률이 꽤 높다.

전치사

영어를 말할 때 전치사가 무척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그렇다. 우리가 밥만 먹고 발가벗고 살 수 없듯이, 영어 문장도 주어·동사·목적어·보어만 가지고는 의미가 풍부해지지 않는다.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 주는 형용사도 필요한 거고,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부사는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것도 있지만,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붙어서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문법책에서는 '전명구'라고 했던가!) 이때 꼭 필요한 게 전치사다. 전치사가 없다면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장소는 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또 방법이나 도구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박경림이 정리한 '시간 앞의 전치사'

- 시각 앞이면 언제든 at
I start work **at** 9 o'clock. 난 9시에 일을 시작해.
Please come to my place **at** 7. 7시에 우리 집에 오세요.
- 요일 앞에는 on
See you **on** Saturday. 토요일에 보자.
We'll have a party **on** Friday. 우리 금요일에 파티를 할 거야.
- 월, 계절, 연도 앞에는 in
Seon met Katy **in** May. 선은 케이티를 5월에 만났다.
Seon met Katy **in** the Summer. 여름에 만났다.
Seon met Katy **in** 2003. 2003년에 만났다.
- 시각, 요일, 연도 모두에 쓸 수 있는 from ~ to ~
Katy lived in Korea **from** 1980 **to** 2003. 케이티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에 살았다.
Seon works **from** Monday **to** Friday. 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
He works **from** 9 **to** 5. 그는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한다.
- 시간 앞에 붙어 '기간'을 나타내는 for
I've been married **for** five years. 난 결혼한 지 5년째야.
We lived together **for** ten months. 우리는 열 달 간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놈의 전치사는 어찌나 많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치사 공부하는 많이 쓰이는 것부터 짬짬이 해두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제일 헛갈리면서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시각'도 있지만 '요일'이나 '월', '계절'도 있고 '연도'도 있고 '시대'도 있

는 등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건 at/on/in/for 그리고 '~에서 ~까지'를 나타내는 from~ to...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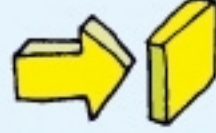
또한 전치사는 동사와 결합해서 숙어idiom라는 걸 만드는 데도 쓰인다. 여러분도 알 거다, 왜 사전에서 go 같은 동사를 찾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정작 go 자체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go about부터 go with까지,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사람 기를 질리게 하는 것 말이다.

근데 이렇게 동사에 전치사가 붙어서 의미가 꼬이는 경우는 역시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으므로 일일이 외우려면 무한정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바로 이때, 이럴 때 우리는 전치사들의 뉘앙스, 이 뉘앙스를 파악해서 감으로 때려야 하는 거다. 한마디로 전치사가 그림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애긴데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몇 가지 대표 전치사들의 '뉘앙스'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림으로 파악하는 기본 전치사

• to ~로



Go **to** bed. 자라!

It is a long way **to** the beach. 해변까지는 멀다.

He gave it **to** me. 그는 그걸 나에게 주었다.

It is 10 **to** 5. 5시 10분 전이다.

• from ~로부터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오셨어요?

It is long way **from** the beach.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He took it **from** me. 그는 나에게서 그걸 빼앗았다.

Four **from** twenty is sixteen. 20에서 4를 빼면 16이다.

• into ~쪽으로



The water turned **into** ice. 거기 있던 물이 얼음이 되었다.

I don't want to go **into** that story. 나 그 얘기 자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She came **into** the house. 그녀는 집으로 들어왔다.

He persuaded me **into** buying the house. 그는 나를 설득해 그 집을 사게 했다.

• out of ~에서 밖으로



She deliberately missed out him **out of** the group.

그녀는 고의적으로 팀에서 그를 빼뜨렸어요.

The flavor had gone **out of** this coffee. 커피 향이 다 달아났어.

My mom took the cookies **out of** the oven. 엄마는 오븐에서 쿠키를 꺼냈습니다.

• off ~에서 떨어져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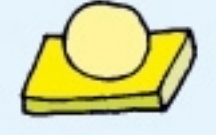
The gun went **off** while he's cleaning it.

그가 총을 닦는 중에 총알이 발사되었다.

Take **off** your shoes. 신을 벗어라.

Take your feet **off** the desk.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지 마라.

• on ~위/밑/옆에 닿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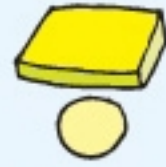


We are going **on** vacation next week. 우리는 다음 주에 방학이야.

The picture is **on** the wall. 그 그림은 벽에 붙어 있다.

Apples are hanging **on** the trees.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 under ~밑에/~아래 못 미치다



The ship went slowly **under** the sea.
배가 천천히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Katy is **under** 30. 케이티는 서른 살이 안 되었다.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건물이 공사 중이다.

• over ~표로 위로 / ~를 넘어서



He'd gone **over** the car with a cloth. 그는 수건으로 차를 숙삭 닦았다.
My parents travelled all **over** the world.
우리 부모님은 세계일주를 하셨다.
The book cost **over** 30,000 won. 그 책은 3만 원이 넘었다.

• around ~에 둘러싸여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He wore a band **around** his head. 그는 머리에 띠를 짰다.
I went all **around** the house, but couldn't find it.
나는 집 주위를 여가짜기 둘러봤지만 그림 못 찾았다.

• through ~를 뚫고



A brilliant idea suddenly went **through** my mind.
멋진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관통했다.
I waited him all **through** the night. 나는 밤새워 그를 기다렸다.
He became a millionaire **through** hard work.
그는 열심히 일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

• up 낮은 데서 높은 데로



I went **up** the stairs.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He ran **up** the hill. 그는 언덕으로 달음질쳐 올라갔다.
The fireman climbed **up** the wall. 소방관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

• down 높은 데서 낮은 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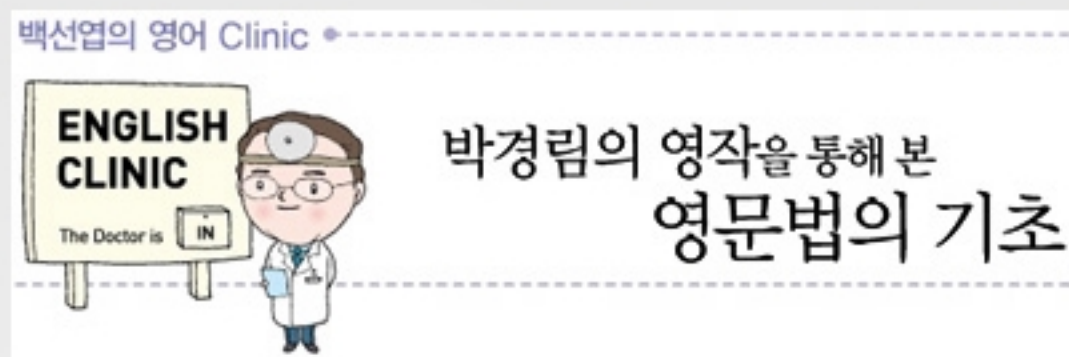


She went **down** the street. 그녀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Tears ran **down** my face.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Our house is **down** the hill. 우리 집은 언덕 아래에 있다.

영문에는 전치사가
이복잡에도 많습니디다.

about	~언저리에
above	~위에
across	~건너/~를 가로질러
after	~이 잇달아
against	서로 맞부딪쳐
ahead	~이 앞서
along	~로 나란히
away	~에서 멀어지
back	되돌아
before	(시간-공간)~앞에
behind	~뒤에
below	~아래에
beneath	~바로 아래에
beyond	~너머에
by	~의 영향권 안에
of	(전체와 부분의 관계 속에서)~의
with	(서로 관계 맺으면서) ~와





어드바이스 한국인의 문법 오류에는 패턴이 있다

나는 지난 1년간 박경림 씨가 쓴 작문들을 일일이 읽어 보고 그녀의 문장 구사력을 분석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발견한 점은 뉴욕 연수 초기에 그녀가 자주 저지르던 실수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는 실수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초기에는 [주어+동사]의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문장 구성 법칙에서 오류가 많았다. 예컨대 하나의 절 안에 일반동사와 be동사를 섞어 쓴다거나, can't 같은 조동사 다음에 to부정사를 쓴다거나, 혹은 진행형 시제에서 과거분사를 쓰는 등의 실수들이 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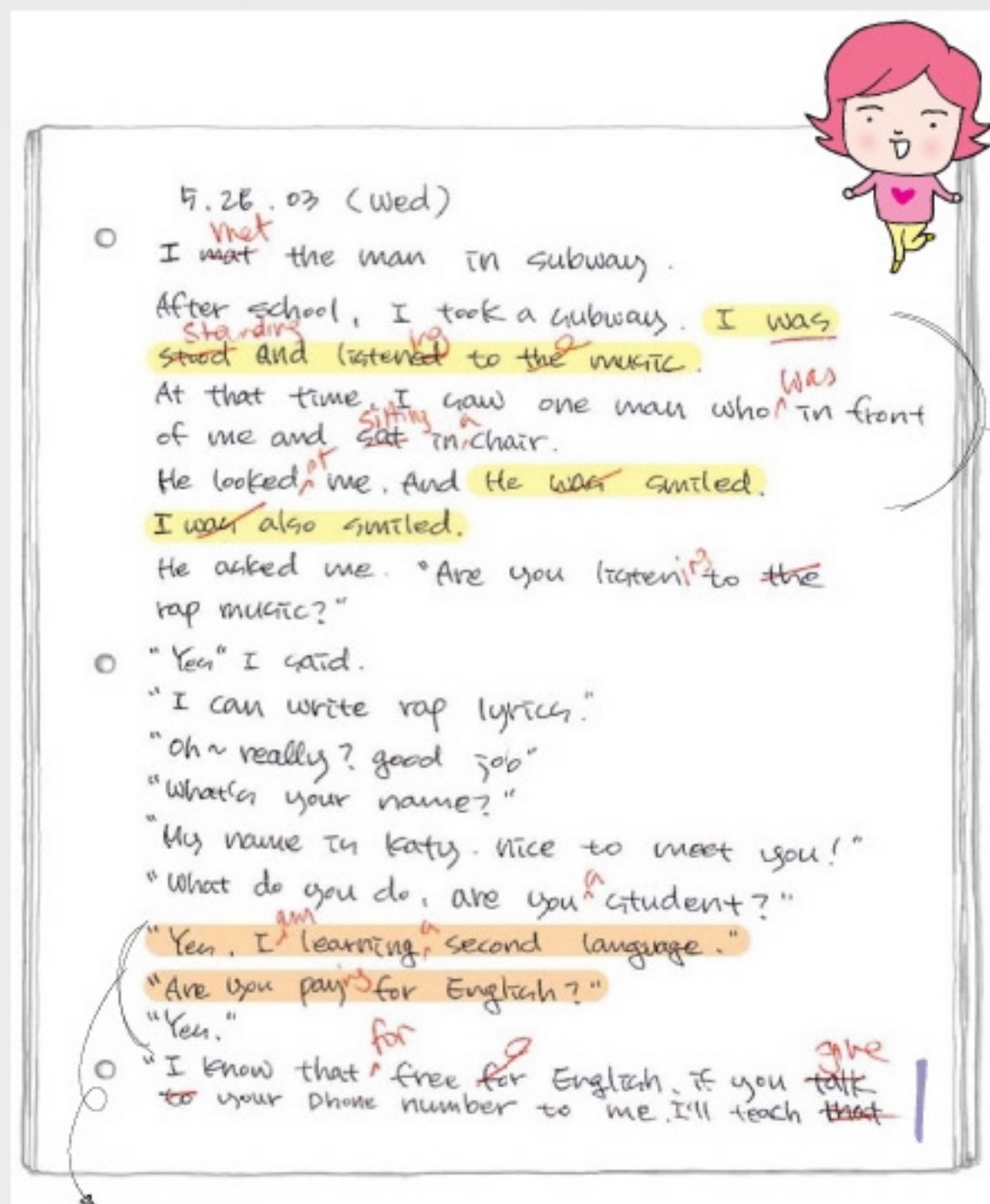
물론 뉴욕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림 씨가 곧잘 저지르던 동사 변화상의 실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영어 학습 과정상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다.) 대신 다른 실수 유형들이 여전히 산재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기는 그날 있었던 사실 또는 생각의 기록이므로 기본적으로 과거형 시제가 자주 쓰이게 마련인데, 경림 씨는 과거시제를 곧잘 간과하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곤 했다. 또는 주절이 과거인 경우 종속절의 시제도 주절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시제 일치 부분에서 종종 실수가 드러났다.

그밖에 문장의 4형식에서 to 같은 불필요한 전치사를 사용한다거나, to 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및 목적어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애를 먹기도 했다. (예: 'She doesn't want me to say.'를 'She doesn't want my saying.'과 같이 썼다.) 또 관사나 복수형 명사와 같이 우리말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비교적 자주 눈에 띄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오류 유형과 대부분 영어 초보자들의 오류 유형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점이다. 즉 영어라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초보 학습자들이 저지르는 보편적인 오류 유형이 영어에 대한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미국 연수를 떠났던 경림 씨의 초기 영어 작문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녀가 실제로 쓴 노트를 독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그 실수 패턴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be동사와 일반동사, 시제, 태, 부정문, 조동사, 동사의 명사형(to 부정사 및 동명사), 동사의 형용사형(현재분사 및 과거분사)와 같은 영문법의 주요 항목은 대부분 동사의 사용과 달아 있기에, 실수 패턴은 주로 동사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했다. 지난 1년간 박경림 씨가 자주 했던 실수들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문법적인 취약성과 실수 패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진행형 만들기



진행형 문장에서 틀리는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동사 be동사를 빠뜨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꾸는 과정을 빠뜨리는 것이다. 해당 문장들은 각각 이렇게 되어야 옳다.

Yes, I am learning a second language.
Are you paying for (the) English (class)?

현재, 과거, 완료를 막론하고 진행형에서 본동사는 분사형(ing)으로 바뀐다.

I am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현재진행형

I was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 과거진행형

I have been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꼭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 현재완료진행형

I will be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 미래진행형

하나의 절에는 하나의 주동사만 온다

동사가 하나의 절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 직설법 현재
I live in New York.
- 단순 과거
I once lived in New York.

동사가 조동사와 결합해
쓰이는 경우

- 진행형
I am walking home.
- 가정법
I would do it if I were you.
- 부정문
I do not love him.
- 강조문
Yes, you do love him.
- 수동태
He was elected chairman.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동사와 조동사로, 그리고 주동사는 다시 be동사와 일반동사로 나뉜다. 주동사로서 be동사는 'I am a girl.' 'I am happy.'처럼 [주어+동사+보어]로 구성된 2형식 문장을 이룬다.

영어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다. 하나의 절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절에 주동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하나의 절에는 하나의 주동사만 온다. 만일 하나의 절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다면, 그 중 하나만 주동사며, 나머지는 전부 조동사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각각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

- be동사+주동사의 ing형 → 이때 be동사는 조동사임

I was standing and listening to the music.
He was smiling. I was also smiling.

- 과거시제 단순 주동사

I stood and listened to the music.
He smiled. I also smi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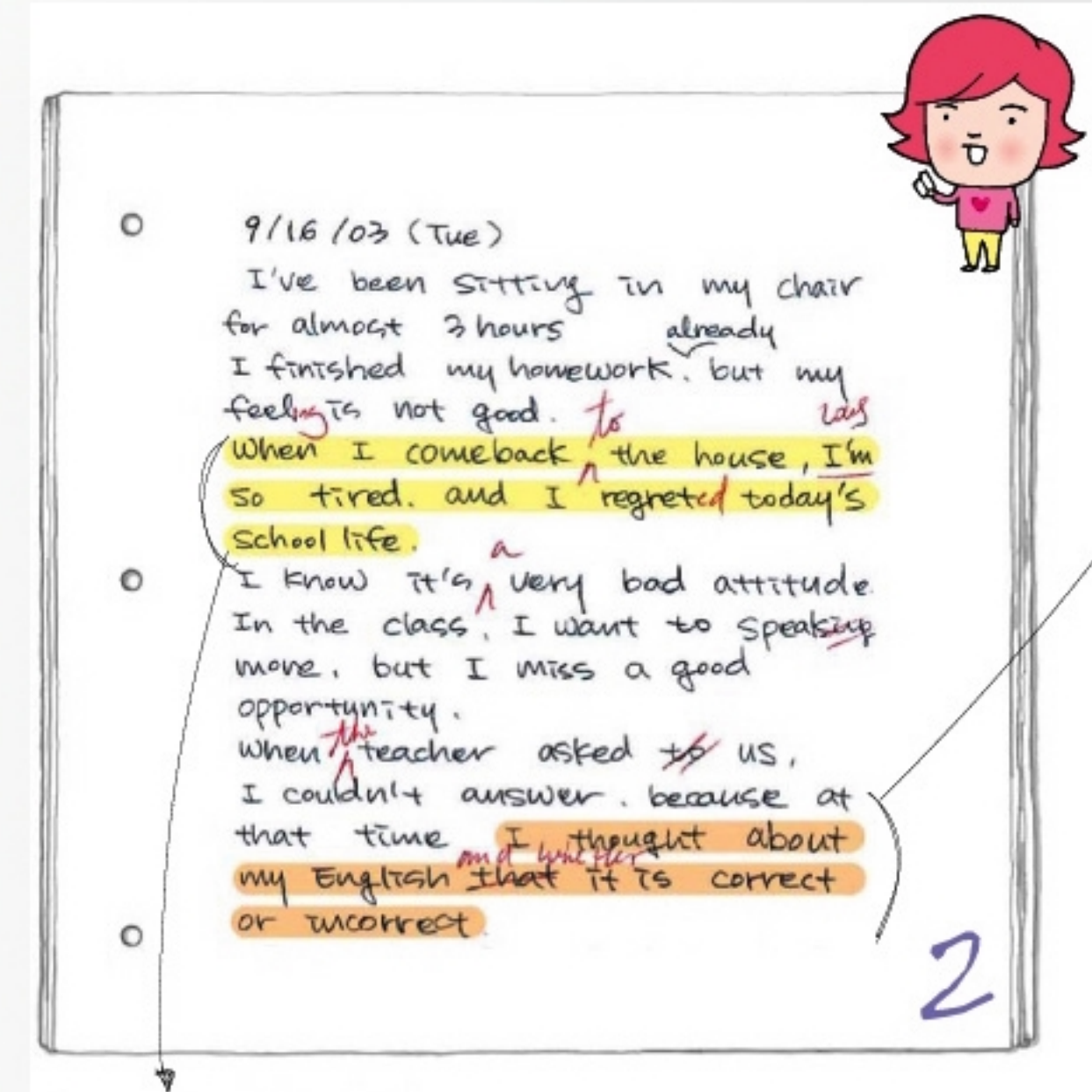
영어의 기본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시제와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시제, 이렇게 6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진행형과 수동형이 더해질 수 있지요.

When I came back to the house, I was so tired and I regretted today's school life.

문장을 쓰거나 말할 때는 우선 현재인가 과거인가를 살피고 그 다음 이에 따라 동사의 형태를 적절히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

간접의문문 만들기

의문문을 만드는 대원칙은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도치시키는 것인데, 이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시제 선택과 동사 변화

영어의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에서 형태가 변한다.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는 끝에 -s나 -es가 붙는다. 과거형일 때는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변하는데, 규칙동사는 끝에 -d 또는 -ed가 붙고, 불규칙 동사는 모음변화를 한다. (예: go-went/ see-saw) 위의 문장을 시제에 맞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A형 Is he a student?

→ be동사 의문문: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꾼다.

B형 Can you speak English?

→ 조동사 의문문: 주어와 조동사의 순서를 바꾼다.

C형 Does he like you?

→ 단순 주동사 의문문: 조동사를 임의로 만들어 문장의 처음에 놓는다.

D형 What are you doing here?

→ 의문대명사 의문문: 의문대명사를 놓고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꾼다.

그렇다면 간접의문문은 어떨까? 간접의문문이란 주절에 종속된 의문문을 말한다. 주절에 종속되므로 시제도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으며, 뒤바뀌었던 주어 동사의 순서도 원위치로 돌아온다. 또 의문부호도 마침표로 바뀐다. 이때 D형 의문문은 [의문사+주어+동사]로 이루어진 종속절이 되며, 위의 A·B·C형 의문문은 접속사 if나 whether~를 써서 주절에 연결시킨다.

She asked me. "What's your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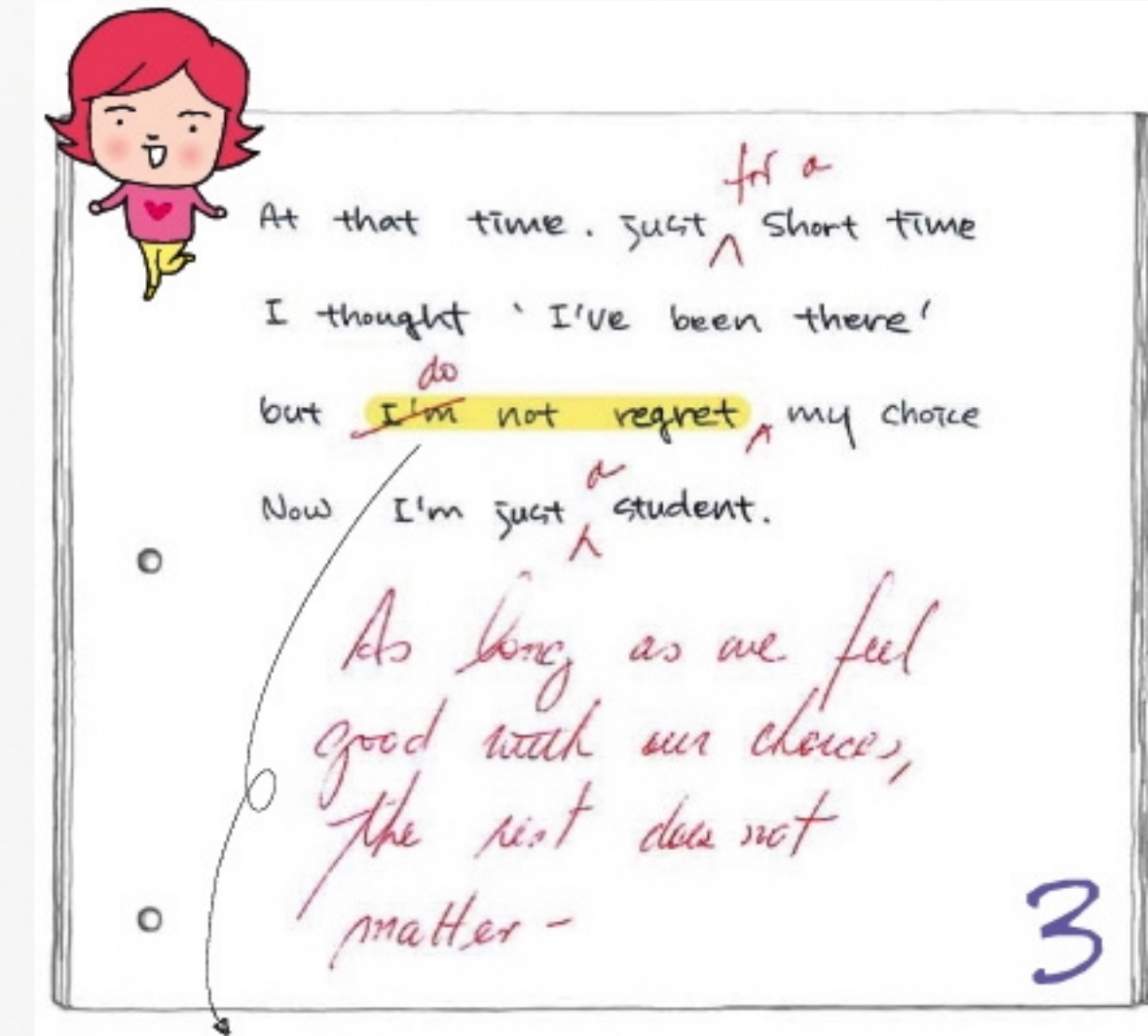
→ She asked me what my name was.

'Is my English correct?'

→ I asked myself(또는 wondered) whether my English was correct or not.

따라서 위의 문장을 정정하면, 아래와 같다.

I thought about my English and whether it was correct or incorrect.



부정문 만들기

부정문(否定文)이란 간단히 말해 not이 붙은 문장이다. 그 형태를 분석하면,

A형 주동사가 be동사인 문장 → be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I am a girl. → I'm not a girl.

B형 주동사가 단순 일반동사인 문장 → 조동사 do를 만들고 not을 붙인다.

I like music. → I don't(do not) like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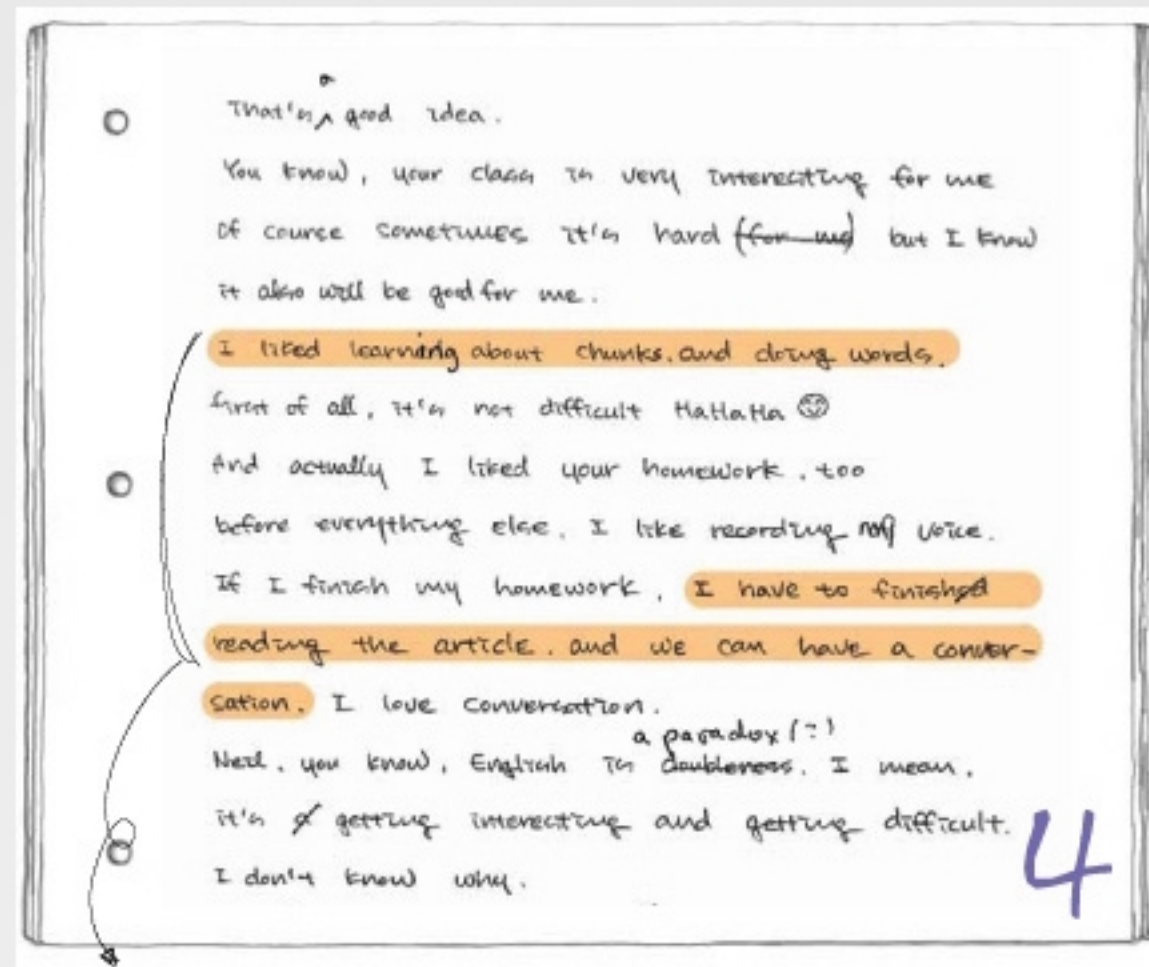
C형 조동사가 있는 문장 → 조동사에 not을 붙인다.

I will go there. → I won't(will not) go there.

I have been in France for one year. → I haven't(have not) been in France for one year.

경림 씨가 쓴 문장에서 regret은 일반동사다. 따라서 이렇게 고쳐야 한다.

I don't regret my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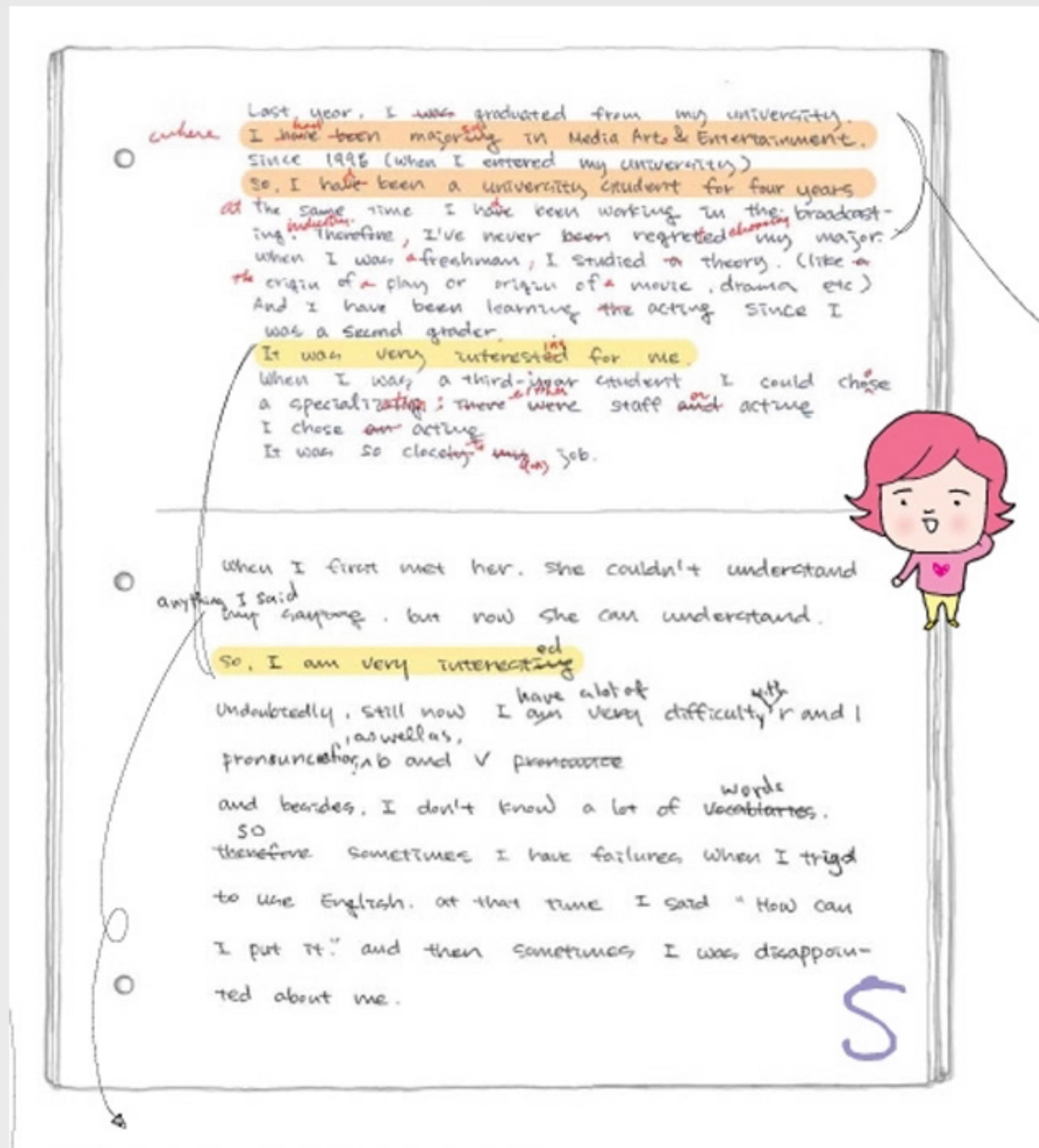
to 부정사 목적어와 동명사 목적어

to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의 변화형으로서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동사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to부정사는 전치사 to(~를 향하여)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미래지향적이며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다. 반면 동명사는 일반적이며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행위라는 의미가 크다. 또한 동명사는 주체 개념이 약해서 시제나 태(능동·수동)가 달라져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위의 문장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I liked learning about chunks and doing(또는 picking up) words.
I have to finish reading the article.



interested와 interesting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동사 변화형이다. 분사는 be동사와 결합해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만들기도 하고, 문장에서 보어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분사가 문장의 보어가 되는 경우, 현재분사는 능동적 의미로서 '~하는/~인'으로 해석이 되며, 과거분사는 수동적 의미로서 '~된'으로 해석하면 거의 의미가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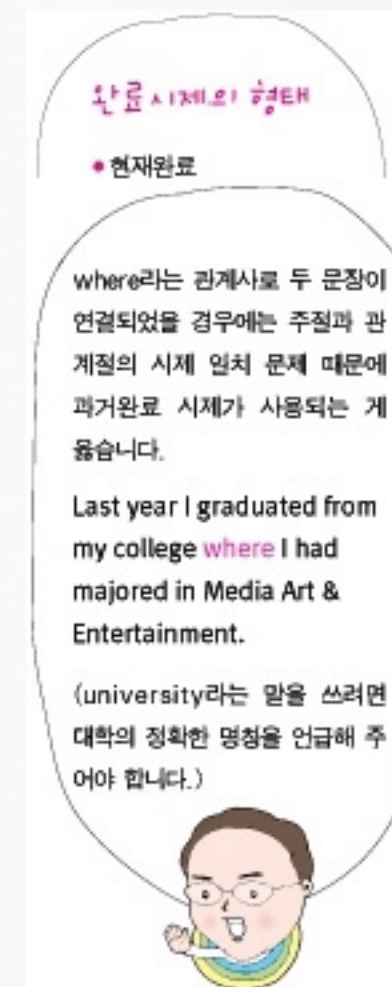
예컨대 interest(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동사의 현재분사형인 interesting은 어떤 것이 나를 흥미롭게 하는, 즉 '흥미로운'이 되며, 그것의 과거분사형인 interested는 그 무엇에 의해 주어가 흥미롭게 된, 즉 '궁금해진'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을 고치면,

It was very interesting for me.

So, I am very interested.

완료시제

이 예시글에는 완료시제에서 실수한 문장들이 많이 보인다. 기억해 둘 것은 완료시제는 항상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다. 완료시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즉 현재완료는 기준 시점이 현재이며, 과거완료는 과거, 미래완료는 미래가 기준 시점이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과거완료형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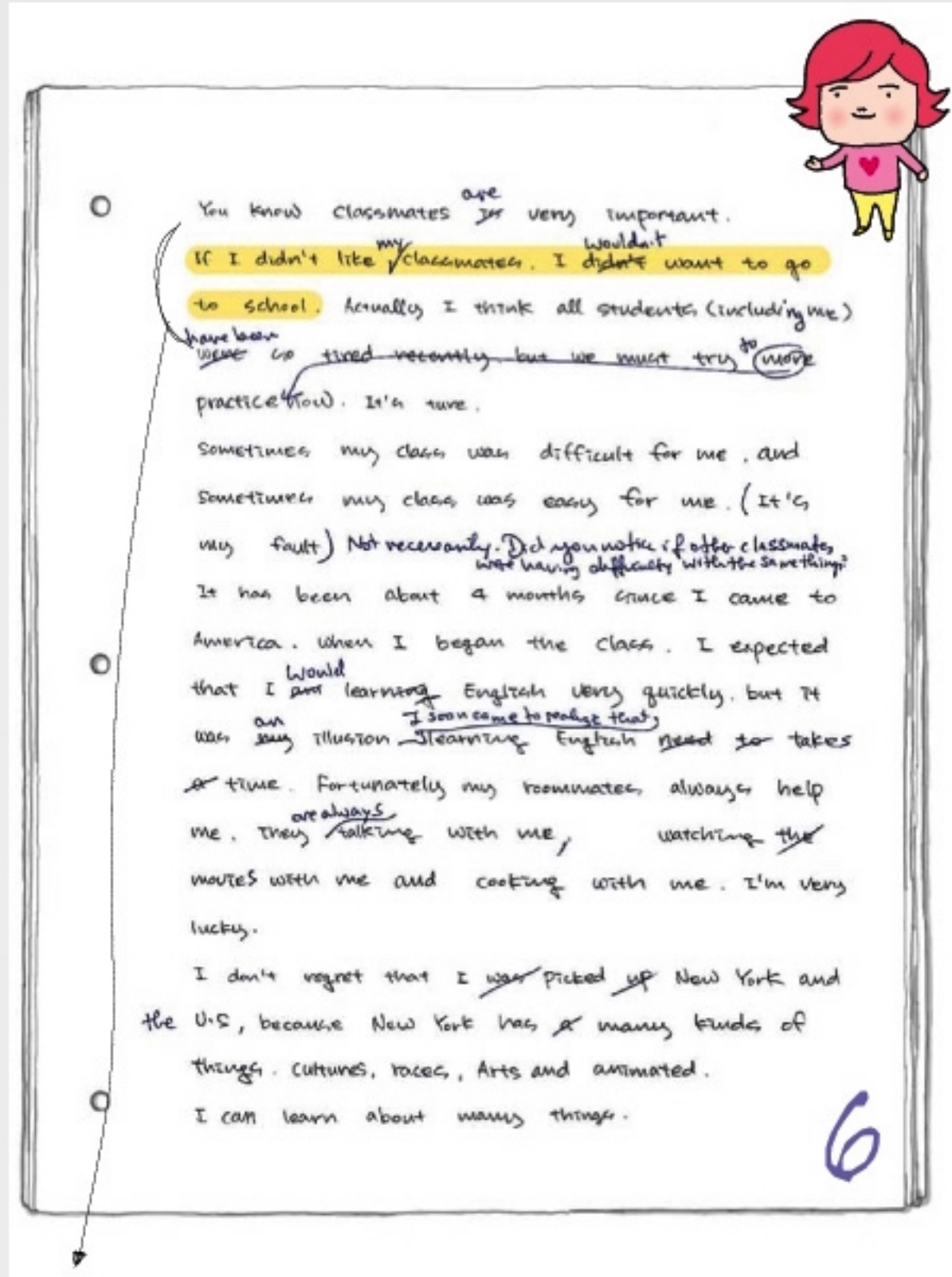


I had been a university student for four years.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당시 경험 씨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이 문장의 기준 시점은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박경림은 4년 동안 대학생이었다는 뜻.)

또 첫 번째 문장은 완료시제보다는 단순과거 시제가 적절하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떤 전공을 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Last year I graduated from my college. I majored in Media Art & Entertainment.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과거'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쓰이는 문형이다. 우리는 가정법 과거의 문형을 다음과 같이 공식처럼 외웠다.

If 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could/should/might
 + 동사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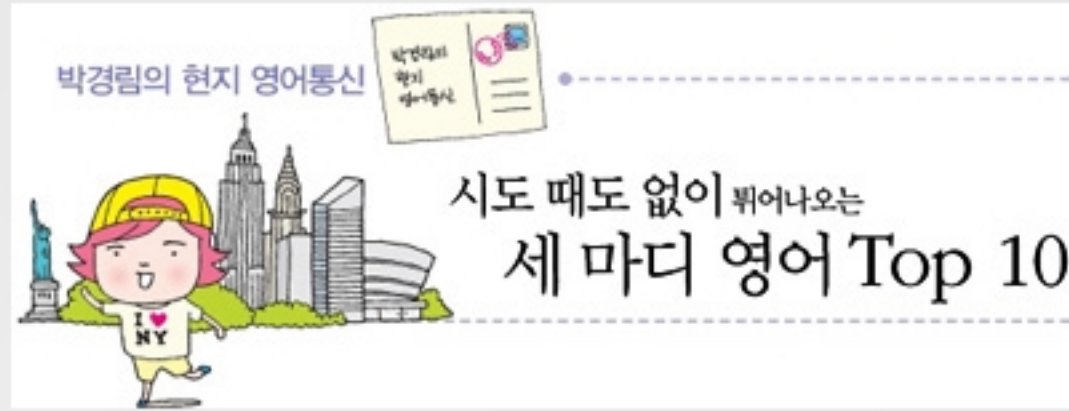
'법'을 뜻하는 영어 mood는
 '기분이 아니라'
 mode(양식)이라는 말에
 기원을 둥니다.

즉 '법'이란 서술 방식을 의미하
 는 것이지요. 영어의 서술 방식
 은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
 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조건문은 직설법에 해
 당되며, 가정법 문장은 사실과
 상반되거나 관계없는 화자의 '생
 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순조
 건문과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공식에 단어를 대입시켜 문장을 만든다는 발상
 은 참으로 어이없다. 공식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이기 때
 문이다. 공식은 말의 패턴을 도식화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가
 정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표 문장 몇 가지
 를 입에 완전히 배도록 암기하는 것이다. 아래는 가정법 과거
 의 대표 문장들이다.

-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내가 너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 '가정법의 조건절에서 1인칭 단수 be동사는 was가 아니라 were이다'라는 문법 항목
 을 외우지 말고, 위의 문장을 외워 버려라.
- I wish you were here. 내가 여기 있으면 좋으련만
- 역시 'wish' 동사 뒤의 종속절은 가정법을 쓴다'라는 문법 지식보다 'I wish you
 were here.'를 외우자. 이 문장은 펄크 폴로이드라는 그룹의 유명한 노래 제목이다.
- She looks as if she were indifferent to me. 그녀는 정말 내게 무관심한 체한다.
- 관심이 없다는 듯 세침 때는 여자를 머릿속에 그려 보면서 이 문장을 큰 소리로 중얼거
 려 보자. '가정법'이라는 단어에 구애받지 말자. 상황을 떠올리며 영어로 말하는 것
 이 중요하다.





언어는 사전만으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흔히 "아~ 열받아, 뚜껑 열려"라고 말하는데, 이때 열, 뚜껑이 사전에서 말하는 그 '온도'나 '냄비 뚜껑'을 말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요즘 '후비고~'로 한창 뜨고 있는 "Here we go!" 같은 표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대로 "Here we go!"라고 받아들이는 게 살아가기 편할 때가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세 마디 영어도 그냥 생긴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관용 표현이다.



1 I got it!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또는 '오케바리' 등등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다. "I see."가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는 의미라면, "I got it."은 상대적으로 실행의 의미가 더 많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Dialogue

- A We have a lot of things to prepare for the concert. 콘서트에 준비해야 할 게 정말 많아.
 B What can I do for you? 난 뭘 도와줄까?
 A Bring that ladder to me, and call Jenny to come. 저기 저 사다리 좀 가져오고, 제니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B I got it. 알았어.

2 I'm really impressed! (나 감동 먹었다!)

'나 감동 먹었어', '너 천재야', '너 인간성 짱이야' 등등 남을 칭찬할 때 쓰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표현이다. 주어를 바꿔서 "You impressed me."라고 해도 오케이!

Dialogue

- A Did you make this all by yourself? 네가 이것 다 만들었어?
 B Yes. 응.
 A I'm really impressed! 감동이다 감동!!
 B Thanks. Actually, I worked hard on it. 고마워. 사실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다고.

3 I mean it! (장난 아냐!)

평소에는 젠들하지만, 경우에 따라 따끔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I mean it!"이라는 표현이 제격이다.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냐!'라는 강한 모습이 엿보이는 표현! 물론 '정말이야!'라는 절박함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다. 참고로 not이 들어간 "I didn't mean it."은 '고의가 아니었어요'란 뜻이다.

Dialogue



- KATY : Clean up all the mess, right now. 어질러 놓은 거, 당장 치워.
 GREG : Hey, I'm really pressed now. I have to go right away. 이봐, 나 지금 진짜 바빠. 당장 나가야 한다고.
 KATY : I mean it! 농담 아냐!
 GREG : Give me a break, please! 좀 봐줘라, 응?

4 If you want! (좋을 대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f you want!"인데, 이 표현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당신이 원한다면'이고 속뜻은 '난 상관없으니까 니 맘대로 하세요' 정도 될 것이다. "Yes!"나 "Of course!"대신 써먹으면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다. 아마.

Dialogue

- A These are very pretty rocks. 이 돌 정말 예쁘네요.
 B I found them in China. 중국에서 주웠어요.
 A Can I have one? 하나만 가져도 돼요?
 B If you want. 원하시면 물론이죠.

5 I gotta go. (나 가야 해!)

'I gotta~'를 원상복귀하면 'I have got to~'다. 이게 줄어서 'I've got to~'가 되고, 또 발음하는 대로 편하게 적다 보니 'I gotta~'로 짧아진 것인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I have to~'란 말이 좀 격식을 차린 것 같이 들려서 그런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I gotta~'가 주로 쓰인다. 모양은 완료형이지만 무늬만 그런 것이고 뜻은 그냥 'I have to~'나 마찬가지다.

Dialogue



KATY : I gotta go, now. It's already nine thirty. 나 지금 가야 돼. 벌써 9시 반이야.
GREG : Come on. The night is still young. 에이, 아직 초저녁인걸.
KATY : Still young? No kidding. 초저녁이라고라? 말도 안 돼.
GREG : Okay, take care, then. 알았어. 그럼 잘 가.

6 I appreciate it! (정말 고마워!)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전하려 할 때는 "Thank you."보다는 이 말이 제격이다. "Thank you."는 왠지 성의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 좀 더 고마운 마음을 강조할 때는 really에 힘을 싣꽂 줘서, "I really appreciate it!"이라고 말하면 오케이!

Dialogue

- A You've done a lot of cleaning lately. 요즘 너 청소 많이 한다.
B It needed to be done. 해야 했는데, 뭐.
A I appreciate it. 고맙다.
B Sure, no problem. 뭘, 고맙기는.

7 Here we go! (자, 그럼 시작하자!)

"Here we go!"는 문자 그대로 보면 '여기에 우리가 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미는 '자, 이제 시작하자'라는 의미다. 이와 비슷한 영어로 "Here you go!"가 있는데, 뜻은 완전히 다르다. "Here you go!" 또는 "Here it is!" 하면 '자, 여기 있습니다'

다' 하는 표현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점 같은 데서 주문한 음식을 내놓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Dialogue

- A Did you check up the engine? 엔진 점검 다 했어?
B Of course I did. 응, 다 했어.
A Great! Let's hit the road, then. 좋아! 그럼 출발하자.
B No problem! Here we go! 좋아! 자, 간다.

8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

Hi, Min-soo! Hi, Jane?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우리가 중학교 때 입에서 비늘이 돌도록 외운 표현! 근데 난 뉴욕에 와서 단 한 번도 "Fine, thank you, and you?"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인사를 할 때는 주로 "How's it going?" 또는 "How're you doing?"이라고 한다. 하우짓고잉? 하유두잉? 오케이?

Dialogue

- A Hi. How's it going? 하이. 어떻게 지내?
B Just fine. 뭐, 그럭저럭.
A Is anyone else coming? 누가 또 오는 거야?
B I don't know. 모르겠는데.

9 Take it easy! (쉬엄쉬엄 해!)

누군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남겨 두고 갈 때 쓸 수 있는 말이 "Take it easy!"다. 이 때는 "Don't work too hard." 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고해, 그럼' 정도? (해석하니까, 정반대 표현이 나온다!) '서두르지 마', '쉬엄쉬엄 해라', '너무 긴장하지 마' 등등 두루두루 쓰인다.

Dialogue

- A I feel butterflies in my stomach. 나 긴장되서 속이 울렁거려.
B Yeah, I understand. It's your first audition, right? 그래, 이해된다. 이번이 처음 오디션이잖아, 그치?
A Oh my god. My hands are trembling. 엄마야! 손까지 떨려.
B Take it easy. You can make it! 너무 긴장하지 마. 넌 잘할 거야.

10 No big deal! (물론 해주지!)

곤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아주 믿음직스럽게 해줄 수 있는 말이 "No big deal."이다. 이런 경우 "No problem, I can handle it." 등등 써먹을 수 있는 말이 많지만, 미국인들은 흔히 "No big deal"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 때로 "No big deal"이 '물론이지'가 아니라 '그게 뭘 대수야?'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으니, 상황 봐서 눈치껏 이해하자.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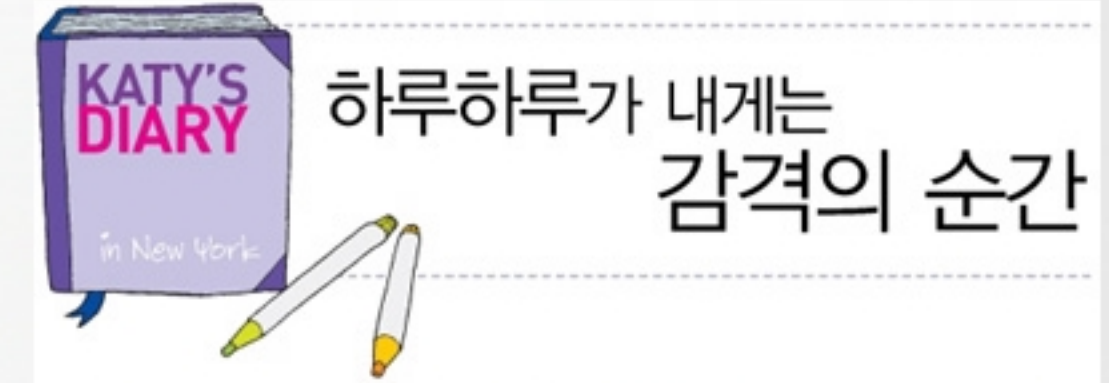


GREG : Can you do me a favor? 좀 도와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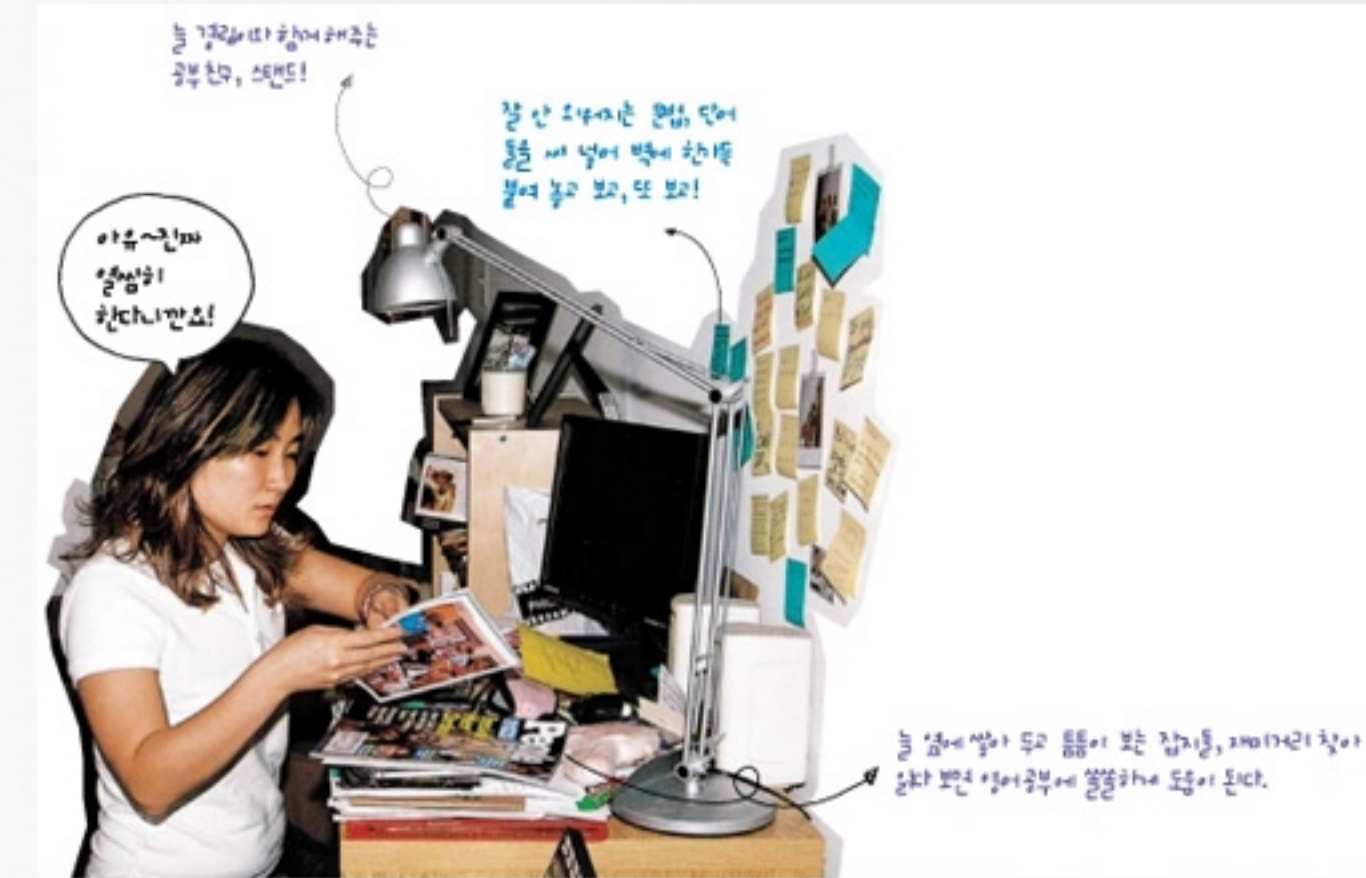
KATY : Sure. What's that? 그래, 뭔데?

GREG : Please come over and set up my new laptop computer. 여기 와서 내 새 노트북 설치 좀 해주라.

KATY : No big deal! 물론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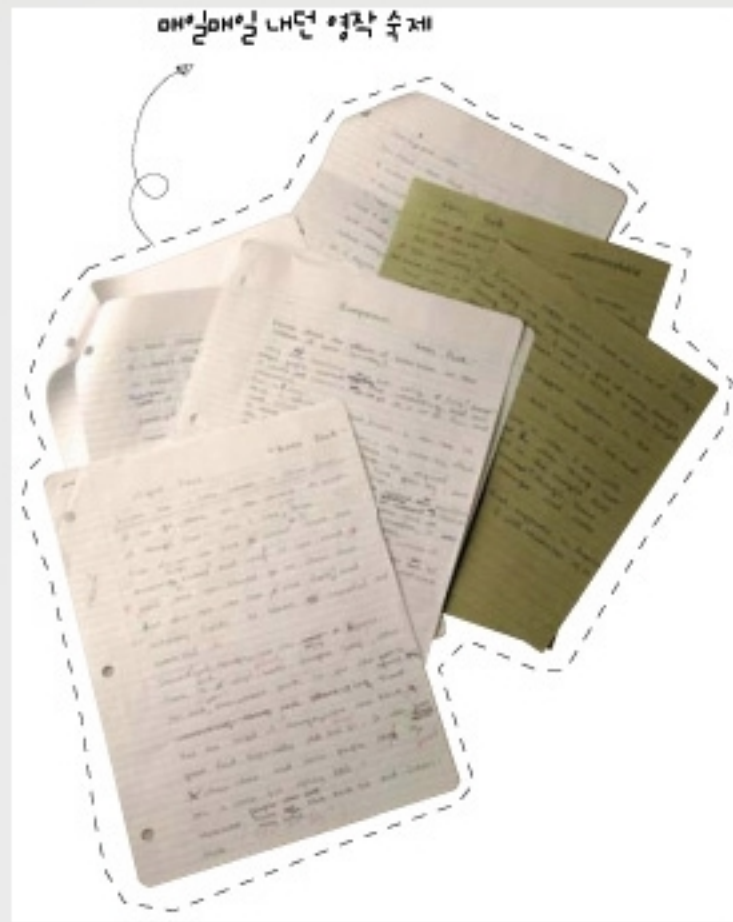


생각만 해도 한숨만 나오는 문법들, '이젠 알겠구나' 했는데 다시 보면 또 아리송하기만 한 문법들, 내 답을 잘도 피해 다니는 문법들, 써먹어 보려 하다가도 금세 포기하게 되는 문법들... 이런 문법들이 왜 이렇게나 많은 건지!



여기 어학원에 다닐 때, 솔직히 가끔은 문법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다. 수업 시간에 말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치면 그 친구들은 원리원칙 따져서 정답만 착착 골라 척척 써내니 부러울 수밖에. 특히 우리 한국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문법 시험은 늘 앞자리를 다했다.

그렇다면! 아! 그렇다면 나는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가? '경림아! 너 무 자포자기하지 말자, 그래도 너 여기 오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그때를 생각해 봐. 너 여기 오기 전에는 '문법'이 영어로 Grammar인지도 몰랐잖아.'



그러고 보니 내 첫 학교인 엠버시랭귀지스쿨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당신 담임 선생님께서 한번은 나를 부르시더니 "케이티는 그램머가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당시 영어 실력으로 보아 '그램머grammar'란 단어의 뜻을 알 턱이 없었던 나는 내가 '글래머glamour'가 약하다'란 말인 줄로 알고 착각해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만 해도 나는 5형식도 늘 헷갈렸고, 완료시제가 어떤 때 쓰이는지, 관사는 왜 붙이는지, 사역동사가 뭔지, 현재분사랑 동명사가 어떻게 다른지, be동사랑 일반동사랑 왜 함께 쓰면 안 되는지, 불규칙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다.

'정말 이걸 장족의 발전이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내서, 아자 아자 아자!'

처음엔 내 문법 지식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문법을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야'라며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분명히 인정하게 된 사실이 있다.영문법을 포기하면 영어 실력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로 작용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듯이, 영문법 또한 그것들을 관통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서 지금 수준에서는 때려 죽여도 이해가 안 가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영문법 역시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고 있다.

내가 이 문법 사항들을 언제 완전히 정복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이다.어차피 나중에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건 평생 내 것이 되는 거니까 항상 머릿속에 보관해 두겠다는 마음으로 복습, 또 복습하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 영어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감격도 그만큼 크다. 현재진행형과 수동태를 헷갈리지 않고 쓰기 시작했을 때나, 의문문에서 헤매지 않고 척척 골라 쓰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yes와 no를 구별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하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은서진규선생님의 소개로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갔던 할머니 댁에서 경험했다. 그 할머니께서, 내 영어가 자연스러워서 내가 한국에서 영어 배우러 온 학생인지 몰랐다면서 놀라며 말씀하시던 순간 나는 너무나 기뻐다.



사실,지금도 하루하루가 나에게겐 감격의 순간들이다.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귀에 쏙히기 시작할 때, 영어로 전화하는 게 편하게 느껴질 때, 친구들과 한참 대화를 하다가 '엇, 지금 내가 영어로 말하고 있지' 하고 깨달을 때..., 이럴 때마다 영어의 바다에서 몇 안 되는 생존 장비를 가지고 용케 항해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그런 날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다.

글쎄, 이런 기분인가 보다. 이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공부건 일건 사랑이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확인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어쩔 우리가 사

는 이유도 인생이 가져다 주는 이런 감격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박정림이 추천하는 뉴욕의 맛집



뉴욕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식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식점이 많고, 또 그만큼 세계적으로 소문난 맛집도 많다. 매년 1월 말부터 2월 초 일주일 동안 restaurant week라고 해서 단돈(!) 20달러에 3코스 점심 세트메뉴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는 음식점의 천국인데, 내 나름대로 best라고 꼽은 곳들을 소개한다.

01 Magnolia Bakery

형형색색의 화려한 케이크가 가득한 진짜 맛있는 빵집. 기가 막힌 컵케이크, 예술적인 디저트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다. 여기 빵 한번 먹으면 중독된다.

→ 401 Bleecker St. Broadway
tel 212-462-2577

04 Gray's Papaya

돈 없고 술술할 때 뉴요커는 빈대떡이 아니라 핫도그를 먹는다! 맨해튼에서 가장 싸고 맛있는 핫도그집.

→ 402 Sixth Ave.
tel 212-260-3532

06 Union Square Cafe

뉴욕의 여파들이 즐겨 가는 '악간' 부럽스런 레스토랑. 그릴 소스가 아주 특하다. 예약 필수.

→ 21 East 16th St.
tel 212-243-4020



02 Corner Bistro

이곳에 오기 전까지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나는 이곳의 햄버거를 먹은 후 햄버거광이 되었다.

→ 331 W. Fourth St.
tel 212-242-9502

05 Gotham Bar and Grill

<뉴욕 타임스>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베스트 레스토랑. 비싸지만 그만큼 훌륭한 가치가 있다. 예약 필수!

→ 12 East 12th St.
tel 212-620-4020



03 Saigon Grill

"I'm Korean!" 사건(182쪽)이 있었던 바로 그 음식점. 환상적인 맛, 저렴한 가격, 뉴욕시 어디든 신속배달이 특징이다. 그중 45번 메뉴는 강추!!

→ 1700 2nd Ave. (corner of the 88 St.)
tel 212-996-4600



자유의 여신상

백터리파크

브루클린 다리

07 Blue Water Grill

재즈와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야외 테크에 차려진 테이블이 분위기 만점이다.

→ 31 Union Square West
tel 212-675-9500



08 Two Boots Pizza

유럽식 피자와는 또 다른 뉴욕 스타일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 바삭바삭한 도(dough)와 토핑이 끝내준다. 뉴욕에만도 자점이 많음 군데나 있다.

→ 74 Bleeker St.
tel 212-777-1033



09 Miss Mamie's Miss Mau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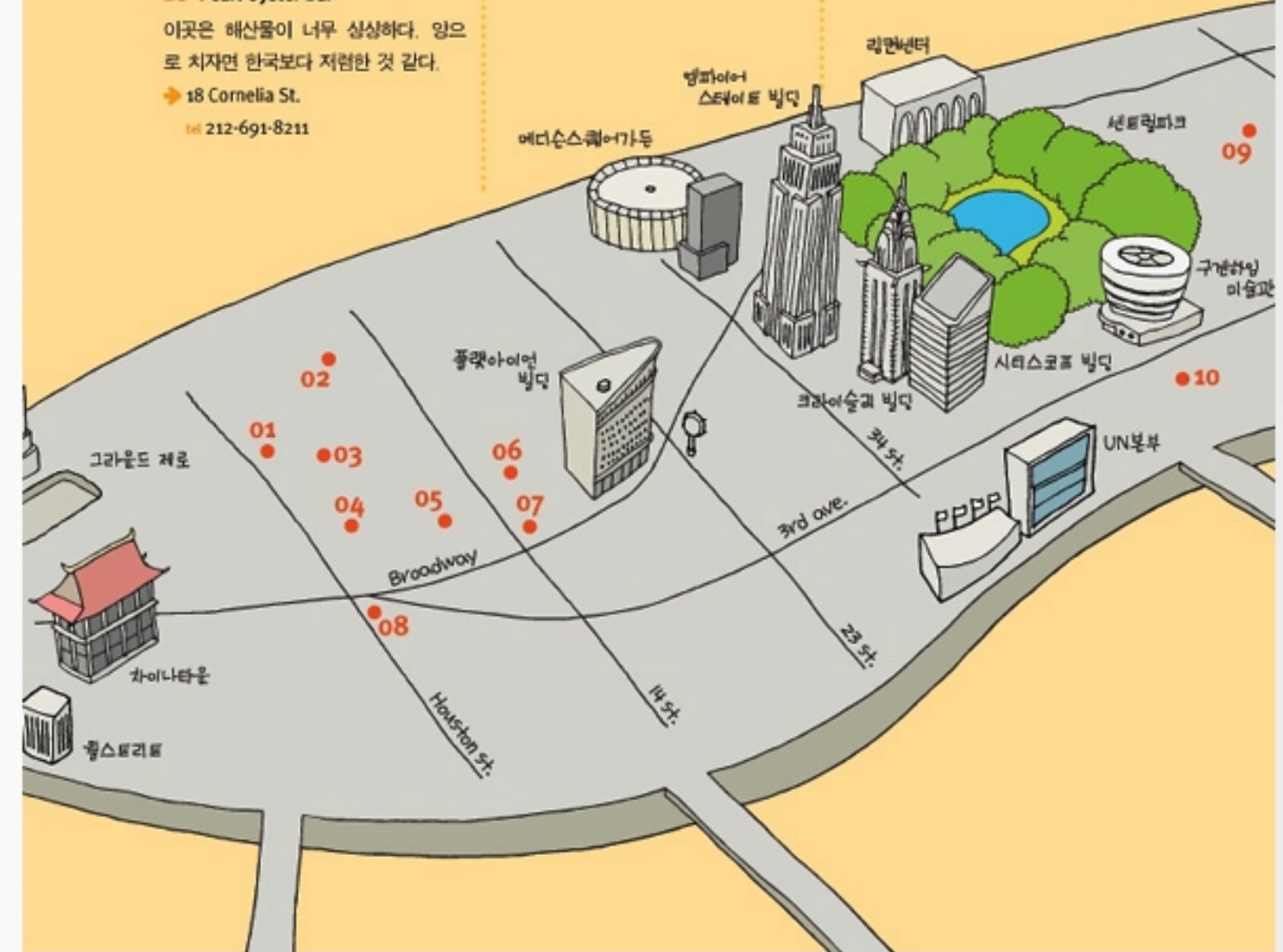
함께에 위치한 흑인 음식(soul food) 전문점. Chicken n' Ribs는 손가락을 쪽쪽 빨며 먹을 정도로 맛있다.

→ 547 Lenox Ave.
tel 212-690-3100

10 Pearl Oyster Bar

이곳은 해산물이 너무 상상하다. 양으로 치자면 한국보다 저렴한 것 같다.

→ 18 Cornelia St.
tel 212-691-8211



간단한 문장이면 어떤가.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다는 것이다.
처음엔 한 줄이라도 좋다.
그러면서 조금씩 쓰기에 적응이 되면 한두 문장씩 늘려 가면 되지 않을까
자신을 갖고 하루에 새로운 단어 다섯 개만
추가한다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쓰자.

킬킬킬...
독서는 즐거워~



Reading & Writing

CHAPT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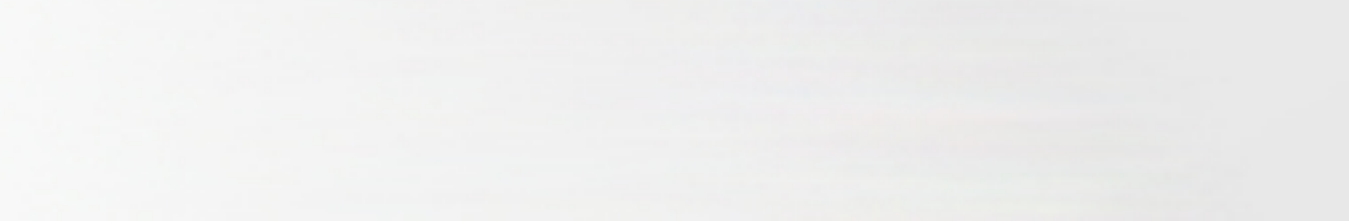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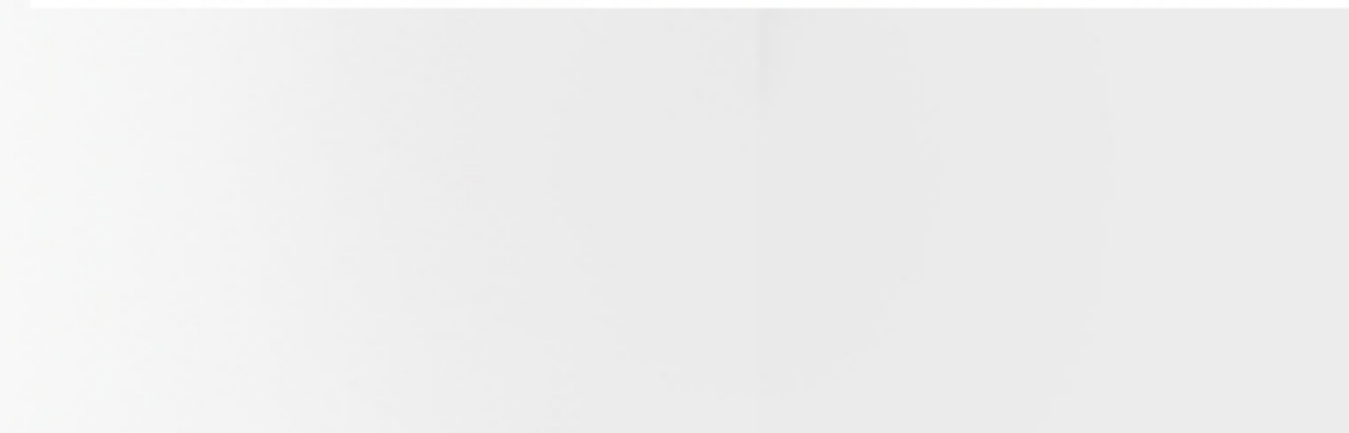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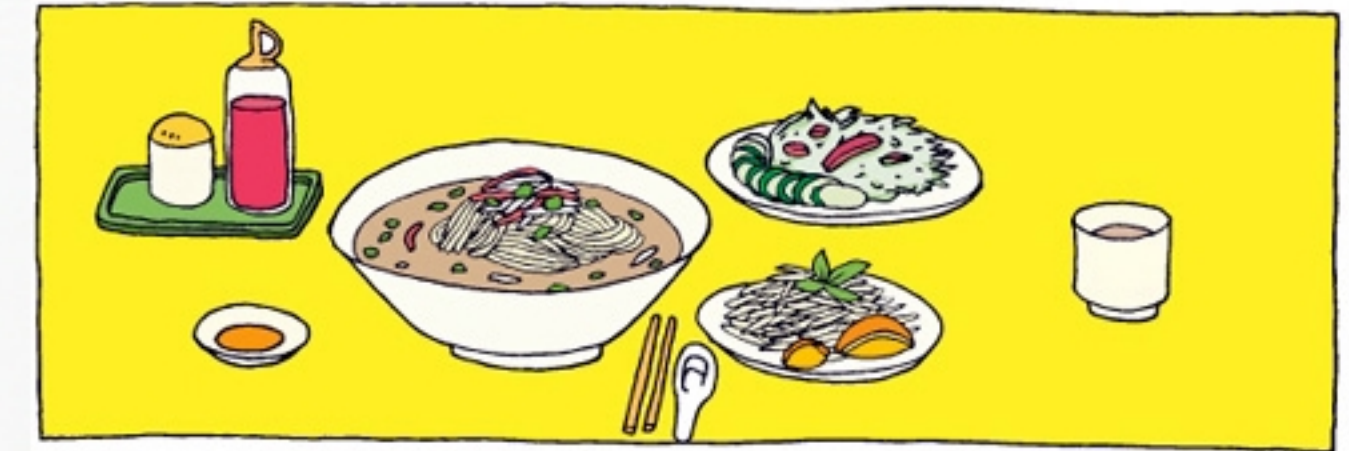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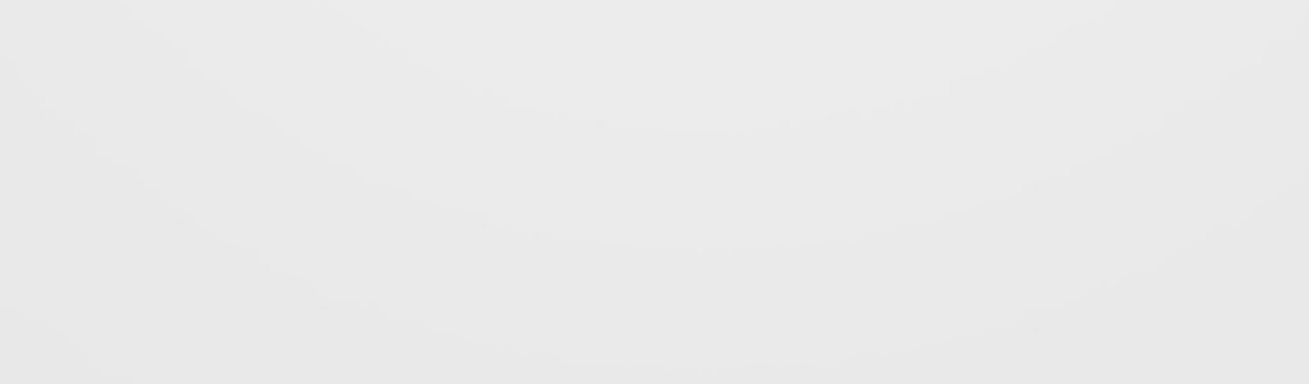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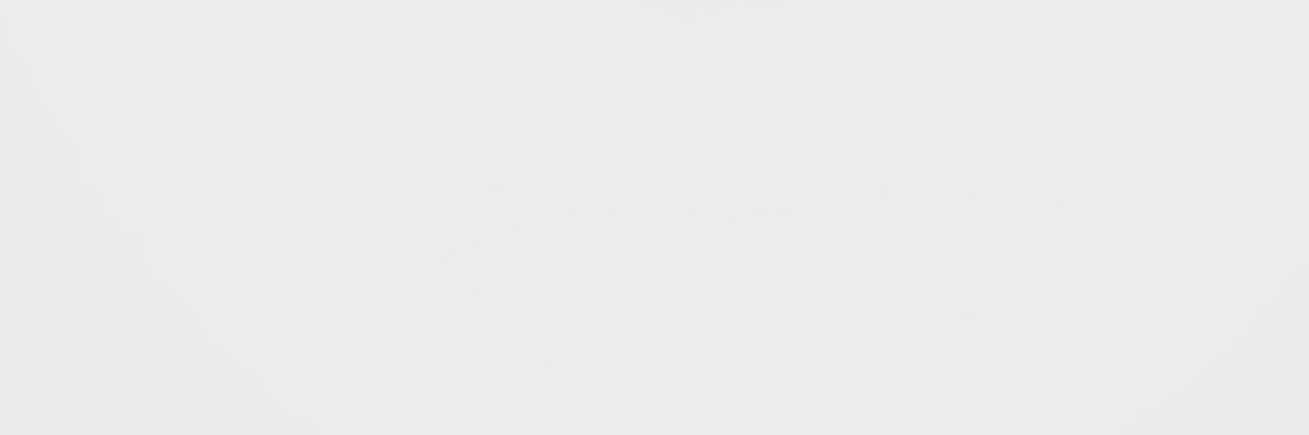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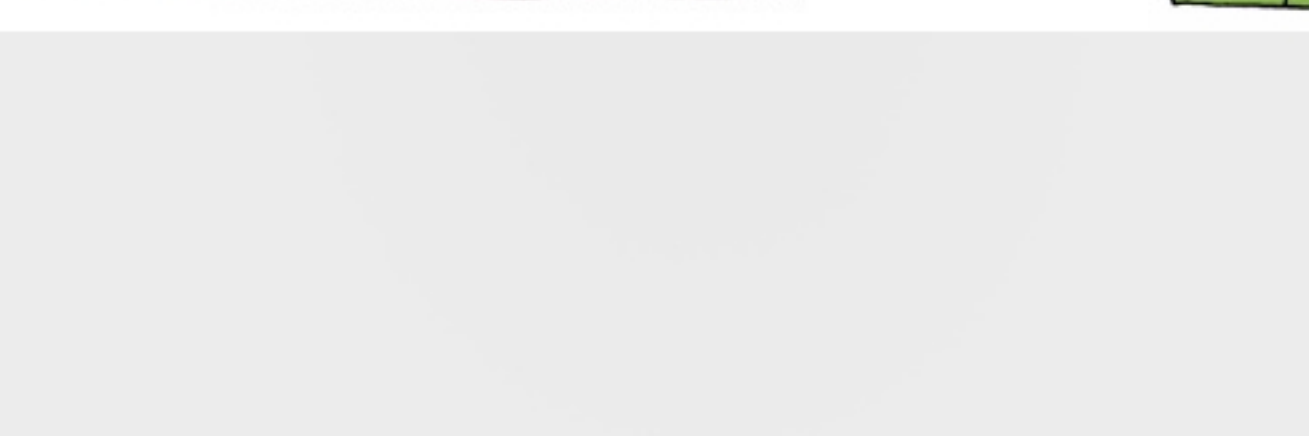
쓰기는 쉽게,
읽기는 재미있게

● **英語 과답 182** Are you a vegetarian? No, I'm Korean!!! ● **효과 쟁점 나의 영어 학습법 186** 읽기와 쓰기,
하루도 빼먹지 말자 - 단 한 줄이라도 매일 쓰자 _ 독서로 어휘와 문법을 동시에 잡는다 _ 사전은 소심책처럼 읽자 ● **백선엽의**
영어 Clinic 198 처음부터 영영사전으로 시작하라 - 시작도 끝도 영영사전이다 _ 영영사전 학습법 3단계 ● **박경림의 현지**
영어통신 208 날마다 입이 달도록 쓰는 일상 표현 10개 ● **Katy's Diary 212** 〈Sex And The City〉 촬영 현장에서

Are you a vegetarian?
No, I'm Korean!!!



오늘은 좀 참피한 이야기를 해야겠
습니다. 때는 비아호로 저의 미국생
활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던 어
느 날, 장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점인 Saigon Grill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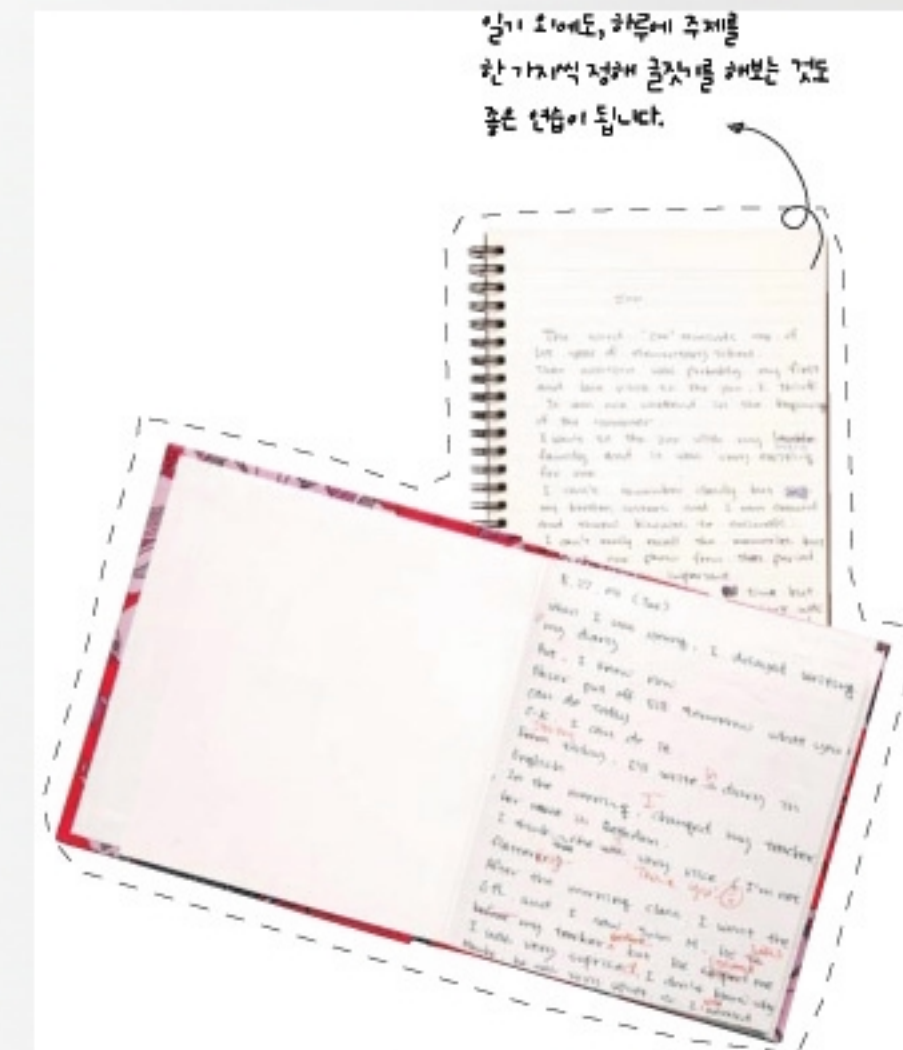




'일기 쓰기'라고 하면 영어든 한국어든 엄청난 부담부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 이 일기라는 녀석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동시에 가장 원수 같은 존재였다.



일기와의 모진 인연은 학창시절 아버지로부터 빨래판으로 맞았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바야흐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올 오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학창시절 워낙 우등생이었던(?) 우리 남매는 개학을 하루 남겨 놓고 한 달 간 밀린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올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가시려고 우리가 있던 방문을 여셨고 (단칸방에서 시작해 돈이 생길 때마다 방을 하나씩 이어붙인 집이라서 약간 이상한 구조였다. 화장실에 가려면 우리 방을 통해야만 했다) 괜히 죄의식에 찔렸던 우리 남매는 온몸으로 일기장을 가렸다. 앵무새 온몸으로 울었다도 아니고 참... 여하튼, 우리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신 아버지는 뭐냐고 물으셨고 우린 그냥 책이라고 대충 둘러댔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 아버지는 고함을 치셨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그러자 한 달 전 날짜가 쓰여 있는 일기장이 드러났고, 그것을 보신 아버진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우리 둘을 화장실로 끌고 가 순간 눈에 띄는 빨래판으로 우릴 가격(?)하셨다. 그 덕에 우리 얼굴엔 빨래판 자국이 빨갛고 선명하게 새겨졌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날을 새워 한 달치 일기를 모조리 써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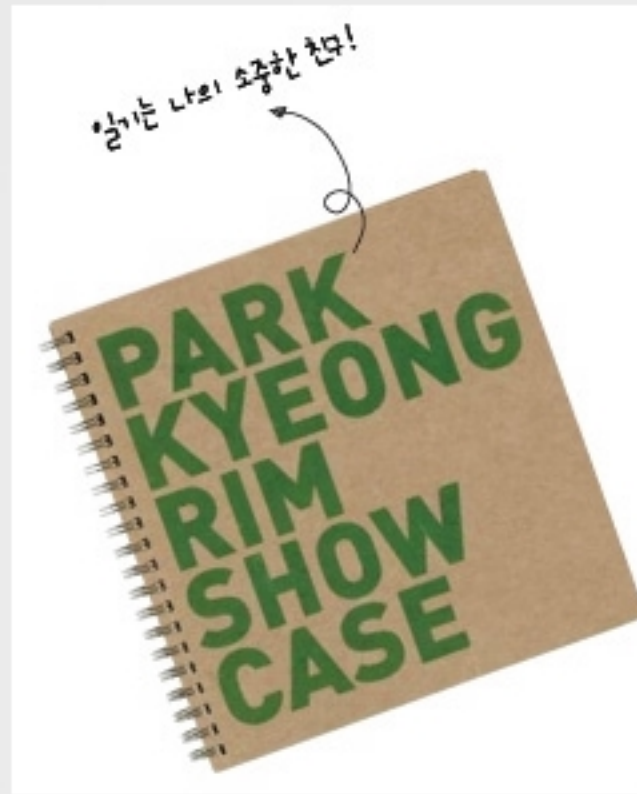
그렇게 숙제 검사 받듯이 쓰기 시작한 일기.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자아성찰, 이성문제 등등이 일기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처음 몇 장만 빼곡히 채워지다 어느새 일기장은 책장 구석에 처박혀 잊혀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뭔가 중대한 인생 계획을 세우는 날이면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또 새 일기장의 몇 페이지가 채워지고, 그러다가 또 잊히고, 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다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이나마도 뜸해졌다. 일기를 쓰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빠듯하고, 스케줄 노트가 겨우 일기장을 대신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숙제로 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짧게 쓰려고 일부러 작은 사이즈의 노트를 사는 꾀를 부려 가며 억지로 시작한 영어 일기 쓰기.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하고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

하나 단 한 줄이라도 매일 쓰자

사실 일기라는 거 뭐 별거 없다. 그날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정리하는 게 일기 아닌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날그날 뭘 했는지 쓰는 게 일기의 전부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단순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쓴 건데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초딩 때 일기장을 꺼내 보면 순 어디 갔었고, 뭐 먹었고 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 쓴 일기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아니 처음엔 정말 초등학교 일기보다도 못했다.

"오늘은 참 기쁘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내일도 먹고 싶다"라든지, "오늘은 서점에 갔다. 그곳엔 책이 참 많았다. 나도 책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또는 "오늘은 숙제가 많다. 그래서 걱정이다. 하지만 난 할 수 있을 거다" 등등. 정말 초등학교 1학년생의 일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내가 쓴 영어 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뭐든지 단계가 있는 법!!! 처음엔 문장 하나 만들기도 힘들고 단어 하나 생각해 내기도 힘들지만 매일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이 자주 쓰는 단어도 알게 되고 동사 변화나 새로운 단어에 대한 시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쓰는 거다. 단 한 문장일지라도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조금씩 일기 쓰는 것에 적응이 되면 한두 문장씩 늘려 가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처음엔 먼저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옮겨도 좋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이 일단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실 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쓴다고는 쓰는데, 아직도 매일 틀린다. 시제 선택에도 문제가 많고 단어 선택에도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사실 한글 처음 배울 때도 일기 쓰라 그러면 받침 다 틀리고 말이 안 되는 문장 쓰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 자신을 갖고, 하루에 새로운 단어 다섯 개만 추가한다는 심정으로 글을 쓰자. 일단 나와 관련된 일이니까 주제는 자유롭고 편하지 않은가. 다음은 2003년 5월, 내가 일기장에 쓴 한 줄의 문장이다.

I went to a restaurant with my friend.
It was so delicious. 나는 내 친구와 식당에 갔다. 정말 맛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일기다. 사실 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주어·동사·목적어 같은 문장 요소들도 생각해야 하고, 관사는 어떤 걸 써 줘야 하는지 등등을 다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기는 이미 있었던 일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 줘야 한다. 과거형 동사는 지금까지도 실수를 자주 하는 부분인데, 쓰다 보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과거형 문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런 한 줄짜리 일기는 어떤가?

I'm so happy now because I'm writing in English now. 난 지금 넘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English is very difficult. So, I want to stop.
영어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만 써도 된다. 미국에선 '일기'를 journal이라고 하는데 journal의 주제는 하루 일과부터 특별히 재미있었던 사건, 또는 자신의 심리 상태 등 뭐든 가능하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일기를 쓴 후에는 꼭 다시 한 번 읽어 보는 게 좋다. 쓸 때는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며 썼는데,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간단히는 틀린 철자도 눈에 들어오고, 틀린 문법도 눈에 들어온다.

말도 자주 해봐야 늘듯이 글이라는 것도 자주 써 봐야 느는 게 분명하다. 자아, 지금부터 일기장 하나 장만해서 겉표지에 'JOURNAL'이라고 딱 써 놓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영어로 일기 쓰기를 시작해 보자. 사실 영작writing이 따로 있나? 일기 한 줄 한 줄이 합쳐지면 그게 영작이지. 영어 일기, 절대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처음부터 좋은 친구로 만들길 바란다.

☀ 독서로 어휘와 문법을 동시에 잡는다

이상하게도 여기서 나의 목소리나 얼굴형에 대해서는 극히 정상으로 보는데 나의 영어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생각한다. 다른 한국 학생들이 잘하는 문법이나 어휘는 뒤 떨어지고, 한국 학생들이 자신 없어 하는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잘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나의 특수 상황 때문에 나는 특히 문법이나 단어 공부에 많은 투자를 해야 했다.



그런데 문법을 공부하겠다고 문법책만 들입다 파는 것은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무조건~ 영어책을 읽는 것!! 이유는? 문법 공부가 저절로 되면서, 어휘도 확실히 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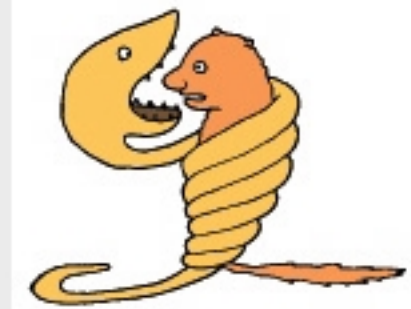
쉬운 영어책(재미있으면 더 더욱 좋은)을 읽는 것만큼 어휘와 문법을 한번에 잡는 기막힌 방법은 없다. 게다가 단어뿐만이 아니라 독해와 문법, 그리고 작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어렵고 두꺼운 책을 골랐다가

다시는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처음엔 '무조건' 쉽고 재밌고 간단한 책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읽기 시작한다.



아무리 글자가 큼지막한 책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얼른 사전을 찾는다.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흐름이 끊어지면 독서가 재미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면 읽기가 싫어지고, 읽기가 싫어지면 끝까지 읽지 않고 중도하차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르는 단어는 밑줄만 그어 놓은 채 계속 읽어 나가야 한다. 독서도 흐름을 타야 하는 거다.

3.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지만 대충 눈치로 때려치요.



'고릴라 뱀이 나와 있으면 이따 뭘 뱀이 '일출' 거냐'

한 번 다 읽었으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자. 다시 읽을 때는 체크해 두었던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가면서 읽는 것이 좋다. 두 번쯤 읽으면 모르는 단어에 관계없이 책의 줄거리를 파악하게 된다. (혹시라도 두 번을 읽었는데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자기의 실력보다 어려운 책을 선택한 것이니 당장 더 쉬운 책으로 바꿔야 한다.)

자~ 이젠 체크해 둔 단어들을 추려서 모을 차례다. 이번에는 사전을 찾아 자신이 추측한 의미와 실제 의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마 거의 반타작일 텐데, 이만 해도 상당한 적중률인 거다. 모르는 걸 대충 때려맞혀서 반이나 맞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닌가?



4. 체크해 둔 단어들을 사전에서 확인합니다.

휴우! 이제 끝난 건가? 여기서 끝냈다면 진짜 끝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인 단계에서 단어 암기나 읽기를 끝내 버린다. 그러면 절대 이 단어들을 내 단어로 만들 수 없다. 진정 당신이 단어를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면!!!

5. 단어장에 단어 정리를 합니다. 이때 꼭 나만의 예문을 만드세요.



찾은 단어들을 단어장에 적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단어 암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어장에 쓸 때는 단어마다 공간을 많이 줘야 한다. 심지어 애들도 자기 방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단어라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단어장의 뒷면은 비워 놓는 게 좋다. 그래야 그 단어가 들어간 다른 예문이나 그 단어의 또 다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록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한 단어에는 수없이 많은 뜻과 용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적다간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게 되니, 우선은 그냥 책에 나오는 뜻 하나만 적어 두는 게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은 물론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예문 한 개 정도는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해서 훗날 그 단어장의 예문만 보고도 단어의 뜻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놔야 비로소 그 단어를 암기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친구 민선이가 영어 공부 하라고 사준 셀 실버스타인의 《The Giving Tree》(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해볼까? 다들 나보다 똑똑하겠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Once there was a tree...
and she loved a little boy.
And every day the boy would come and he would gather her leaves and make them into crowns and play king of the forest.
He would climb up her trunk and swing from her branches and eat apples.
And they would play hide-and-go-seek.
And when he was tired, he would sleep in her shade.
And the boy loved the tree very much.
And the tree was happy.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는 gather, trunk, branch, hide-and-go-seek, shade이다. 하지만 사전을 찾지 않고 읽어 나간다.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읽는다. 대충 뜻을 짐작해 보면,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한 꼬마 남자아이를 사랑했다.

그 꼬마는 매일같이 나무한테 왔고 (leaves가 잎이니까 잎을 따다
인자, 잎을 받았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따다'로 써서)

잎을 따고, 그리고 그 잎들로 왕관을 만들어

숲속의 왕 놀이를 했다.

그리고 그는 (climb이 '타다'니까 아마 trunk는 나무 줄기겠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았고,

사과도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hide가 '숨다'니까)

숨바꼭질도 했다.

그리고 그 꼬마는 피곤할 때면 (보통 사람들은 나무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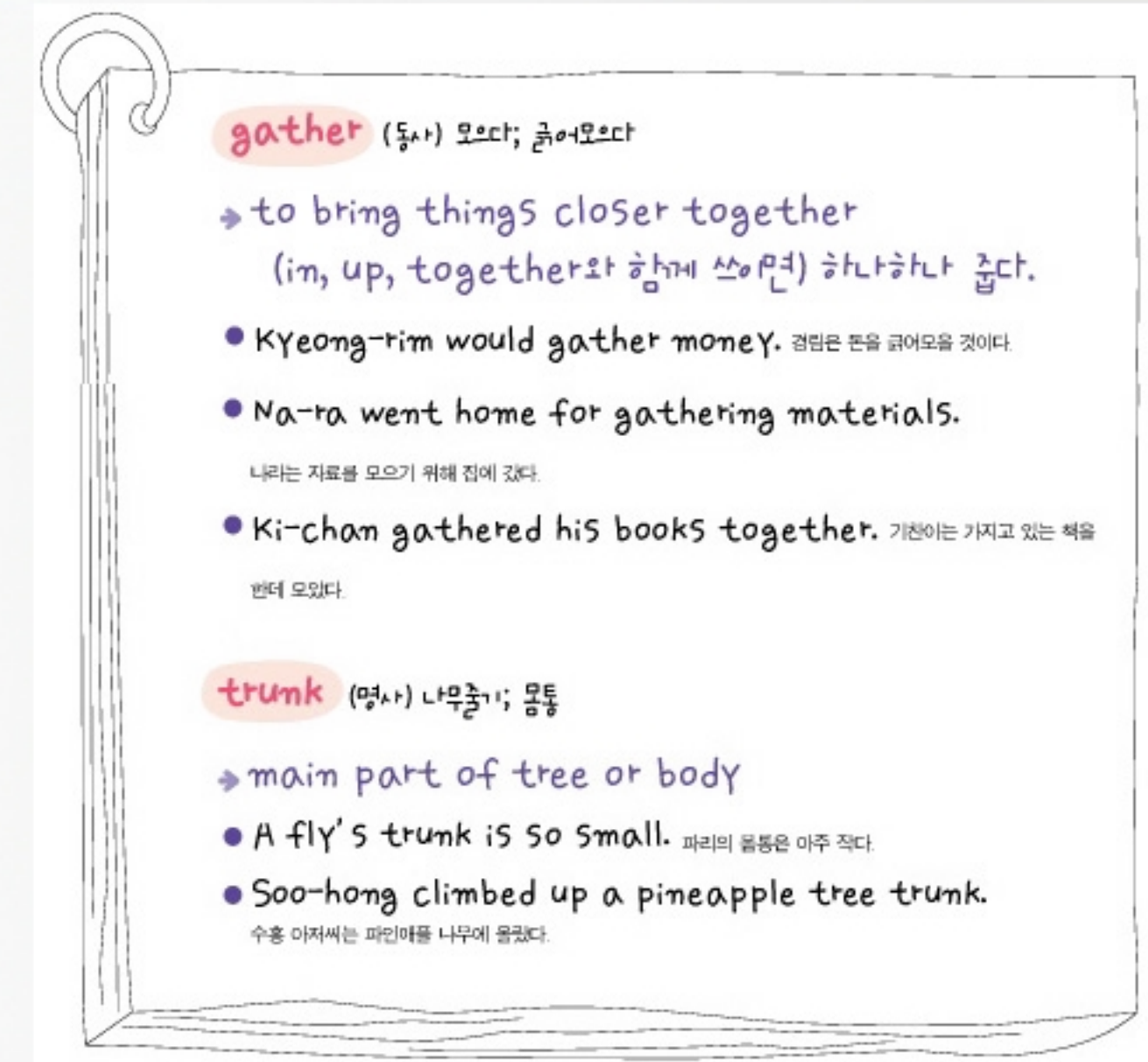
나무그늘에서 잠을 잤다.

꼬마는 나무를 무척 사랑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다.

사실 학창시절, 수업만 제대로 들었어도 이 정도 단어와 문장은 식은 죽 먹기겠지만, 솔직히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시간에 즐기거나 사생활 또는 인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수업에 충실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즐기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딱 걸렸으~.

그럼 이제는 모르는 단어를 확인할 차례다.



이렇게 단어까지 두루 섭렵한 뒤에 다시 한 번 그 책을 읽어 보자. 아마 내용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며 느껴지는 감동이 다를 것이다. 아마 큰소리로 낭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책을 읽으며 단어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아서 즐기고,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배우게 되니까 또 좋고, 많이 읽다 보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져 영어 감각이 생기니까 더 좋고, 더 나아가서 영어 작문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 대체 일석 몇 조난 말인가!.



☀️ 사전을 소설책처럼 읽자

요즘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영영사전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곤 한다. 물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곤 하는데, 이게 생각 외로 꽤 재미있다.



특히 예문을 보는 것이 쥔 재미있다.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다.

beautiful adj.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beautiful is extremely good to look at and gives you a feeling of pleasure.

- She was even more beautiful than I had remembered.
- A beautiful bunch of flowers.

해석하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기 좋아서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라는 정의인데, 설령 그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밑의 예문을 보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꽃다발'.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을 때는 영한사전을 통해 확인해 본다.

beautiful (형용사) 아름다운; 고운; (감각적으로) 기분 좋은; 쾌적한; 정신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영한사전을 통해 뜻을 확실하게 파악했다면 이제 또 한가지 할 일이 있다. 바로 한영사전에서 단어를 찾아 유의어를 살펴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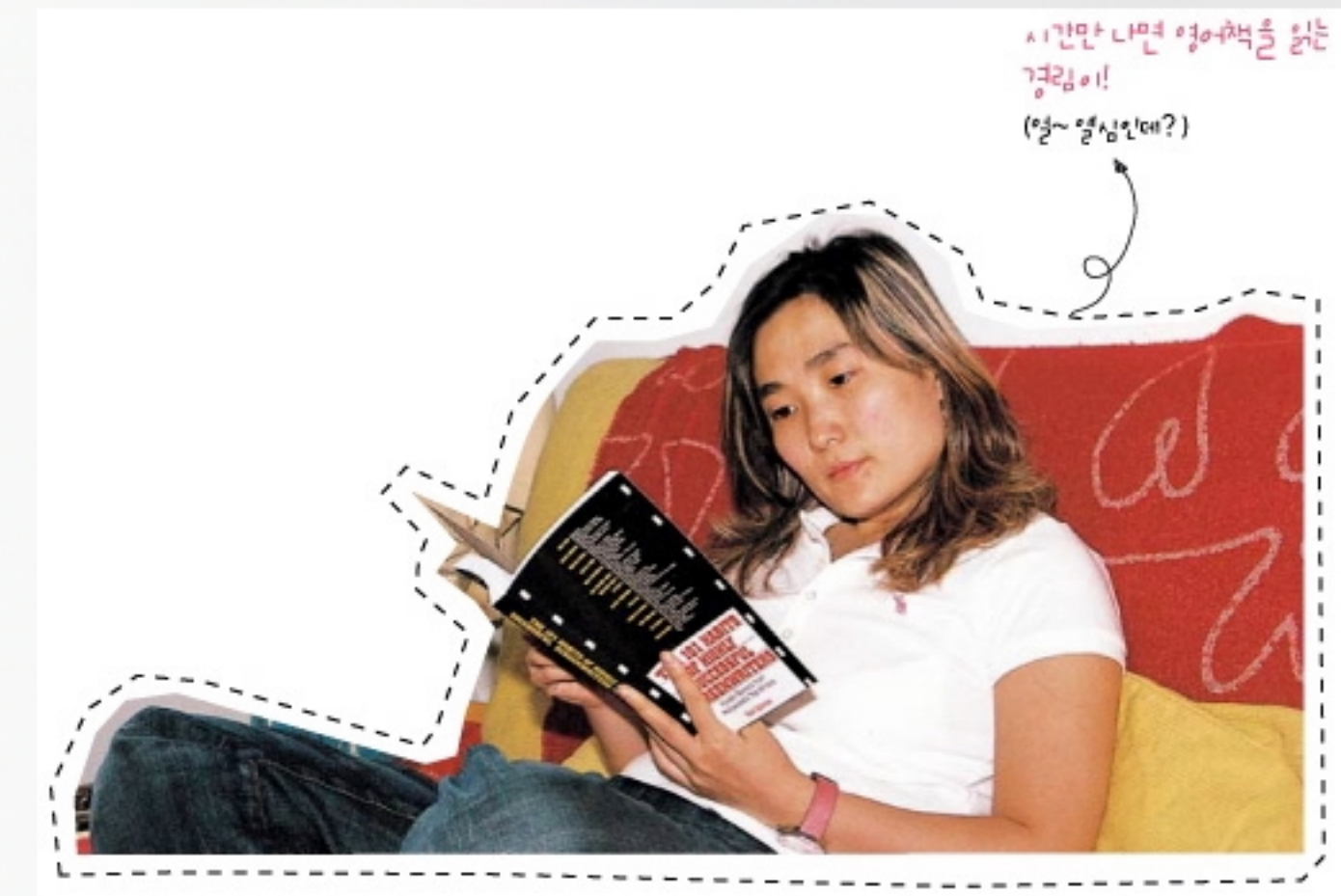
(아름답다) beautiful ; pretty ; lovely ; fine ; eye-filling ; handsome ; good-looking ; fair ; charming; comely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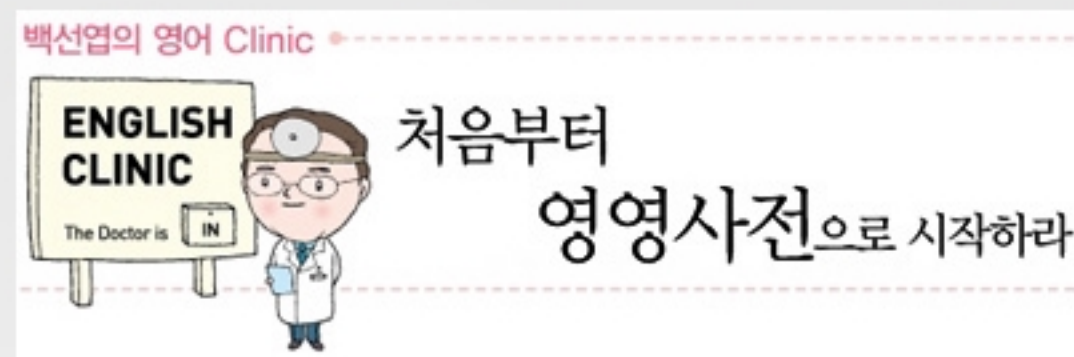
'아름답다'는 범주 안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다. 물론 각각의 의미를 찾아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비슷한 뜻을 지닌 유사어 들이다.

단,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은 확인 사살이 필요한 경우에만 참조하고, 평소에는 가급적이면 영영사전을 즐겨 보도록 하자. 정말 모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을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자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과거에는 영영사전은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을 가졌는데, 의외로 한영사전보다 더 쉬울 때가 많아 깜짝 놀라곤 한다. 사전은 설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표현

이 정확하고 간결하다. 따라서 영영사전을 자주 접하면 영어 문장력을 기르는 데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드바이스 시작도 끝도 영영사전이다

사람들은 영어공부는 역시 영영사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고 누구나 궁극적으로는 영영사전으로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영사전은 역시 어려워!'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영영사전을 한번 펼쳐 보지도 않고 초장부터 포기해 버린 사람이 전 국민의 반은 될 것이다.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약간 낯설기는 하나 처음부터 영영사전으로 단어를 공부하고 문장과 예문 만드는 연습을 하면, 별다른 교재나 특별한 학습 방법 없이도 훗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까지 의외로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영사전으로 공부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만 보아도 충분히 증명된다.

박경림 씨에게도 '영영사전을 가지고 단어를 찾고 공부를 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라며 자신 없어 했다. 그런데 지금은 영영사전을 옆구리에 딱 끼고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영어가 왕초보라고 해도 영영사전 도전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박경림 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말이다.

특히 요즘 들어 영어로만 된 쉬운 영어소설이라든지, 영어로만 된 학습교재들이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을 보면 이제는 바야흐로 영한사전이 아니라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좋은 영영사전을 추천해 달라'는 주위의 문의를 많이 받게 된다. 그때마다 내가 권하는 사전은 《Collins Cobuild Dictionary》다. 시중에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영영사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Collins Cobuild 영영사전 시리즈와 Macmillan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학습자용 사전이다.

그 중 Collins Cobuild 사전은 용례usage가 다른 사전에 비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새롭게 생성되는 미국식 영어가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예문이 풍부하고, 동사나 명사의 변화형들이 각 단어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모로 편리

하다. 또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도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Collins Cobuild 사전을 추천하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이 사전의 설명 방식 때문인데, 다른 사전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공부합니다 영영사전 학습법 3단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영어 단어 실력은 아마 세계 비영어권 나라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단어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다. 바로 단어에는 강한데,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데는 약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려면 대한민국 사람 특유의 취약한 영어 문장 체질을 개선해 영어 문장 만들기에 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바로 영영사전이다. 자 그럼, 영영사전을 교재 삼아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단계별 학습 요령을 소개한다.



제1단계 . 《Collins Cobuild Dictionary》를 구한다

하고 많은 영영사전 가운데 왜 굳이 《Oxford Dictionary》도, 《Webster's English Dictionary》도, 혹은 《Macmillan English Dictionary》도 아닌 바로 《Collins Cobuild Dictionary》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잠깐! 나는 절대 Collins Cobuild 사전의 외판원이 아니며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만 내가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를 나누고 싶은 충심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

그럼, 영어 학습자에게 Collins Cobuild 사전을 그토록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usiness라는 단어를 각각의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해 놓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business ㉠

- trade, private enterpris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 line of work, commercial organization, commercial activity (Encarta English Dictionary)
- any particular occupation or employment engaged in for livelihood or gain, as agriculture, trade, art, or a profession (Webster's English Dictionary)
- the work of buying or selling products or services for money; used for talking about how many customers or contracts a company or industry has.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자, 그럼 Collins Cobuild 사전에서는 이 business를 어떻게 설명해 놓았을까? 한번 보자.

business ㉠

Business is work relating to the production, buying, and selling of goods or services.

무슨 다른 점이 보이는가? 그렇다. 다른 영영사전과는 달리 Collins Cobuild 사전은 business를 '문장'으로 설명해 놓았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business라는 말의 의미를 문장으로 맘속에 새길 수가 있다. 즉, '비즈니스Business란 물건이나 서비스를goods or services 만들고production, 사고파는buying and selling 것과 관련된relating to 일work 이다'라는 식으로 영어 문장과 한국어 정의가 직독직해 식으로 연결된다.

business를 심플하게 '사업', '일'이라고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것? 물론, 아주 좋다. 그렇지만 business의 원초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영어로 풀어서 'Business is work relating to the production, buying, and selling of goods or services.'라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을 한다면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어의 근본적인 프라를 잡는 것이다.

요컨대 문장으로 설명된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에는 좀 더딜지 몰라도 영어 실력의 기본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이 제일 취약한,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 것이다.



제2단계 . 쉬운 단어100개를영영사전에서 찾아본다

영영사전과 친숙해지는 제2단계는 모르는 단어가 아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영영사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인 mother에 관한 질문을 해보겠다.

1. Who is your mother?

2. What is mother?

위 두 질문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1번 질문 "Who is your mother?"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아마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She is my mother."라고 해도 되고, 간단히 "Right over there."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2번 질문에 대해선 과연 몇 명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What is mother?" 어머니가 뭐냐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당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 알고 있을 뿐, 그 의미를 설명해 볼 기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아빠의 아내' '우리 할아버지의 며느리'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신과 관련해서 '어머니'를 설명한다면 영어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Mother is the woman who gave birth to me.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신 여성이에요.

그러곤 mother에 대한 자신의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My mother is really beautiful.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은 mother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mother를 이용한 영어 예문 하나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mother와 같은 아주 간단한 단어의 개념을 영영사전을 참고하여 정리하고, 말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통해 영어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 말문을 틀 수도 있다. 이렇게 영영사전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나아가 '김치'라든지 '웰빙well-being'의 뜻까지도 영영사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주위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 100개를 선정해서 그 의미를 영영사전을 통해 정리해 보고 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물론,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100개 단어의 의미를 이미 우리말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단어든 상관 없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라면 뭐든 좋다.

100단어 골라 영영사전 찾아보기

001_house

정의A house is a building in which people live.

예문I have a house in San Francisco.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집이 있어요.

002_friend

정의A friend is someone who you know well and like.

예문He is my best friend. 그 사람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003_habit

정의A habit is something that you do often and regularly without thinking about it.

예문Smoking is a bad habit. 담배 피우는 건 나쁜 습관이에요.

004_love

정의Love is a very strong feeling of affection towards someone or something.

예문His love for his family was unconditional.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005_learn

정의If you learn something you obtain knowledge through studying or training.

예문I learn to play guitar. 나는 기타 연주를 배운다.



제3단계 . 자신의 생각을 영영사전식으로 설명한다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첫걸음은 'desk = 책상'이라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제 알았을 것이다. 실제로 영영사전에서 desk란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하나하나 영어로 짚어 보는 습관을 들이는 데서 영어의 체질 개선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영영사전에는 책상desk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desk @

A desk is a table which has a flat or sloping top and often has drawers, at which you can sit in order to write or work.

풀이에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대강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다. '앉아서 일을 하거나 무엇을 쓰기 위한 상판' 정도로 개념을 정리한다. 그렇게 의미를 익힌 뒤 예문도 만들어 보고, 사전에 나온 예문을 살펴보기도 하면서 desk라는 영어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영어로 매듭짓는 것이다.

하지만 영영사전으로 영어공부를 하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desk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직접 영어로 만들어 보는 차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영어 응용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

이와 관련해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겠다. 작년에 나는 어떤 기업체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 강의에서 나는 참석자들에게 '책상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주문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참석자 대부분은 '웬 책상? 책상이 책상이지' 하는 듯한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나는 책상을 설명해 보라고 재차 부탁을 했다.

그러자 한두 마디씩 대답이 들려왔다.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책상은 네모다" "책상은 널따랗다" "책상은 공부를 하는 곳이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대답부터 나오더니 나중에는 "책상은 아버지한테 얻어터지던 곳이다" "책상은 고통이다" "책상은 꿈이다" "책상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라는 대답까지 50개가 넘는 다른 대답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책상'이라는 물건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잠시 1분 동안 각자 생각해 보자. (생각) 생각이 끝났으면 이제는 그 생각들을 꼭 적어 내려가 보자.

생각1 -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생각2 - 책상은 뭔가를 쓰기 위해 있다.
 생각3 - 책상을 보면 잠이 온다.
 생각4 - 책상은 내겐 슬픔이다.
 생각5 - 책상은 내 인생이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들을 영어로 옮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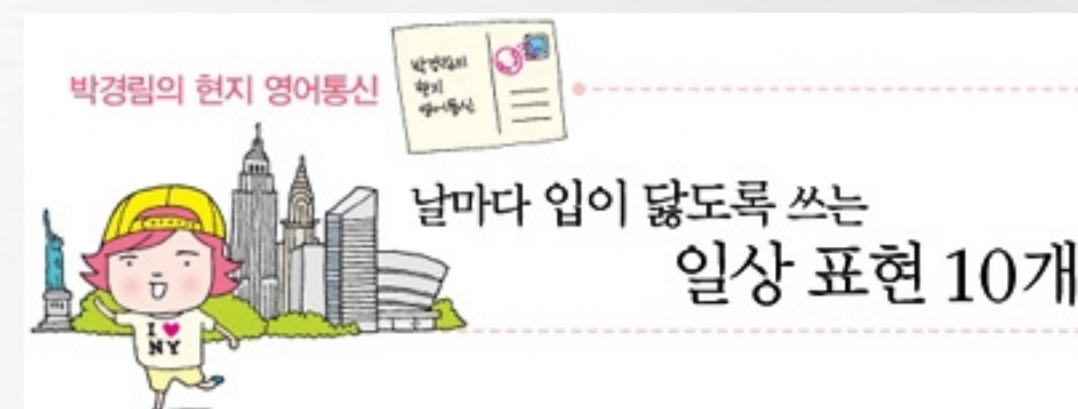
A desk is made of wood.
 A desk is used for writing something.
 Whenever I look at a desk, I feel like sleeping.
 A desk means sadness to me.
 A desk is my life.

문법이 틀려도 된다. 문장이 짧아도 상관없다. 쉬운 단어를 써도 상관없고 어려운 단어를 써도 상관없다.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외국인과의 대화 중에 desk에 관해 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단지 "A desk is a desk."로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책상에 관한 생각, 추억, 경험 등을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는가? 아마 대부분은 후자 쪽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영어에 자신이 붙을 것이다.

그럼, 이제 실전이다. 우선 쉽고 친근한 단어들을 생각해 본 다음, 영영사전을 찾아 정의를 읽고, 예문을 만들어 본 뒤,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한다. 근처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 영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함께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영영사전 공부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예컨대 chair라는 단어가 궁금하다고 하자. 1 영영사전에서 찾아본다. 설명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그 단어도 찾아보자. 2 그런 다음 국어사전에서 '의자'를 찾아본다. 3 'chair=의자'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4 그렇게 정리한 생각을 우리말로 써 본다. 5 그 생각을 문법 신경 쓰지 말고 영어로 옮겨 써 본다. 6 친구들, 또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영어 단어 설명을 발표해 보자.



한국에선 활발하던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 굉장히 과묵해지는 경우가 참 많다. 분명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진 것일 것이며, 나중에는 그게 성격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말이 그렇게도 많던 나조차 이곳에 처음 왔을 땐 말이 많이 줄었다. 일단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속으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괜히 말했다가 틀리면 무슨 망신인가 하는 생각에서 좀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어쩔다가 용기 내서 말을 꺼냈다가도 도중에 너무나 많은 한계를 느껴 포기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러다가 정말 성격까지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니깐 갑자기 확 겁이 났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는데 "네 박경림 씨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는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예? 네...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하 박경림 씨 장난 그만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경림...입니다. 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어차피 틀리면 상대방이 고쳐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막말을 했다. 수업 시간에도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곧잘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얘기하자"고 했고... 친구들과도 점점 더 많이 말을 주고받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자신감의 차이일 뿐 특별히 실력 차이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시간과 횟수가 늘면서 상대가 하는 얘기를 조금씩 더 알아듣게 되고 좀더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선 매일매일 쓰는 말이라도 자신 있게 말하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얘기는 뻔하다. 정치 얘기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얘기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몇 가지 표현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정답게 인사도 나눌 수 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입이 닳도록 쓰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1 Good! (뭐 그냥 그래.)

상대방이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다. "Very good!"이 아닌 이상 오버해서 들으면 안 된다. '그냥 그럴다'는 말이지 '억수로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2 How about you? (너는? 넌 어때?)

위 1번 질문을 상대가 먼저 했을 때 대답을 하고 나서 항상 이어서 해주는 말이다. '나 얘기 끝났으니까 너도 얼른 얘기해라' 뭐 이런 속뜻을 담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입맛에 "What about you?"가 잘 맞으면 그것으로 해도 된다. 다 같은 뜻이니까...

3 Noting much! (별일 없어.)

상대방이 "What's up?"이라고 물었을 때 하는 말로 '별일 없어' '잘 지내' 정도의 말이다. "What'up?"과 "Noting much!"는 찰떡궁합이다. 그냥 외워서 써야 한다.

4 Did you have a lunch? (점심 먹었어?)

dinner를 넣으면 '저녁 먹었어?'라는 말이 되고, 편하게 "You had a lunch?"라고 말하기도 한다. 꼭 'Did you~?' 형태로 써야만 의문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평서문도 뒤를 올려 말하면 물어보는 문장이 될 수 있다.

5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했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꼭 쓰는 말이다. 사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나가기엔 이 문장이 최고인 것 같다. 일단 어제 뭐했느냐고 물었는데 상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뭘 했는지 대답을 해야 하니까 그 안에 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분명히 그 친구도 넌 뭘 했느냐고 물을 테니까 말이다. 마음속으로 얼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6 Actually, (사실은,)

"Actually,"는 원어민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섞어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To be frank with you," 보다는 가벼운 뜻이면서 지금 심정이나 상황을 솔직히 전달할 때 쓰는 말이다.

7 Why don't you~? (~하지 그래?)

'너 왜 ~안 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tonight?" 하면 '오늘밤에 우리 집에 오지 그래?'라는 말이 된다.

8 I think so. (내 생각도 그래.)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맞장구를 치든지 동의를 할 때 하는 말이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상대방이 얘기만 좀 길게 하면 늘 이 말을 하곤 했다. 물론 가끔 상대의 말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I don't think so."를 쓰기도 하지만 말이다.



9 I mean... (그러니까...)

이 말 역시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는 표현이다. 무슨 말을 했는데, 내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항상 "I mean..."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해시키거나 내 생각을 설명하곤 한다. 특히 내가 한 말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때는 그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 표현을 쓴다.

10 You know, (있잖아,)

직역하면 '너 알아?'의 뜻이지만, 그보다는 보통 '있잖아, 저기'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특히 말머리에 '있잖아...' 하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미국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여러분도 입에 달고 다녀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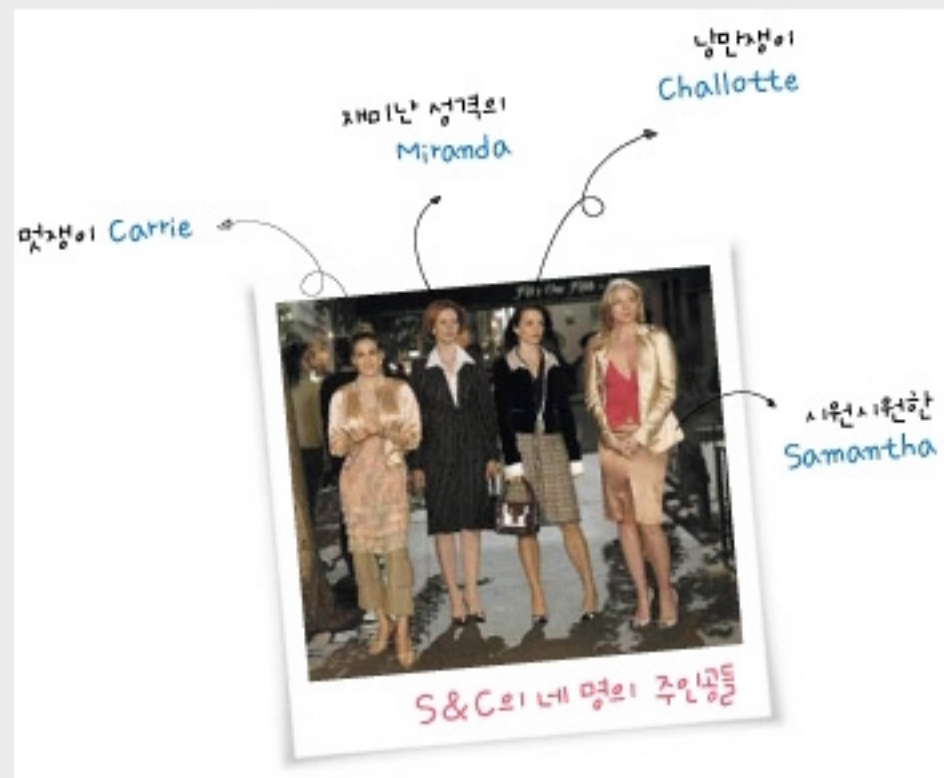
2003년 11월 18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트콤인 <Sex And The City>의 촬영 현장에 다녀왔다. 글썄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나에게 정말 새로운, 그리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내가 촬영장에 갈 수 있었던 건 서재응 선수와 김병현 선수의 매니저인 대니얼이 란 분 덕분이었다. 마침 S&C가 코리아타운에서 촬영을 하게 되자 대니얼 오빠가 전화를 한 것이다.

"경림 씨, 방금 S&C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국 식당 신scene이라 종업원 역이 필요하대요. 갑자기 경림 씨 생각이 나더라구요. 대사는 한두 마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이 너무 작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무조건 해야죠. 전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역할이 작으면 어때요. 돈 주고도 하기 힘든 경험인데요."

정말 그랬다. 한국에서도 시트콤에 출연해 본 적이 있어 시트콤의 제작에 관심이 있었고, 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S&C라면 어떻게 다른지도 굉장히 궁금했다.



전화를 끊고 설레는 마음을 누르며, 나는 "Thank you for coming here. How are you?"부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How does it taste?"까지 종업원들이 자주 쓰는 문장들을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네이티브처럼 보이려고 발음에

주의하며.

그런데 그 다음날 대니얼 오빠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 그 식당 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대신 내 역할은 한국인 행인 역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무척 실망했지만, 곧 나는 마음을 추스렸다. 평소 내 철칙이 '열심히 하되 너무 많이 기대하지는 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촬영 날짜와 시간은 날찌며 배우들의 스케줄 문제로 그 후로도 몇 번이 뒤바뀌어 결국 나는 보조 출연자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코리아 타운에서의 촬영 현장만 구경하게 되었다.

이날 코리아타운의 초입에 들어선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공이 식당 문에서 나와 길을 걷는 단 5초 동안의 한 신을 찍기 위한 장비만도 트럭 예닐곱 대 분량이었고, 보조 출연자들만도 무려 50명이 넘었다. 그 한 장면을 위해 S&C 스태프 전체가 대기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다고 하니...

나는 유심히 촬영 도구들을 살폈다. 촬영 기구들을 실은 차들과 의상차 그리고 스크린 조명과 수십 개의 일반 조명이 줄지어 있었고, 스태프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길에 긴 테이블을 놓고 여러 가지 음료와 음식들을 차려 놓았다. 마치 온 거리에 조명과 장비 차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영화라면 한 신을 가지고 2~3일씩 찍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은 시트콤이고 아주 간단한 신인데, 그 짧은 장면을 위해 들이는 엄청난 시간과 물량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무래도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작품이라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았다.

참고로, 이곳의 시트콤은 우리처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몇 달 하고 몇 달 쉬고, 쉬면서 촬영도 좀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다시 하고 그러다가 또 몇 달 찍고 몇 달 쉬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형식으로 시트콤을 찍는다. 해서 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전에 했던 방송을 재방송해 주고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다른 채널에선 예전 방송을 계속해서 방송해 준다.

순간 뭔가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웬지 한국의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참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몰려왔다. 나도 새라 제시카 파커를 텔레비전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니까 기분이 좋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모두가 다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제 조금은 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촬영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녀가 다시 내 앞쪽으로 왔고 난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과연... 하늘의 계시인가! 배터리가 나간 것이다! 해서 나에겐 그녀의 멀리 있는 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진행요원이 손으로 가려서 그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진, 이렇게 석 장이 있을 뿐이다. 이 얼마나 특이한 사진들인가. 평생 못 잇을 것 같다.

오늘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미국의 촬영 단계라든지 촬영장의 분위기, 그리고 스타프들의 행동과 촬영 도구들... 그리고 나에 대한 성찰도 할 수 있는 하루였다. 앞으로 정말 사진 찍어 달라는 사람 있으면 잘 찍어 줄 거다. 환한 미소로... "그동안 저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한 사람들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잘 못 걸려서 저랑 사진 못 찍었던 사람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네?"

언젠간 나도 미국 시트콤 카메라 앞에 서 있을 날이 오겠지?



English Alive

CHAPTER

6

영어와
친구하실래요?

- 英語 과답 220 평생 못 잊을 April Fools' Day
- 효과 평면 나의 영어 학습법 224 우리는 이미 영어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 전단지 한 장도 귀중한 영어 보물 _ 팝송으로 영어 공부들~~ _ 토레영어들 읽던 영어가 재밌다
- 백선엽의 영어 Clinic 232 Informal Expression을 모르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 교과서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Informal Expression _ 떠끈떠끈한 Informal Expression 20가지
- 박경림의 현지 영어통신 242 외화를 낭비하는 유학생의 대표적 습관 5가지
- Katy's Diary 248 영어는 세계와 친구 삼는 도구

英語 과답

평생 못 잊을 April Fools' Day



오오오!! 만우절 이브잖아!!

첫돌을 때놓고 지난 26년간 단 한 해도 만우절을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는 이 박경림이 미국이라고 해서 기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래. 이 참에 확실하게 우리반 아이들을 놀려 주는 거야. 호호호. 치밀하게 계획해서 밀야.

기만... 뭐가 좋을지? 아무래도 여긴 미국이니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야겠지...?

오오오! 그래. 바로 그거야!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뽀를 치는 거야.

이번 기회에 반 아이들의 마음도 한번 확인해 볼 걸해서! 난 역시 천재란 말야! (이런 쪽으로만)

케이리, 요즘 무슨 일 있니?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저기 사실은 말야... 아...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대충 얼버무린다.

살짝 쓴웃음을 지어 보여...





미국에만 오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굳이 돈 들여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 유학을 오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자신을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환경에 빠뜨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영어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기!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게다가 요즘은 초등학교까지, 영어를 10년을 넘게 배웠다고는 하지만 사실 영어적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힌 것도 아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쓴다(아니, 공부한다)거나 머리에 끈 동여매고 참고서부터 척 펼쳐 봐야 뭔가 영어공부를 하는 것 같다면,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공부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다.

확실히 영어를 쓰는 나라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영어적 환경에 빠뜨린다는 장점이 있다. 단일민족 국가로서 한국어를 온 민족이 다 함께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게 훨씬 영어적 환경에 가깝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영어를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스스로를 가급적 영어에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전단지 활용법

전단지도 분류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음식점 전단은 음식 맛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많이 등장하고 관광 명소 전단지에는 the best, the most 같은 최상급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요. 또 영화나 연극 포스터에서는 단 한 줄짜리 카피성 문구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신속 배달 음식점의 전단지들.

사실 요즘 영어를 못 들어서, 혹은 외국인을 못 만나서 영어공부를 못하겠다는 건 순전히 핑계일 거다. 서점에 가면 영어교재는 물론 영어잡지나 해외 신간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깔린 게 영어 사이트이며,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원어민 아르바이트생들도 대학가에 가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아리랑 TV나 AFN, Star TV 같은 영어 방송을 볼 수 있고 말이다. 게다가 우리가 잘 듣는 팝송은 전부 영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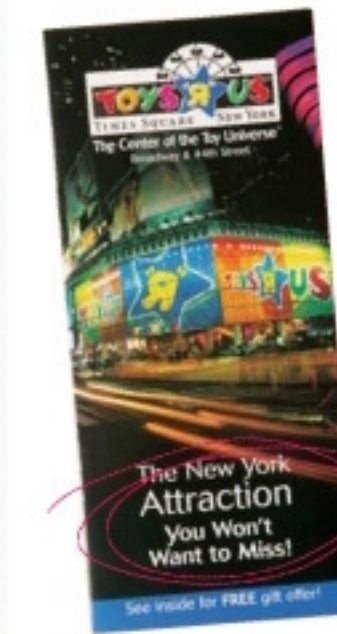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은 연수를 가지 않아도 이미 영어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주변을 좀더 자세히 둘러보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 외로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다.

하나 전단지 한 장도 귀중한 영어보물

이곳에서 영어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실생활이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게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디를 가든 길거리에서 전단지(여기서는 Flier 또는 Flyer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쇼핑몰이나 음식점, 장난감가게,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전단지를 나눠 준다. 한국 같았으면 슬쩍 보고 몇 걸음 가다가 쓰레기통으로 덩크슛을 했을 이것이 여기에선 나에게 영어책 노트를 한다. 다운타운에서 이걸 하나 받으면 엠파타운까지 가는 길이 심심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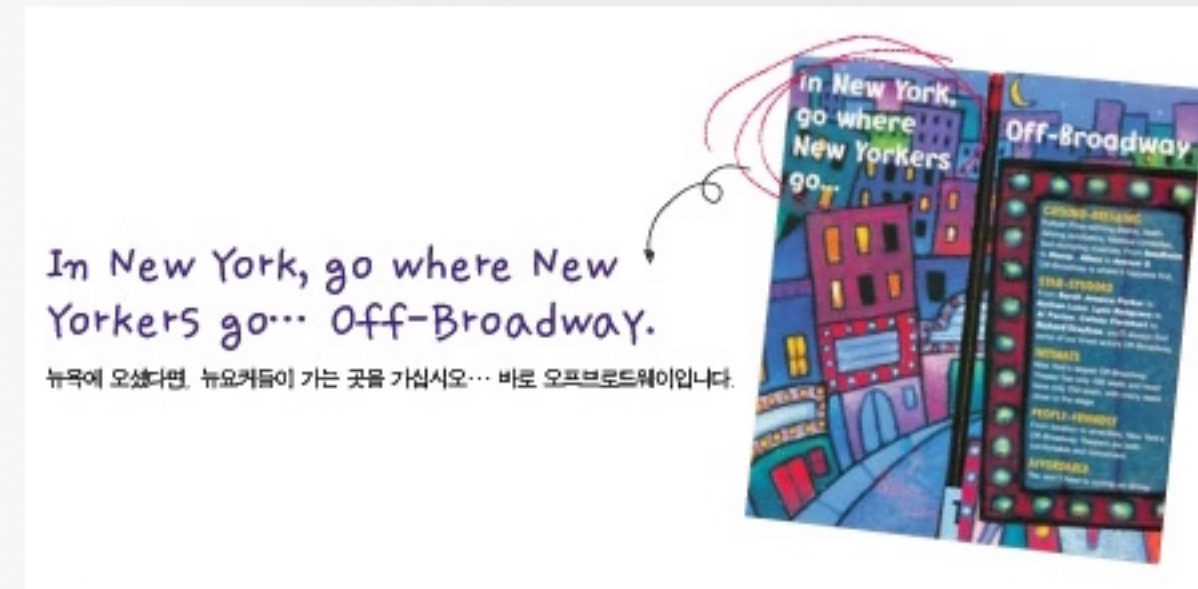
다들 알겠지만 전단지에 나오는 말들은 요즘 많이 쓰이는 말들만 뽑아 놓은 게 많다. '왕대박 잔치'라든지 '마지막 기회', 또는 '이보다 더 환상적일 수 없다', '신속 정확 배달', '절대 후회 안 함' 등등... 얼마 전에 길을 가다 장난감가게인 토이자러스(Toys 'R' us)에서 나눠 주는 전단지를 받았다.



The New York Attraction You Won't Want to Miss! 놓치고 싶지 않을 뉴욕의 명소입니다!

Getting to The Center of the Toy Universe is easy! 장난감 세상에 가는 길은 쉬워요!

또 다른 전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In New York, go where New Yorkers go... Off-Broadway.

뉴욕에 오셨다면, 뉴욕인들이 가는 곳을 가십시오... 바로 오프브로드웨이입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하니 우편물 박스에 뉴욕시에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안내문이 와 있는데, 이런 말이 쓰여 있다.



Thanks for doing your part, New York!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간단한 문장들이면서도 완벽한 문법이다. 외우기도 쉬워서 단어만 바꿔 응용하기에도 딱이다. You won't want to miss. 이 발음들만 제대로 구별하는 연습을 해도 큰 소

특이다.

이런 전단지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외워 두면 말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전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의 영어 교재가 된다. 버려진 신문이라든지 무가지 또는 영어 간판들, 식당의 메뉴 등등...

이 얼마나 돈 안 들이고 하는 좋은 공부인가. 잘 짜여진 영어책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렇게 일단 영어가 쓰여 있는 걸 찾아서 읽고 외우는 것도 날로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막말로 문법책이나 영어책 같은 거 사 놓고 안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마도 그 이유는 공부를 하기 전까지 마음을 잡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일 거다. '내일부터는 마음먹고 문법책 몇 과부터 몇 과까지 공부해야지' 또는 '청소 깨끗이 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영어공부해야지' 등등의 생각들이 우릴 영어와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자꾸 접해 줘야 생각이 자꾸 나는 법! 중요한 건 일단 부딪쳐야 한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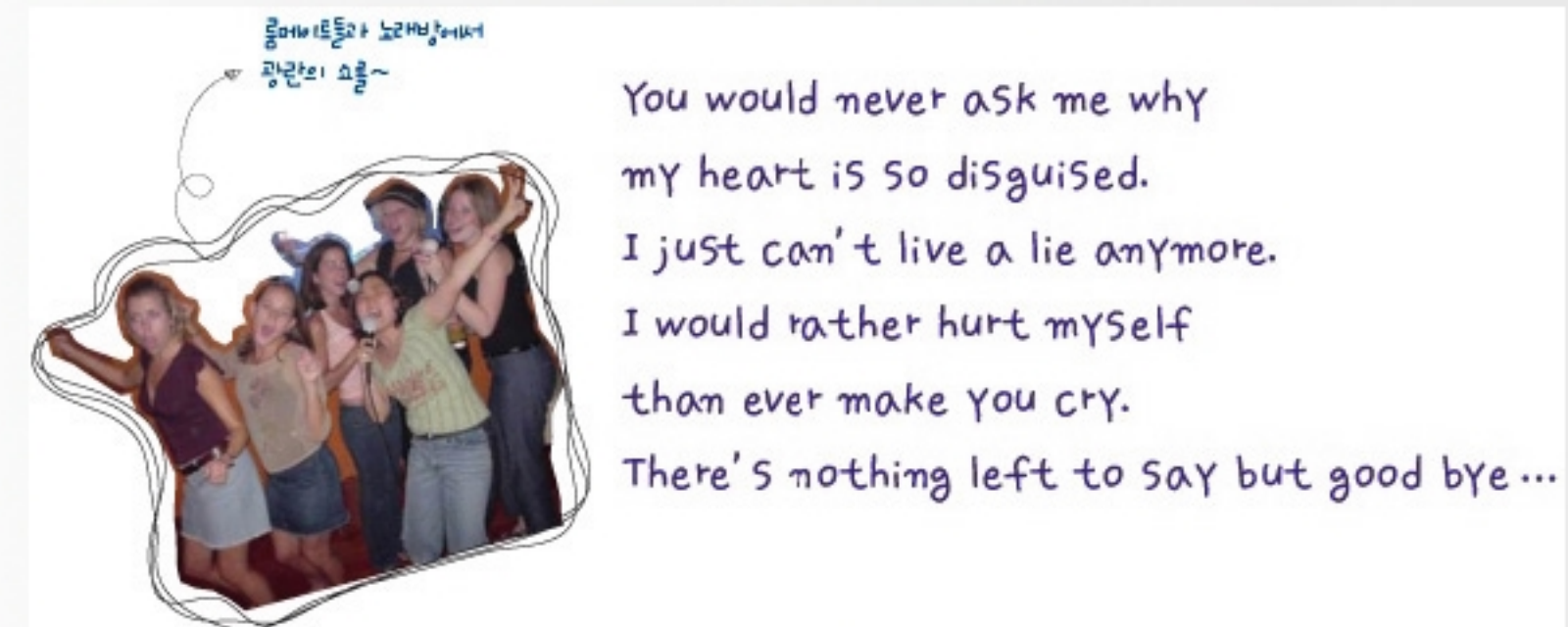
공짜로 나누어 주는 일간지들.
이 얼마나 돈 안 드는 좋은 교재인가.
잘 짜여진 영어책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 이렇게 일단 영어가 쓰여 있는 걸
찾아서 읽고 외우는 것도 날로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팝송으로 영어공부를~~

나도 한때는 한국에서 날리던(?) 가수였다. ㅋㅋㅋ 다들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하는데 사실 내 라이브 실력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래 봐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 저 학교 불려 다니며 축제 때 사회와 공연을 도맡다시피 했다. 특히 영어는 못해도 팝송은 거침없이 부르고 다녔다.

특히, 난 Jessica가 부르는 'Good Bye'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팝송 가사집에 한글로 적혀 있는 대로 불렀다가 나중에 가사를 알고 나서 부르니까 가슴에 짱하게 와 닿았다. 지금도 후렴 부분은 또렷하게 생각난다.



You would never ask me why
my heart is so disguised.
I just can't live a lie anymore.
I would rather hurt myself
than ever make you cry.
There's nothing left to say but good bye...

"당신은 결코 묻지 않겠죠, 왜 내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제 나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당신을 울리느니 차라리 내가 아프겠어요. 이제 안녕이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면 적어도 발음 하나는 많이 좋아진다. 뜻을 하나도 모르고도 가사를 줄줄 외워서 부를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영어 정말 잘하는 줄 알 거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엄청 유행했었다. 어떤 강사는 '팝송만이 영어를 배우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팝송만이라고 하면 그건 약간 오버일 수 있으나 확실히 팝송이 영어에 귀를 틱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팝송이 먹혔고 특히 지금 뉴욕에서는 가사를 조금씩 알고 불려서인지 더 더욱 맘에 와 닿아 팝송이 살아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맘에 드는 팝송 하나를 골라 우선 가사를 몰라도 그냥 들으면서 따라 불러 보라.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한글로라도 들리는 대로 적어 놓고, 따라 불러 보는 거다. 그렇게 일주일쯤 들으면 웬만큼 노래에 맞춰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다음에 인터넷을 뒤지거나 책을 뒤져 가사를 이해하고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가사를 확인해 가며 들으면 감격적일 것이다.

☀️ 포레영어를 알면 영어가 재밌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Bring down the house>라는 영화를 룸메이트들과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눈치로 알 수 있었지만 배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처음엔 내가 워낙 듣기 실력이 약하니까 그럴거니 했는데, 내 룸메이트 말이 대사의 80퍼센트가 슬랭Slang이어서 내가 알아듣기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었다.

대라 부르기 좋은 팝송들

'Because You Loved Me'

누구나 좋아하는 팝의 디바, Celine Dion이 부르는 발라드예요.

'California Dreaming'

영화 <중경삼림>의 삽입곡으로 Mamas & Papas가 불렀어요.

'Dancing Queen'

요즘 유행한 <김아미미> 때문에 다시 뜨고 있는 Abba의 노래.

'Everything I Do It For You'

영화 <로빈후드>의 감미로운 주제가로, 90년대를 풍미한 가수 Bryan Adams가 불렀어요.

'Hey, Jude'

Beatles의 노래 가사는 웬만하면 대라 부르기 쉽고 가사 자체도 무척 시적이예요.

'Right Here Waiting'

발라드의 제왕 Richard Max의 히트곡. 로맨틱한 가사가 일품!



이곳에 와서 가장 고생스러운 공부가 바로 이 '슬랭' 공부다. 격의 없는 표현informal expression부터 아주 심한 표현까지 슬랭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이 슬랭을 모르면 친구들 대화에 아예 끼지를 못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포레영어'라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영어를 못해 따라가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교과서에도, 웬만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 포레영어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짓말 하네"가 아닌 "뺑 치시네", "당연하지"가 아닌 "당근빠파지" 또는 "내가 살게"가 아닌 "오늘 내가 쓸게" 하는 식의 말들을 어디서 배우겠는가.

이건 자연스럽게 익히든지 아니면 작심하고 슬랭북 같은 걸 사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애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 보거나 시트콤이나 영화를 보면 아주 많은 포레영어들이 나온다. 실제로 포레영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 아무리 영어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단어를 안다고 해도 정작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면 계속 걸도는 얘기

밖에 할 수 없다.

나는 그 이후로 세 명의 룸메이트들에게 조금씩 포레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저희들 판에는 이상한 말이었는지 가르쳐 주면서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어떤 친구는 직접 슬랭북을 찾아 가르쳐 주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내가 이곳에 와서 접한 친근한 포레영어들이다.



bro= friend 또는 male friend

"Hi bro!" "Hey bro!"는 '안녕, 친구!'라는 뜻으로, bro는 당근 brother에서 왔다. 주로 남자들이 남자들에게 쓰는 말이다.

dude= friend 또는 guy

dude 역시 bro와 비슷한 말로 친한 친구를 가리킬 때 쓴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상대의 이름을 모를 때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 친구', '저 친구' 하듯이 말이다. 박찬호 선수가 쓴 《Hey! Dude》란 책이 생각난다.

homey 또는 homie= close friend 또는 buddy

이 단어는 '오랜 친구'를 말할 때 쓴다. "He is my homey." 하면 '이 친구, 내 친한 동네 친구야' 하는 말이 된다. 이걸 특히 흑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chick= girl 또는 woman

주로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별로 점잖은 표현이 아니어서 여자애 앞에서 이 말 잘못 썼다가는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다.



scrub= freeloader 또는 not ambitious male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속편한 친구들을 말한다. 공짜를 좋아하며 쉽게 쉽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쥬!

wack= bad, crazy, foolish, messed up

wacked 또는 whack이라고도 하는데, 발음 그대로 '이상한' 또는 '미친' 혹은 '사이코 같은'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말.

tight / cool / phat= very good, great, attractive, excellent

wack과는 반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단어다.

da bomb / the bomb= excellent; best; something really great

da bomb은 '정말 끝내 줘'라는 뜻으로 특히 흑인들은 the 발음을 [da]로 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꼭 우리말(?) '따봉' 같이 들리지 않는가?

hella= very much; a lot

"Katy has hella of male friends." 케이티는 남자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ㅋㅋㅋ 그럼 뭐하냐고요! 다들 여친이 있는 애들인데!! 이러면 절 두 번 죽이는 거예요~.

kick it= relax; sit around and do nothing; hang out

'그걸 차자'란 말이 아니고, '그냥 쉬자', '그냥 개기자' 정도의 말이다. "I need a few minutes to kick it." 하면 '난 잠시 쉬어야겠어'라는 뜻.

dis= disrespect; insult; fail someone

dis는 여기서 동사로 쓰인다. '무시하다', '모욕하다', '속이다' 따위의 안 좋은 표현이다. "She dissed me." 하면 '그녀가 날 무시했어'라는 뜻.

trip= overdo; overeat; act foolishly

유감스럽게도 '여행'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저기 오버하면서 집적대는 사람' 또는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대화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He's trippin' all the time!" 하면 '걔 만날 오버하고 다녀!'라는 말.



어드바이스 교과서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Informal Expression

우리가 아는 영어와 그들이 쓰는 영어는 정말 다르다.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배운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는 아마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아주 천천히 말해 주고 아주 쉬운 단어나 문장을 써 가며, 바른말부터 가르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에도 그들은 우리가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어휘, 쉬운 문장부터 시작하며, 영어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말한다.

처음 미국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나에게 말할 때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들끼리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영어를 구사하는 듯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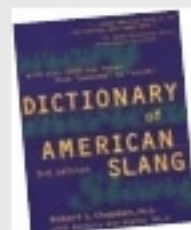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이른바 슬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전혀 접할 수가 없었던 그들만의 informal expression이었던 거였다. 박경림 씨도 작년에 마찬가지의 고충을 내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영어 표현, 즉 informal expression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방법은 한 가지다. 이들 표현집을 사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서점에 가면 미국 slang book이나 informal expression을 담아 놓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만 informal expression은 이해하기 위해 알아 두는 것이지 외국인으로서 써먹기 위해 공부하는 차원은 아니니 가볍게 살펴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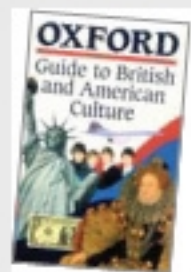
문화까지 알 수 있는 어휘 사전

모국어 외국인들을 위해 나온 사전들이지만 사실 초급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 취미가 붙기 시작할 때 읽으면 영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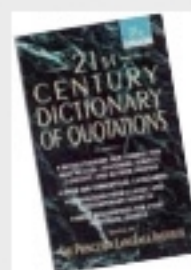
● 《The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하퍼 리소스(Harper Resource)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슬랭 사전입니다. 일단, 어휘가 어떤 사전보다도 많습니다.



● 《Oxford Guide to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옥스퍼드 대학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일반 사전이 아니라 '문화 사전'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스포츠, 소비생활, 팝문화 등등 영미 문화의 모든 정보가 한 권의 책에 사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 《21st Century Dictionary of Quotations》

art부터 dream, love, happiness 그리고 Zen(선불교)까지, 알파벳순으로 망라한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유명인들의 말과 글을 인용해 놓은 '인용 사전'입니다. 원래 글을 쓸 때나 연설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지만, 영어를 배우는 우리들에겐 그야말로 '명문(名文)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부합시다! 파끈파끈한 Informal Expression 20가지

다음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매일같이 입에 달고 다니는 최고의 informal expression 20개를 선별해서 정리해 놓은 리스트다. 슬랭이라기보다는 가벼운 구어체 표현이니 배워서 직접 활용해도 좋을 듯.



Track7 CD듣기

1. I'm gonna go catch a brew. (Formal Expression I'm going somewhere to have a beer.)

| 해석 | 나 맥주 마시러 가.

여기서 brew는 beer(맥주)를 뜻하므로 이 표현은 '맥주를 마시러 간다'는 의미다.

A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가?

B I'm gonna go catch a brew. 나 맥주 마시러 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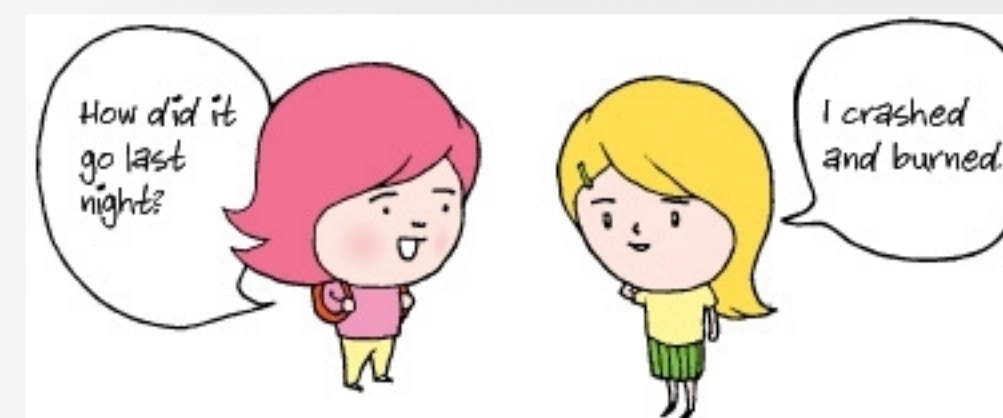
2. I crashed and burned. (Formal Expression I asked her out on a date and she declined.)

| 해석 | 나 퇴짜맞았어.

남녀 사이에서 'crashed and burned'는 '퇴짜맞았다'라는 의미이고 학교 시험에서 'crashed and burned'는 '망쳤다'는 의미.

A How did it go? 어떻게 되었어?

B I crashed and burned. 나 퇴짜맞았어.



3. I got ripped off at the shop. (Formal Expression _I was cheated at the shop.)

| 해석 | 나 그 가게에서 바가지 댔어.
rip는 옷 같은 것을 찢거나 껍질을 벗기는 데 쓰이는 동사다. 우리말로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베껴먹었다' 정도로 해석이 될까?

- A What's wrong? 왜 그래?
B I got ripped off at the shop. 나 그 가게에서 바가지 댔어.

4. Jeez, mellow out! (Formal Expression _Calm yourself!)

| 해석 | 야, 진정해 임마!
"Mellow out!"은 열을 잔뜩 받아서 흥분한 상태의 동료나 친구에게 '진정해'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Clam down!" 또는 "Take it easy!"와 같은 의미이다.

- A I hate that place! 이곳 정말 짱나!
B Jeez, mellow out! 야, 진정해 임마!

5. I'm going to get a nose job. (Formal Expression _I'm going to undergo plastic surgery on my nose.)

| 해석 | 나 코 성형수술할 거야.
'nose job'이란 코에다가 하는 job이므로 이 말은 코성형수술을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코에 하는 'plastic surgery'라고도 한다.

- A Why are you having surgery? 너 왜 수술해?
B I'm going to get a nose job. 나 코 성형하려는 거야.

6. I think I'd better hit the books. (Formal Expression _I think I ought to start studying.)

| 해석 | 나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우리말에도 있다. '책 때리러 간다'고... 이 말은 '공부한다'는 의미. hit the shower는 '샤워하러 간다', hit the bar는 '술 마시러 바에 간다', hit the road는 '출발한다' 등이 된다.

- A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영화 볼래?
B No. I think'd better hit the books. 안 돼. 나 공부해야 할 것 같아.

7. I'm a little short on dough. (Formal Expression _I don't quite have enough money.)

| 해석 | 난 돈이 좀 부족한데.
short on dough에서 dough는 money를 뜻하므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mint라는 말이 '많은 돈'을 뜻하기도 한다. 지폐 색깔이 mint색이기 때문일까?

- A I'm a little short on dough. 나는 돈이 좀 부족한데.
B I'll pay. 내가 낼 게.

8. That really hit the spot. (Formal Expression _That was exactly what I needed.)

| 해석 | 딱이다 딱.
영화나 TV에 보면 무지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hit the spot이다. spot은 어떤 장소를 말하므로 hit the spot은 '장소를 hit한다', 즉 우리말로로는 '딱이다 딱'이라는 뜻.

- A How was the sandwich? 샌드위치 어땠어?
B Delicious. That really hit the spot. 맛있었어. 나한테 딱이다 딱.

9. Those shoes look sharp. (Formal Expression _Those shoes look very nice.)

| 해석 | 저 신발 세련돼 보이는데.
여기서 sharp는 '뽀족 구두'가 아니다. 우리말에도 있는 'sharp해 보인다는 말'. 사람이 sharp해 보이거나 여기서처럼 구두 등 물건이 sharp해 보인다는 말... 모든 좋은 뜻이라고 보면 된다.

- A Those shoes look sharp. 저 신발 세련돼 보이는데.
B I think I'll try them on. 나 한번 신어 봐야겠다.



10. You look pretty bummed. (Formal Expression _You look sad.)

| 해석 | 너 좀 안돼 보인다.

bum은 뜻이 가지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bad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 '너 오늘 pretty bummed 해 보인다'는 말은 tired, exhausted, sad해 보인다는 뜻이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다.

- A I failed my test. 나 시험에 떨어졌어.
B That's why you look so bummed. 그래서 그렇게 안돼 보였구나.

11. You don't know shit. (Formal Expression _You know nothing about it.)

| 해석 | 넌 아무것도 몰라.

미국사람들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넌 몰라도 정말 몰라'라는 의미. 가끔은 "You don't know nothing."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문법적으로는 "You don't know anything." 또는 "You know nothing."이지만 이렇게는 잘 쓰지 않는다.

- A You don't know shit. 넌 정말 몰라.
B What makes you think I don't know at all. 왜 내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니?

12. Do you have five bucks? (Formal Expression _Do you have five dollars?)

| 해석 | 너 5달러 있냐?

미국에서 buck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바케스'를 말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dollar를 buck이라고...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입만 열면 dollar라고 하지 않고 buck이라고 한다. 참고로 1천 달러는 영어로 a grand라고 한다.

- A Do you have five bucks? 너 5달러 있니?
B Yes. Here you go. 응. 여기 있다.



13. Are you taking off? (Formal Expression _Are you leaving right now?)

| 해석 | 너 지금 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다'라고 할 때도 take off를 쓸 수 있지만 누군가가 어디로 '일어서다' 또는 '가다'라고 할 때도 take off를 쓸 수가 있다.

- A Are you taking off? 너 가는 거야?
B Yes. I have to go home and study. 응. 집에 가서 공부해야 해.

14. I'm robbing Peter to pay Paul. (Formal Expression _I'm taking it from here to put it over there.)

| 해석 | 나 여기서 빌려다가 저기에 갚고 있어.

보통 돈과 신용카드에 관한 표현으로 한 곳에서 빌려다가 다른 한 곳에 메울 때 쓰는 표현이다.

- A How's your financial situation? 너 경제적 상황 어때?
B I'm robbing Peter to pay Paul. 나 여기서 빌려다가 저기에 메우고 있어.

15. I'm going to fix you up. (Formal Expression _I'm going to set up a date for you with someone.)

| 해석 | 내가 너 소개시켜 줄게.

미국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서로를 소개시켜 주곤 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ix up이다. fix가 나왔다고 괜히 오버해서 '고치다'라고 이해하면 정말 곤란하다.

- Ⓐ I don't have a date for tomorrow night. 나 내일 저녁에 데이트 없는데.
Ⓑ I'm going to fix you up. 내가 널 소개시켜 줄게.

16. Are you hitting on me? (Formal Expression _Are you flirting with me?)

| 해석 | 너 지금 나한테 수작 거는 거냐?

누구를 꼬드기거나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바로 hit을 이용한 표현이다. 꼭 남자가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남녀 구별 없이 쓸 수 있다.

- Ⓐ Did you know you're beautiful? 너 정말 예쁜 것 알아?
Ⓑ Are you hitting on me? 너 나한테 수작 거는 거야?

17. Don't freak out. (Formal Expression _Don't overreact.)

| 해석 | 너 오버하는 거다.

freak out은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현지 원어민들의 생생 표현으로 '오버하다'라는 의미로 쓴다.

- Ⓐ What about going out with Dana? 야, 다나한테 데이트 신청 어때냐?
Ⓑ Hey, don't freak out. 야, 너 오버하는 거다.

18. Who's calling the shots here? (Formal Expression _Who's the manager here?)

| 해석 | 여기 담당자가 누구니까?

'여기 담당자,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표현이다. call shots라는 표현에서 '대표

를 쏘라, 총을 쏘라' 하면서 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 연상된다.

- Ⓐ Who's calling the shots here? 여기 담당자가 누구죠?
Ⓑ I am. 전데요.

19. He's a chiphead. (Formal Expression _He's good at technical things.)

| 해석 | 그 사람은 컴퓨터 도사야.

chiphead는 사실 미국에서도 많이 쓰지만 원래는 영국에서 온 표현으로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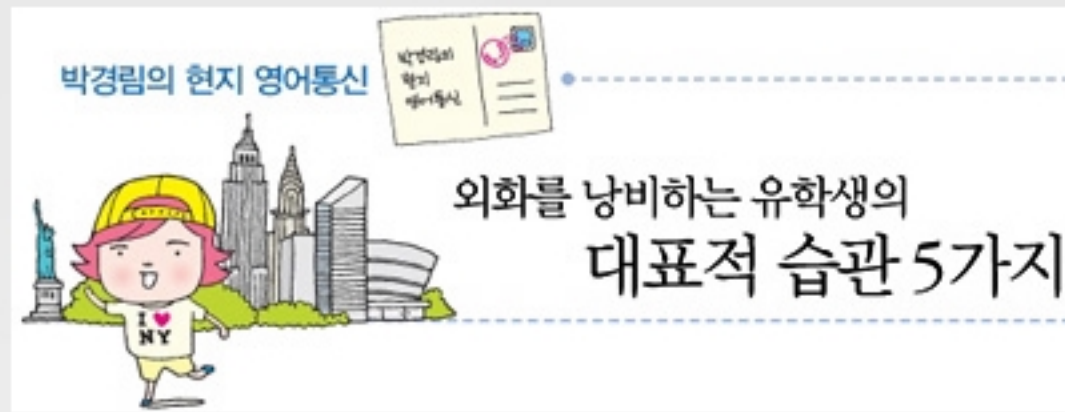
- Ⓐ What's he like?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 He's a chiphead. 컴 도사지.

20. Wow, you can really bust a move! (Formal Expression _You dance very well!)

| 해석 | 너 춤 죽이게 춘다.

bust는 원래 break 또는 damage를 가하는 걸 말하는데 (ghost busters는 따라서 '귀신 잡는 사람들') 여기서는 뜻이 변했다. bust a move는 '춤을 아주 잘 춘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다.

- Ⓐ Wow, you can really bust a move! 와, 너 춤 죽이게 추네!
Ⓑ Thanks! You're not bad yourself. 고마워! 너도 장난 아난데.



아마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만큼 '단체'와 '연합', '친목회' 등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레나 계, 향약 등의 영향인 듯싶다. 좋게 보면 그만큼 서로 뭉치고, 협력한다는 의미이고, 나쁘게 보면 끼리끼리만 어울려 다닌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 이곳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중에는 정말 열심히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지 못한 유학생들도 없진 않은데, 우리의 영어공부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유학생들의 다섯 가지 습관을 모아 봤다.



습관1. 한국 텔레비전 프로 빌려 보기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제 첫 번째 금기! 특히 텔레비전 연속극은 유학생들의 '공공의 적'이다. 물론 이곳에 이민 온 교포들은 우리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보신다지만, 유학생은 사정이 다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임무를 띤 유학생에게는 이 비디오 중독이 AIDS나 SARS 같은 끔찍한 바이러스다.

나도 이곳에 와서 가끔 한국 영화를 빌려 보는데, 비디오가게에 가서 영화를 고르다 보면 연속극이나 쇼 프로그램도 빌리고 싶은 충동이 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아주 독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사연이 있다.

이곳에 와서 'NRG'의 성진 오빠의 사촌을 알게 됐다. 수민 언니라는 분이었는데,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셨고, 내가 기숙사에서 스튜디오로 옮겨 가는 동안 집과 함께 언니네 집에 며칠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빌려 주었다. 이때 언니는 내가 심심할까 봐 한국 비디오를 많이 빌려다 줬는데 그 중 하나가 드라마 <올인>이었다. 쇼프로나 영화는 일회성이라 한번 보면 끝인데, 이건 20부작이었으니... 당시 3편과 4편을 본 나는 그 앞 프로와 후속 편들을 보고 싶어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다 보면 후회할 것 같아 꼭꼭 참았는데,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다. 해서 나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그 이후로 절대로 연속극은 보지 않는다. 쇼프로 역시 보고 나면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 봐서 보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가끔 가다 한국 영화들만 빌려 보는데,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영어 완전정복>이다. 영화만 보는 나도 그것을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은

데 분명 매주 쇼프로 빌려 보고, 연속극 빌려 보는 친구들은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습관2. 한국 친구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기

솔직히 미국에 연수를 오면 한국인이 무척 많다는 걸 실감할 거다. 내 경우도, 처음 들어간 랭귀지 스쿨에 반 정원이 15명이었는데, 그 중 13명이 우리나라 사람 이어서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고 방과 후에도 한국 학생들과 또 어울리고, 한 다리 건너 또 한 다리... 이런 식으로 지하 조직처럼 계속해서 알게 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외국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줄어들어 영어를 쓰는 시간보다 한국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반면 간혹 보면 아예 같은 나라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겠다고 티 내며 외국 친구들하고만 노는 아해들도 있는데, 이거 정말 욕먹는 일이다. 물론 '나는 욕먹어도 상관없다'하면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건 한국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일이다. 이걸 컨트롤하지 못 하면 유학 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어서 한국 친구들에게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된다. 유학생들은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많게 마련인데, 이때마다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때문에 자신이 잘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습관3. 한국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 만들기

그 다음으로 절대 영어공부에 도움을 안 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만든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자는 의미로 말이다.

하지만 함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낯간지럽고 어색한 일이 될지를! 혹자는 한국인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미국 사회에 오면 자기들끼리도 영어를 쓰는데 유독 한국 학생들은 끝까지 자기들끼리 한국말만 쓴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실 5천 년의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들 정서상 한국인들끼리 만나서 영어를 쓰는 일은 죽어도 하기 힘들다. 그러니 한국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시작 전과 끝난 후의 대화 시간이 더 길어지며, 스터디 시간 외에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일은 나에게도 있었는데, 처음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물론 의도는 서로 돕고, 공부하자는 거였다. 하지만 한 달도 못 가 이견 아니다 싶어서 깨지게 되었다.

역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공부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성인들이 모이다 보니 더 혼란스러워졌던 것 같다. 나는 유독 단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이런 모임이 내 영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습관4. 방콕하기

영어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모임이나 외국 친구들이 여는 파티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미국 친구들이 하는 파티란 게 참 싱겁기 그지없다. 그냥 누구네 집이나 퍼브pub에 모여서 맥주 한 캔 들고는 음악 듣고, 여기저기 첫인사 하고, 알은 체하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다. 우리처럼 화끈한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부어라 바쳐라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영어가 좀 모자란다고 제풀에 주눅 들어 긴장하는 친구들은 꼭 자신이 께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같이 느껴지고, 또 그러다 보니 방과 후에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점점 더 뜸해지면서 그 시간에 한국 친구들끼리 모여서 영화 보러 다니고 차 마시러 물러다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영어는 점점 더 멀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외국 사람이 현지인 친구들을 사귄 기회는 파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외국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를 피하는 건 좋지 않다. 파티에 참석해서 친구를 사귀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외국 친구가 없다는 둥, 사람 사귀기가 왜 이렇게 힘든냐는 둥 불평만 많이 한다면? 어이! 그러는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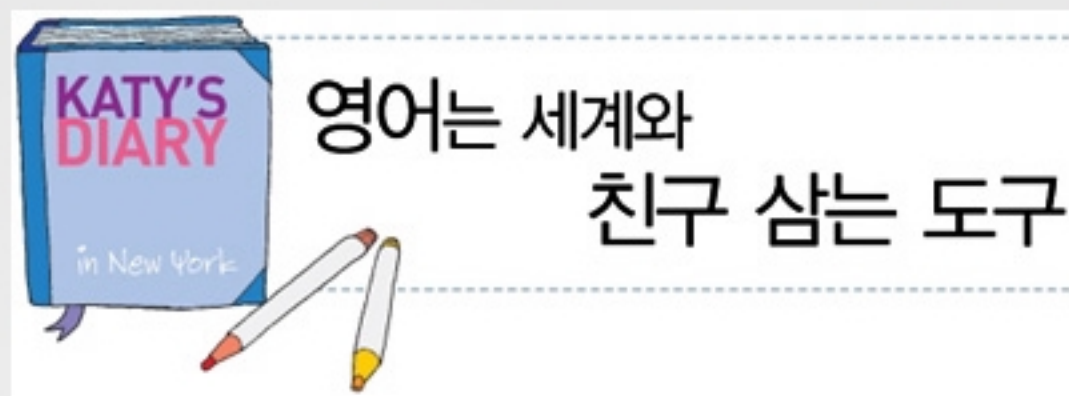
습관5. 코리아 타운의 가게만 애용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영어가 두렵다고 모든 것들을 한국가게에서 해결하는 거, 이것 역시 썩 좋진 않다.

물론 여기서 열심히 사시는 교포 분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교포가 운영하는 가게를 많이 애용해야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애용이다

. 집 구하고, 전기 놓고, 케이블 깔고, 가구 사고, 심지어 택시 타는 것까지도 꼭 교포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가 부딪쳐야 할 부분까지 영어하는 게 겁나고 두렵다는 이유로 자꾸 피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 지는 게 영어다.

또한 원어민과 전화통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보더랭귀지나 표정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해서 전화도 한국사람들하고만 하고 전화로 뭔가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면 기피하곤 한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누구나 다 처음엔 잘 못하고 버벅거린다. 중요한 건 자꾸 같은 상황에 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부딪쳐 나아가는 것이 분명 스스로를 더욱 대담하고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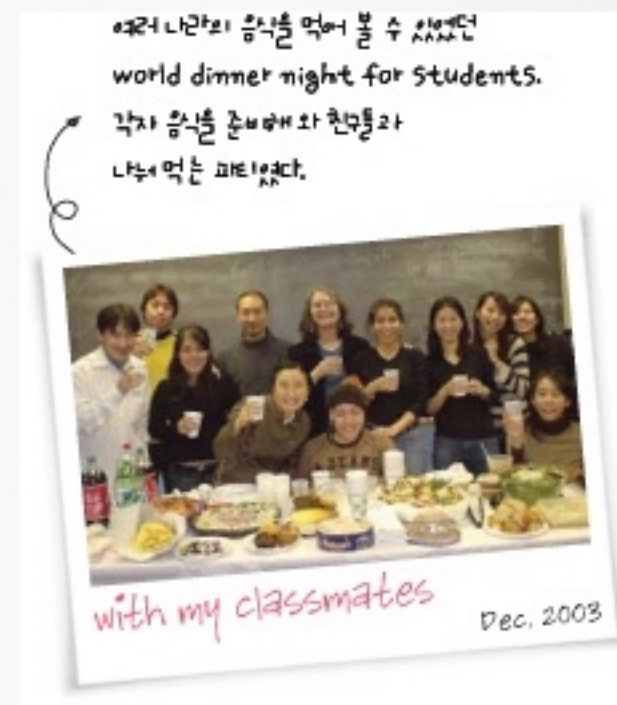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하는 걱정이 바로 **친구 문제**일 것이다. 성격이 유별나게 활발하다거나 리더 기질이 있지 않은 한, 이곳에 오게 되면 친구 사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외국에 와서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은 굉장히 쉽다.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같은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외국 친구, 특히 원어민 친구를 사귀는 게 문제다.

이곳에 와서 나는 운이 좋게도 많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이는 내가 기숙사를 나눠 쓰면서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조금은 노력한 부분도 있었다. 언어와 문화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서 친구를 사귀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기숙사 독방 생활을 석 달 간 했던 나는 NYU의 랭귀지 코스에 들어가면서 다운타운에 위치한 NYU의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세 명의 미국 친구와 한 방을 쓰게 되었다. 많은 유학생들이 룸메이트와의 성격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 다행히도 나와 함께 살던 친구들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들이었다. 그렇다고 문화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모든 계산에 철저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이들에게 처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았다. 마치 내가 무슨 돈이라도 떼어 먹을 것처럼 뭐든지 더치페이로 딱딱 계산하는 이들이 무척 알미웠다. 택시를 타도 인원수대로 정확하게 나누고, 밥을 먹도 자기가 먹은 것만 얼른 설거지해 버리는 이들이 인정 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의문스럽게 그날 학교에서 배운 모르는 영어들을 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내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친구들은 정말이지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었다. 그 후 나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물었고 또한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한국의 문화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이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해서 나는 주말에 한국 식당에 함께 가자고 했다. 식당에서 우리는 갈비와 비빔밥을 먹었는데,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 보는 이들에게 젓가락질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상추에 싸 먹는 방법, 마늘과 고추를 날로 먹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보는 내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 친구들은 너무나 맛있게 우리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선 '매일매일 한국 음식만 먹으며 살고 싶다.' '내가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등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짜로 밀반찬이 나온다는 사실에 이들은 하나같이 놀랐다. 역시 외국애들도 공짜는 너무 좋아한다.ㅋㅋㅋ

밥을 다 먹고 계산할 때가 되었을 때, 역시나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지갑을 꺼내들었다. 그때 내가 "한국도 물론 나눠 내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초대할 친구가 사는 경우가 많아. 그러곤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또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내는 식으로 해. 그게 '한국식'이야"라고 말하고 그날 음식의 계산은 모두 내가 했다. 친구들은 약간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내 알았다고 하고는, 다음번엔 자기들이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내 의견을 따라 주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나에게 소개해 주나 많이 고민하는 눈치였다. 자기들끼리 만날 회의하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2~3일 정도가 지나서였나, 룸메이트 중 커트니란 친구가 나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했다. 학교 마치고 바쁘게 기숙사에 도착하니, 이미 친구들은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있었다. 닭구이부터 시작해서 스파게티, 샐러드, 매시트포테이토까지 많은 음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또 다른 룸메이트인 제이미는 며칠 동안 미국 음식 뭘 해줄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통 미국 음식은 햄버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퓨전으로 준비를 했다고,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먹어 달라고 얘기했다.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들은 나를 위해 파티를 열어 주었다. 남자친구가 있는 제이미가 바비큐 굽는 곳과 수영장이 딸린 남친의 집을 빌려서 거기에 친구들을 불러 나를 위해 파티를 열어 준 것이다. 그날 나는 미국 친구들의 파티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들은 더 친해졌고, 매일같이 함께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 가끔은 바 같은 곳에도 함께 가고,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곤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민이나 관심거리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이들도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두 달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가을학기가 되자 나는 자취방으로, 어떤 친구는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헤어지는 날 우리들은 한참 동안 포옹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생각만 하던 미국 친구들을 진짜로 얻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다.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서우면 이들도 무섭고, 우리가 웃기면 이들도 웃기는 건 똑같다. 중요한 건 그냥 상대를 똑같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화와 환경의 차이를 떨치고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다면 **첫째**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먼저 열어 놓지 않으면 좀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에 와서 외국 친구를 사귄 때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깨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기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은 기대를 안 한다고 하면서 꼭 내가 뭔가를 해주면 상대가 그 이상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에 상대가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상처를 받는데, 절대로 그렇게 계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셋째**,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는 내가 직접 미국 친구들을 통해서 느껴 본 감정들이다.



넷째는 무조건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거다. 사실 이 인사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것 역시 나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중요한 부분인데, 인사를 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며, 아무래도 몇 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인사는 죽지 못해 억지로 하는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밝게 웃으며, 친절히 하는 인사를 말한다.

다섯째,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이것 역시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미국사람들은 카드나 선물을 교환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 나는 기숙사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다. 사실 신기할 것도 없는데 말이다. 아버지의 직업이 학교의 수위아저씨였던 나는 이분들이 남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말 한마디라도 더 걸게 되고, 음료수라도 하나 더 챙겨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해서 나는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슈퍼마켓에 가서 카드 몇 장을 샀다. 그러곤 거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처음 온 박경림이라는 학생입니다. 미국 이름은 케이티구요. 항상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처음이라 영어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구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요"라고 쓰고는 다음날 경비 아저씨들에게 초콜릿 하나씩과 함께 전해 드렸다.

그랬더니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Hi, Katy!"라며 내 이름을 크게 불러 주었고, 하루에도 몇 가지씩 영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나는 기숙사 생활이 더 즐거워졌고, 많은 혜택도 얻을 수 있었다. 일단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기숙사에 카드가 없는 내 친구들이 가끔 통과가 됐으며 (이런 말 해도 되나?) 또한 리처드라는 경비 오빠(?)가 소개시켜 준 케이블 맨

은 내 방에 돈을 내야만 깔아 주는 텔레비전 케이블을 무료로 깔아 주기도 했다.

카드며 선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 건 아니다. 카드는 슈퍼마켓에 가서 저렴한 걸로 사면 되고 초콜릿이나 사탕도 큰 봉지로 하나만 사서 나누면 된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간단한 편지와 함께 사탕 같은 것을 선물해 보라. 특히 수줍음이 많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더 더욱 이 방법이 좋다.

여섯째로 우리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듯이 그들 역시 우리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악이라든지, 영화 또는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얘기들을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나 역시 그들의 것을 알고 싶어 하므로 동시에 두 가지 문화를 비교하고, 느껴보는 것도 상대와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다.

일곱째는 그들만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파티는 호화롭고, '빠까뽀'한 파티가 아니고, 우리의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파티를 말한다. 떡볶이라든가 잡채, 삼겹살 등 아무 거라도 좋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을 한두 가지 준비하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면 아마 백이면 백 다 기쁜 마음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당부의 말은 음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한국 식당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것. 괜히 초대해 놓고 맛 없는 음식 해주면 줄던 사이도 깨진다.



마지막으로는 '그들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어차피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어떤 문화를 접하고 있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등을 보고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는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과는 다르다. 올바른 비판과 비교를 하려면 일단

상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싫다,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해서 그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바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나이트에 가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며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친구를 만나는 일이다. 인생에 정말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 모른다.

● 땃음말-박경림 ●



나는 학창 시절부터 좋다는 영어책은 꼬박꼬박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끝까지 본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대개 내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워 끝까지 읽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가 만약 영어책을 만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2003년 초여름 어느 날,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과연 영어책을 낼 자격이 있는가' 싶기도 했지만, 내가 영어를 배우면서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보여 주고, 그러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만큼 보람 있는 게 또 있으랴 싶었다.

이곳에 와서 나는 내 자신을 살아 있게 하는 것,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는 그 무엇을 발견했고, 그것이 있어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처음엔 영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지금은 이놈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나는 펍 신기하고 스스로 대견하다. 여러분에게도 자기를 살아 있게 하는 '그 무엇'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도 드린다.

● 땃음말-백선업 ●



이제 박경림 씨와 함께 한 1년 반의 시간이 끝났다. 한편으로는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한 게 지금 내 솔직한 심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전화와 이메일로 피로에 지친 그녀를 깨우지 않아도 된다. 이젠 나도 자유다!

그러나! 이젠 머리를 휘날리면서 3번가를 힘차게 걷는 그녀의 모습,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Hairspray>를 보며 감동에 젖던 그녀의 눈망울, 뉴욕 택시 yellow cab을 타고 자신 있게 "Seventy four Bleekers Street!"를 외치던 허스키한 그녀의 목소리, 뉴욕 32nd Street 한국식당 '큰집'에서 종업원 아주머니와 곰살궂게 대화를 나누던 그녀의 소박한 모습, 베트남 식당 '사이공 그릴'에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오후 수업을 위해 뛰쳐나가다가 사진을 찍자고 달려드는 한국인 팬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일일이 사진 모델이 되어 주던 그녀의 친절함, 그리고 그녀의 밝은 웃음을 난 더 이상 뉴욕에서 볼 수가 없겠지?

그녀의 힘차고 명랑한 모습,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이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전염되기를 바라며... 시원섭섭한 작별의 글을 남긴다.

"경림 씨! 해냈어요, 우리!"

● 작가소개 ●

박경림, 뉴욕, 팜, 450일

2001년 12월 30일 '그 영어로 어떻게 유학을 가느냐'는 주변의 빈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함.

2003년 2월 26일 미국하고도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몸을 실음.

2003년 3월 Embassy Language School에 왕기초반으로 등록. Hello, Thank you부터 죽어라 연습.

2003년 6월 NYU(New York University)의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랭귀지센터에 등록. 그곳에서 선생님 닐을 만나고, 커트니·제이미라는 두 원어민 룸메이트와 동고동락하면서 영어와 부쩍 친해짐.

2003년 10월 룸메이트 제이미를 통해 연기 학교로 유명한 New York Film Academy를 알게 됨.

2004년 3월 뉴욕필름아카데미 입학.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것 없는 학교의 분위기와 스파르타식 커리큘럼에 짓눌려 힘겨운 나날을 보냄. 매일 울음을 삼키며 씩씩한 얼굴로 학교를 다님.

2004년 4월 NYU에서 대학원 입학 허가 통지. 그러나

그때쯤엔 이미 연기 공부에 중독됨.

2004년 5월 뉴욕필름아카데미에서 유학생 최초로 전액

장학생에 선발됨.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달달 외워야 하는 한 뭉치의 스크립트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연구 과제들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

박경림의 블로그에는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http://www.cyworld.com/nemoenglish>(싸이월드 '네모'잉글리시)

박경림의 든든한 영어선생님 백선업